05/06
2026. VOL. 01

DEFENSE STANDARDIZATION JOURNAL

격월간 국방표준화 저널

THE Revolutionary FAR OVERHAUL

2025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26 National Defense Strategy

FY26 NDAA

KAFSP
Center for Korea-America Freedom & Security Policy
(사)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

DEFENSE STANDARDIZATION JOURNAL

2026.05/06 – VOL. 01

※ 창간호 표지 사진은 「Defense Acquisition」 Magazine (2026.3~4월) 표지를 캡처함. 미 전쟁부(DoW)는 Hegseth 전쟁부 장관 Memo 및 Acquisition Transformation Strategy에 따라 혁신적인 FAR(연방 획득 규정) 개편을 추진 중이다.

등록번호	종로 2023-000022
ISSN	
발행일	2026년 6월 18일
발행인	정성길
편집장	백현봉(pureh@hanmail.net)
편집위원	김완룡, 남형권, 송옥희
발행처	(사)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401호
디자인·인쇄	서울기획 Tel. 02-2164-3323
구독 및 후원 문의	비매품(파일 공유), 편집장(purehb@hanmail.net) Tel. 02-732-9871 Fax. 02-732-9872 Mobil. 010-5073-2652

격월간 〈국방표준화 저널〉은 독자 여러분의 투고나 제언을 환영합니다. 국내 및 해외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단상, '국가안보와 국방 이슈 및 국제 관계' 등에 관한 전문 필진의 투고 의향이 있으신 분은 편집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본 간행물에 게시된 자료의 무단복제·전재를 금합니다.

Contents

002 발간사: 신냉전 시대와 국방표준화의 새로운 과제 정성길

004 축사: DEFENSE STANDARDIZATION JOURNAL 창간을 축하합니다. 김재창

005 국방표준화 저널 창간을 축하하며 발전을 기원합니다. 박종헌

006 DEFENSE STANDARDIZATION JOURNAL 창간에 즈음하여… 백현봉

U.S. & DoW Document

008 1. 2025 National Security Strategy 번역: 백현봉

034 2. 2026 National Defense Strategy 번역: 백현봉

054 3. FY26 NDAA 번역: 백현봉

Breaking Defense News article

076 1. NSS는 NATO 확장을 제한하는 '먼로 독트린' 부활 촉구 Ashley Roque

078 2. NDS 계획부터 획득 시스템 개편 방안까지: 2026년 전망 Ashley Roque

080 3. 전쟁부 군수품 가속화 위원회는 2027년까지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 무기 14종 선정 Ashley Roque

083 4. Hanwha, Magnet Defense와 제휴해 MUSV, 로봇 조선소 건설 Diana Stancy

085 5. 미국 전쟁부, AI 8개 기술 업체의 미 기밀 네트워크에 배포 승인 Sydney J 외

087 The Truth of the Korean War: 국가 안보와 보훈 1 이범희

Episodes from a Retired Officer's Military Life

091 1. 강재구 소령 순직 60주년을 추모하며 김덕수

093 2. 서언, 국방 업무와 마음가짐 남무열

095 3. 나는 어떻게 참 군인이 되었는가? 백현봉

097 4.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윤종욱

Acquisition, Defense Standardization Issue

099 DoW(Department of War) Issue 편집부

104 MND(Minstry of National Defense) Issue 편집부

신냉전 시대와 국방표준화의 새로운 과제

신냉전 시대를 맞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는 정치·경제·안보 전반에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사이에서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중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판단을 넘어 국가의 위상,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 미래 안보 전략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최근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K-방산은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과 방산업체들의 헌신, 그리고 국방산업 전반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방산이 세계적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수출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가 차원의 올바른 전략적 판단과 함께, 국방 체계의 기반을 이루는 표준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국방표준화(Defense Standardization)'라는 용어는 아직 한국군 내부에서조차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국군이 표준화 개념을 도입한 지 7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초기 도입 과정에서 본래의 의미와 체계가 충분히 정립되지 못한 채 '규격화'라는 좁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추진되어 온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방표준화는 단순히 장비나 부품의 규격을 맞추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무기체계, 군수지원, 작전 운용, 동맹 간 상호운용성, 품질관리, 시험평가, 공급망, 국제협력에 이르기까지 국방 전반의 효율성과 전투력 향상에 직결되는 핵심 기반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국방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방표준화를 국가 안보와 방위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오늘날 K-방산의 약진과 함께 국방표준화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국방표준화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저널이나 연구·정보 교류의 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사)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KAFSP)에서 시대적 필요에 부응하여 「DEFENSE STANDARDIZATION JOURNAL」을 격월간지로 발행합니다.

KAFSP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국가 안보 태세 확립, 발전적 한미동맹 교류 협력 증진, 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자유민주적 질서에 기반한 통일 여건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2021년 12월 외교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그동안 안보 정책 연구, 한미동맹 강화, 안보 교육 및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민간 차원의 안보 역량 강화에 힘써 왔습니다.

이번에 창간하는 「DEFENSE STANDARDIZATION JOURNAL은 한국군 관계자, 방산업체 임직원, 정책 연구자, 군수·품질·표준화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전문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국방표준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한국 국방 체제와 K-방산의 체질을 한 단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본 저널이 한국군과 K-방산 관계자들에게 산소와 같은 지식의 통로가 되고, 국방표준화 중요성을 확산시키는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한미동맹 기반의 국제 안보 협력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사)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 대표 정성길 정성길

DEFENSE STANDARDIZATION JOURNAL 창간을 축하합니다.

김재창 예비역 육군 대장, 전)국방SW산학연협회장

「국방표준화 저널(DEFENSE STANDARDIZATION JOURNAL」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사회 모든 분야에, 격변의 시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 분야에서는, 무기체계가 다투어 첨단화, 다양화하면서 군수품의 획득, 운영유지 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새로운 관리 체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선결 과제가 국방표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국방 관리 전문가들이(한미 자유 안보) 정책센터의 지원을 받으면서, '국방표준화 저널'을 만들어, 한편으로는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전문적인 연구와 학술교류 활동을 뒷받침하여, 국방표준화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발상과 노력은, 한국군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노력이 열매를 맺게 될 때, 이 격변의 시대를 오히려 국군 발전의 기회로 삼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것을 내다보면서, 관심 있는 전문가 모두의 참여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방표준화 저널 창간을 축하하며 발전을 기원합니다.

박종헌 공군전우회장, 전) 공군 참모총장

국제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예측 불가능한 격랑 속에 있습니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과학기술은 첨단 무기체계의 치열한 개발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는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유지해 온 상식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와 미래전의 승패는 결국 공중과 우주 공간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는 현재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무력 충돌들이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처럼 전장이 좁고 군사력이 밀집된 환경에서는 '먼저 보고, 빨리 결심하며, 정확하게 타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완벽하게 전쟁을 억제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냉혹한 국제 관계 속에서 독자적인 첨단 항공우주 능력을 갖추는 것은 굳건한 안보 연대와 기술 협력을 이끌어내는 핵심 기반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첨단 항공기라 할지라도 제때 핵심 부품이 공급되지 않으면 지상에 묶여 날지 못하는 이른바 '비행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부품 단종 문제는 공군의 전투력 유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국방표준화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공군은 군수사령부를 중심으로 핵심 부품을 전담 관리하는 '품목 담당관(Item Manager)'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방표준화 분야의 전문가 양성과 더욱 효율적인 제도 및 절차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 군의 국방표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방산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마중물로서 「DEFENSE STANDARDIZATION JOURNAL」이 창간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저널을 활용하여 공군을 비롯한 우리 군 전반에 걸친 국방표준화 제도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군수품을 더욱 효율적으로 획득하고 유지·관리함으로써, 국방 예산은 절감하고 우리 군의 전력 유지와 준비 태세는 한층 더 굳건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국방표준화 저널」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DEFENSE STANDARDIZATION JOURNAL 창간에 즈음하여…

백현봉 국방표준화 저널 편집장

'국방표준화'라 하면 한국군 종사자 대부분은 품목 지정, 규격 제정, 형상 관리를 떠올릴 것입니다. 이는 한국군에서 '국방표준화'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해당 업무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공군 장교로 30년 근무하면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갖추었기에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는 '국방표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F-4E 후방석 조종사 요원으로 1,000여 회의 비행을 통해 무기체계를 비롯한 작전을 경험하였고, 전자계산학 전공 후 정보통신 병과로 전환하여 공군대학 교관, 군수혁신, 분석평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특별히 합참과 공본 등에서 한국군 최초의 C4I 사업 전체 프로세스에 참여했고, 국통사 근무 시는 최초의 초고속 기간망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2008년 전역 후에는 국방 SW산학연협회(회장 김재창 예비역 대장)에서 국방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교육을 주관하였습니다. 이후 세종대 국방연구소에서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을 통해 '국방표준화'를 만나게 되었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미국 전쟁부와 비교 시 한국군 수준의 격차가 너무나 크고 누군가는 그 격차를 줄여주어야 하기에.

"DEFENSE STANDARDIZATION JOURNAL" 발행 계기를 소개합니다. 2026년 1월 3일 미군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한 "Absolute Resolve" 작전이 상상을 초월한 성공을 거둡니다. 또한 이 시기에 미국에서 다양한 문서가 제정됩니다. 「국가 안보 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 방위 전략(NSS: National Defense Strategy)」, 「FY26 국방수권법(NDAA)」, 「획득 혁신전략(ATS: Acquisition Transformation Strategy)」 및 Pete Hegseth 전쟁부 장관의 각서(4편) 등. 당시 필자는 방산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기고문을 작성 중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기고문에 담기 위해 집중하는 사이 필자 몸이 한계를 벗어나고 면역체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순간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을 통해 10여 일간 입원하게 되고 전리품이 바로 해당 Journal입니다.

향후 격월로 발행하게 될 Journal은 그동안 필자가 수행했던 국방표준화, 획득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

다. 미 전쟁부(DoW) 국방표준화 프로그램(DSP) 사명은 상호운용성 촉진 및 총소유비용을 절감하며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DoW에서는 국방 규격·표준·핸드북, 비정부 표준(NGS), 모듈식 개방형 시스템 접근방식(MOSA), 적층 제조(AM), 인증, 부품 관리, 부품 단종, 위조 부품 등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저널에서는 각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AI 및 데이터 전략, 디지털 엔지니어링, 시스템 엔지니어링(SE), 형상 관리(CM) 및 관련된 최신(개정) 표준과 가이드북 등을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군 특성을 고려한 국방표준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외에 보훈 칼럼 차원에서 6.25 한국전쟁의 진실,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들의 현역 시절 Episode, Breaking Defense News 중에 표준화와 획득 관련된 기사, 미국 전쟁부와 한국군 관련기관의 국방표준화 주요 활동(수행업무 및 용역 등)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본 Journal의 궁극적인 발행 목적은 한국군을 깨워 DoW와 MND 격차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군과 방산업체 관계 요원, 방산 관련 마니아를 구독 대상으로 봅니다. 구독(비매품) 방법은 디지털 시대에 모두가 쉽게 자료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책자가 아닌 파일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Upload 하고 누구나 Download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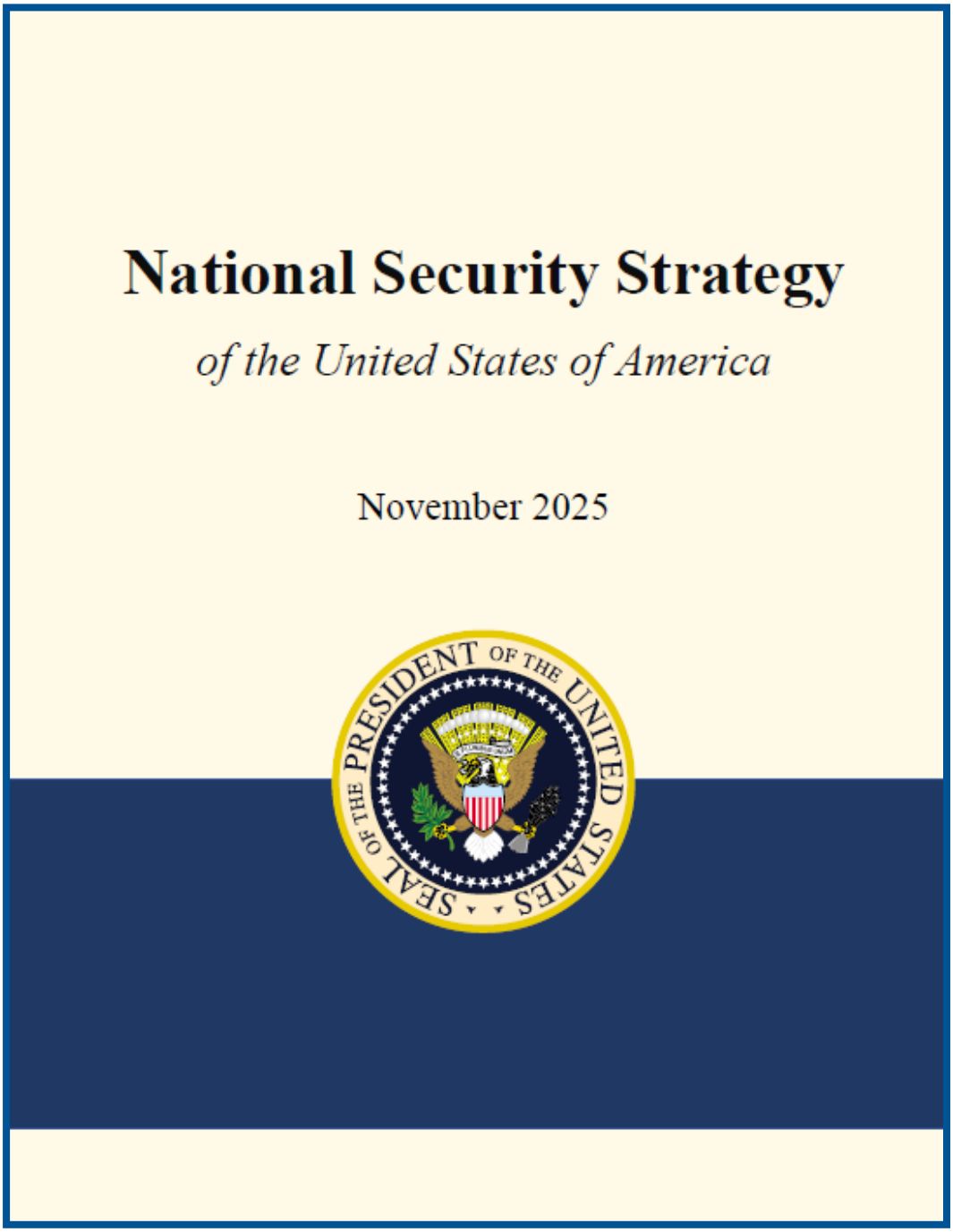
미국의 국방표준화 목적은 미국과 전쟁부의 상위 전략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기에 해당 전략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창간호의 핵심 내용은 미국과 DoW 차원의 「국가 안보 전략(NSS)」, 「국가 방위 전략(NSS: National Defense Strategy)」 및 「FY26 국방수권법(NDAA)」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미국 전쟁부는 이미 국방표준화 차원의 인프라 즉, 법·표준화문서·프로세스·방법·도구 등이 정립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서 보는 것처럼 AI와 드론의 등장으로 전쟁 수행 개념이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소요와 획득 측면에서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DoW 내에서 다양한 문서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것이고 해당 내용을 본 Journal에 담고자 합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연재될 '6.25 한국전쟁의 진실' 연재에 앞서 6.25가 일어나게 된 배경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몇 차례에 걸쳐 '국가 안보와 보훈' 칼럼이 게재됩니다.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4인의 현역 시절 Episode를 통해 조국을 위해 젊음과 생명을 바친 참 군인의 삶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Journal에서는 때론 미국 DoW와 한국군의 국방표준화 운영 현황도 비교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방표준화와 획득 제도에 대한 한국군의 진정한 현실을 보고 K-방산에 부합한 각종 표준화문서 제정 등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향후 한국군과 K-방산에 부합하고 도움이 되는 Journal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피드백을 통해서만 가능하기에 편집장 이메일(purehb@hanmail.net)을 통한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U.S. and DoW Document

1. 2025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 안보 전략)

번역: **백현봉**



THE WHITE HOUSE WASHINGTON

친애하는 미국 시민 여러분:

지난 9개월 동안 우리는 미국과 전 세계를 파멸과 재앙의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4년간의 나약함, 극단주의, 그리고 치명적인 실패 이후, 우리 행정부는 미국 국내외의 국력을 회복하고 세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 시급하고 역사적인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행정부도 그처럼 짧은 시간 안에 그토록 극적인 변화를 이뤄낸 적은 없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나는 미국의 주권 국경을 회복하고 미군을 파견하여 미국에 대한 침략을 저지했습니다. 우리는 군대에서 급진적인 성 이데올로기와 광신적인 진보주의를 몰아내고 1조 달러를 투자하여 군사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재건하고 동맹국들이 공동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NATO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GDP의 2%에서 5%로 증액하기로 한 역사적인 약속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미국의 에너지 생산을 활성화하여 독립성을 되찾고, 핵심 산업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해 역사적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Midnight Hammer Operation'을 통해 우리는 이란의 핵농축 시설을 완전히 파괴했고, 나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마약 카르텔과 잔혹한 외국 갱단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단 8개월 만에 캄보디아와 태국, 코소보와 세르비아, 콩고민주공화국과 르완다, 파키스탄과 인도, 이스라엘과 이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분쟁을 비롯한 8건의 격렬한 분쟁을 해결했고,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함으로 모든 인질을 가족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미국은 다시 강대국이 되었고 존경받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덕분에 우리는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는 미국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뤄낸 놀라운 발전을 설명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 안보 전략입니다. 해당 문서는 미국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성공적인 국가이자 지구상 자유의 본고장으로 남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로드맵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국가 역량의 모든 측면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미국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안전하고, 부유하고, 자유롭고, 위대하고, 강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President Donald J. Trump

The White House

November 2025

목 차

Ⅰ. 서론 - 미국의 전략은 무엇인가?
1. 미국의 "전략"은 어떻게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가?
2. 트럼프 대통령의 필요하고 환영할 만한 시정 조치

Ⅱ. 미국은 무엇을 원해야 하는가?
1.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2. 우리는 세계에서 무엇을 원하고, 세계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원하는가?

Ⅲ.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

Ⅳ. 전략
1. 원칙
2. 우선순위
3. 지역
A. 서반구 B. 아시아
C. 유럽 D. 중동
E. 아프리카

Ⅰ. 서론 - 미국의 전략은 무엇인가?

1. 미국의 "전략"은 어떻게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가?

미국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부유하고, 영향력 있고, 성공적인 국가로 남기 위해서는 세계와의 상호작용에 일관되고 집중된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당 전략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미국인이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야 한다.

'전략'이란 목표와 수단 사이의 본질적인 연결 고리를 설명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다. 이는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평가하고, 원하는 결과 달성을 위해 어떤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현실적으로 어떤 도구를 만들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전략은 평가, 분류, 우선순위 설정을 거쳐야 한다. 아무리 가치 있는 국가, 지역, 문제 또는 대의명분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미국 전략의 초점이 될 수는 없다. 외교정책의 목적은 핵심적인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해당 전략의 유일한 초점도 바로 그것이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전략은 미흡했다. 그저 희망 사항이나 바람직한 최종 상태를 나열하는 데 그쳤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하기보다는 모호한 상투적인 말만 늘어놓았으며,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조차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냉전 종식 후, 미국의 외교정책 엘리트들은 전 세계에 대한 미국의 영구적인 지배가 미국의 국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일은 그들의 활동이 우리의 국익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경우에만 우리의 관심사가 된다.

미국 엘리트들은 미국 국민이 국가 이익과 아무런 연관성도 없다고 생각하는 전 세계적인 부담을 미

국이 영원히 짊어질 것이라는 점을 심각하게 오판했다. 그들은 거대한 복지·규제·행정 국가와 막대한 규모의 군사, 외교, 정보, 해외 원조 복합체를 동시에 지원할 미국의 능력을 과대평가했다. 그들은 세계화와 소위 "자유 무역"에 엄청나게 잘못되고 파괴적인 투자를 했고, 이는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패권의 기반인 중산층과 산업 토대를 무너뜨렸다. 그들은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국방비를 미국 국민에게 전가하도록 허용했고, 때로는 그들의 이익에 핵심적이지만 우리의 이익과는 무관한 갈등과 논쟁에 우리를 끌어들였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의 정책을 국제기구 네트워크에 묶어두었는데, 해당 기구 중 일부는 노골적인 반미주의에 의해, 또 다른 다수는 개별 국가의 주권을 해체하려는 초국가주의에 의해 움직인다. 요컨대, 우리 엘리트들은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 즉 우리 국가의 권력, 부 그리고 도덕성의 기반이 되는 국가의 특성을 훼손했다.

2. 트럼프 대통령의 필요하고 환영할 만한 시정 조치

이 모든 것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행정부는 올바른 리더십이 올바른 선택을 하였다면 위의 모든 문제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피해야 했으며,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었음을 증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진은 미국의 강점을 성공적으로 결집하여 방향을 바로잡고 미국에 새로운 황금기를 열어가기 시작하였다. 미국이 그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행정부와 본 문서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미국은 무엇을 원해야 하는가? 2) 그것을 얻기 위한 우리의 수단은 무엇인가? 3) 어떻게 하면 목표와 수단을 연계하여 실행 가능한 국가 안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가?

Ⅱ. 미국은 무엇을 원해야 하는가?

1.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미국이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공화국으로서 계속 존속하고 안전하게 유지되기를 바라며, 미국 정부가 시민들에게 신이 부여한 천부적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복지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기를 바란다.

우리는 미국과 국민, 영토, 경제, 삶의 방식을 군사적 공격과 적대적인 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간첩 행위, 약탈적인 무역 관행, 마약 및 인신매매, 파괴적인 선전 및 영향력 공작, 문화 전복 또는 그 밖의 모든 국가에 대한 위협이 포함된다.

우리는 국경, 이민 시스템, 합법적 및 불법적이든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교통망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원한다. 우리는 이민이 단순히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권 국가들이 협력하여 인구 흐름의 불안정을 촉진하기보다는 멈추고, 누구를 받아들이고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을지 완전히 통제하는 세상을 원한다.

우리는 자연재해에 강하고, 외국의 위협에 저항하고 저지하며, 미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미국 경제를 교란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탄력적인 국가 기반 시설을 원한다. 어떤 적이나 위험도 미국을 위협에 빠뜨릴 수 없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사상자로 신속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이며, 기술적으로 진보된 군대를 모집, 훈련, 장비하고 배치하고자 한다. 또한 모든 장병이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임무에 확신을 갖는 군대를 원한다.

우리는 미국 국민과 해외 자산 그리고 동맹국 보호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현대적인 핵 억지력과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미국 본토를 위한 골든 돔을 원한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역동적이며,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선진적인 경제를 원한다. 미국 경제는 미국인의 생활 방식의 근간이며, 광범위하고 폭넓은 번영을 약속하고 실현하며, 사회적 상승 이동성을 창출하고, 근면한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 또한 미국 경제는 세계적 위상의 기반이자 군사력의 필수적인 토대이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산업기반을 원한다. 미국의 국력은 평시와 전시 생산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강력한 산업 부문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방위산업 생산 능력뿐만 아니라 국방 관련 생산 능력도 요구한다. 미국의 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견고하고 생산적이며 혁신적인 에너지 부문을 원한다. 이는 미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미국의 주요 수출 산업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문이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앞선 혁신적인 국가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이러한 강점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외국으로부터 우리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미국의 개척 정신은 우리의 지속적인 경제적 지배력과 군사적 우위의 핵심 기둥이며,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독보적인 "Soft Power"를 유지하

여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우리의 국익을 증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가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다른 나라의 다양한 종교, 문화, 통치 체제를 존중할 것이다. 미국의 진정한 국익에 부합한 "Soft Power"는 우리가 국가의 본질적인 위대함과 품위를 믿을 때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국의 정신적, 문화적 건강을 회복하고 되살리기를 원한다. 그것 없이는 장기적인 안보가 불가능하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과 영웅들을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황금기를 기대하는 미국을 원한다. 우리는 자긍심과 행복 그리고 낙관적인 마음으로 다음 세대에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국민을 원한다. 우리는 누구도 방관하지 않고, 자신의 일이 국가의 번영과 개인 및 가족의 행복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끼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시민들을 원한다. 이는 건강한 아이들을 키우는 튼튼하고 전통적인 가정이 늘어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2. 우리는 세계에서 무엇을 원하고, 또 세계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가 역량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전략의 초점은 외교정책에 맞춰져 있다. 미국의 핵심 외교정책 이익은 무엇인가? 우리는 세계에서 무엇을 원하고 또 세계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 우리는 서반구가 미국으로의 대규모 이주를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을 만큼 합리적으로 안정되고 잘 통치되는 상태로 유지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서반구 정부들이 마약 테러리스트, 카르텔 및 기타 초국가적 범죄 조직에 맞서 우리와 협력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적대적인 외국의 침략이나 주요 자산의 소유권으로부터 자유롭고 중요한 공급망을 지원하는 서반구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주요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권이 확보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먼로 독트린에 대한 "트럼프 수정 조항"을 주장하고 시행할 것이다.
- 우리는 외국 세력이 미국 경제에 지속적으로 가하는 피해를 막고 되돌리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개방성을 유지하고, 모든 주요 해상 항로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과 필수 물자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 우리는 유럽의 자유와 안보를 수호하는 동시에 유럽 문명의 자긍심과 서구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동맹국들을 지원하고자 한다.
- 우리는 적대 세력이 중동, 그곳의 석유와 가스 공급, 그것들이 지나가는 주요 통로를 장악하는 것을 막고자 하며, 동시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그 지역에 발목을 잡았던 "끝없는 전쟁"을 피하고자 한다.
- 우리는 미국의 기술과 미국의 표준, 특히 인공지능, 생명공학,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세계 발전을 이끌고자 한다.

이것들은 미국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국가 이익이다. 물론 다른 이익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이익들이며, 이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큰 위험에 처할 것이다.

Ⅲ.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산, 자원 및 이점을 보유하며 세계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여전히 유연한 정치 체제로 상황에 따라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
- 세계 최대 규모이자 가장 혁신적인 경제력으로, 전략적 이익에 투자할 수 있는 부를 창출하고 미국 시장 접근을 원하는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 시스템과 자본 시장, 달러의 세계 기축 통화 지위.
-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혁신적이며 수익성이 높은 기술 부문으로, 미국 경제의 기반이 되고 군사력에 질적 우위를 제공하며 세계적 영향력을 강화.
-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군사력.
-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에 조약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을 보유한 광범위한 동맹 네트워크.
- 풍부한 천연자원, 서반구에서 물리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경쟁국이 없고, 군사적 침략 위험이 없는 국경, 다른 강대국들과 광활한 대양으로 분리된 부러운 지리적 이점.
-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Soft Power" 및 문화적 영향력.
- 미국 국민의 용기, 의지 및 애국심.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국내 정책을 통해 미국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역량 중심의 문화를 재정립하고, 소위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을 비롯한 우리 기관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발전을 저해하는 차별적이고 반경쟁적인 관행을 근절하는 것.
- 막대한 에너지 생산 능력을 전략적 우선순위로 활용하여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중산층을 강화하고 재건하는 것.
- 우리 경제를 다시 산업화하여 중산층을 더욱 지원하고 공급망과 생산 능력을 자체적으로 통제하는 것.
- 역사적인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미국인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되돌려주고, 미국을 사업하기 좋고 자본을 투자하기 좋은 최고의 장소로 만드는 것.
-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적인 번영, 경쟁 우위 및 군사적 지배력 확보를 위해 신흥 기술과 기초 과학에 투자하는 것.

본 전략 목표는 이러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산들을

비롯한 다양한 자산들을 결집하여 미국의 국력과 패권을 강화하고, 미국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한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Ⅳ. 전략

1. 원칙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실용적이지만 '실용주의적'이 아니고, 현실적이지만 '현실주의자'가 아니며, 원칙적이지만 '이상주의적'이 아니고, 강경하지만 '매파적'이 아니며, 절제되어 있지만 '비둘기파적'이 아니다. 전통적인 정치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지도 않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이익, 즉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의해 움직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의 대통령'으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역사적인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놀라운 성공을 거둔 것 외에도, 두 번째 임기 8개월 만에 전 세계 8개 분쟁 지역에서 전례 없는 평화를 확보하는데 자신의 탁월한 협상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는 캄보디아와 태국, 코소보와 세르비아, 콩고민주공화국과 르완다, 파키스탄과 인도, 이스라엘과 이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평화 협상을 성사하였고,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하여 모든 인질을 가족에게 돌려보냈다.

지역 분쟁이 전 세계를 휩쓸어버리는 세계 대전으로 확대되기 전에 이를 막는 것은 최고사령관의 관심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으며, 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다. 전쟁이 우리 해안까지 번지는 세상은 미국의 국익에 해롭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전통적인 외교, 미국의 군사력, 경제적 영향력을 활용하여 핵무장국 간의 분열과 수 세기 동안 이어져 온 증오에서 비롯된 폭력적인 전쟁의 불씨를 정밀하게 진압하고자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 국방 및 정보 정책이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함을 입증했다.

• 국가 이익에 대한 명확한 정의

적어도 냉전 종식 이후, 역대 행정부들은 미국의 "국가 이익"의 범위를 넓혀 거의 모든 사안이나 사업을 그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으려는 국가 안보 전략을 자주 발표해 왔다. 그러나 모든 것에 집중하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미국의 핵심 국가 안보 이익에 집중할 것이다.

• 힘을 통한 평화

힘은 최고의 억지력이다.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국가나 행위자들은 충분한 억지력을 확보하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힘은 평화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의 힘을 존중하는 당사자들은 종종 우리의 도움을 구하고, 갈등 해결과 평화 유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호의적이기 때

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최강의 경제를 유지하고,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며, 사회의 문화적 건강을 증진하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

• 불 개입주의 성향

미국의 건국자들은 독립선언문에서 다른 나라의 내정에 대한 불 개입주의를 분명히 밝혔으며, 그 근거를 명확히 했다. 모든 인간이 신이 부여한 평등한 천부적 권리를 소유하듯, 모든 국가 또한 "자연법과 자연의 신의 섭리"에 따라 서로 "분리되고 평등한 지위"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처럼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복잡한 나라에서 불 개입주의를 엄격하게 고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향은 정당한 개입의 기준을 높게 설정해야 한다.

• 유연한 현실주의

미국은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추구할 수 있고 바람직한 것에 대해 현실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다. 우리는 세계 각국과 우호적이고 평화로운 상업 관계를 추구하며, 그들의 전통과 역사와 크게 다른 민주주의 또는 기타 사회 변화를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적인 평가에 따라 행동하는 것, 통치 체제와 사회가 우리와 다른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같은 생각을 가진 우방국들이 미국의 공통된 규범을 준수하도록 독려하여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 결코 모순되거나 위선적인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확언한다.

• 국가 우선주의

세계의 근본적인 정치 단위는 국가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모든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주권을 수호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정당한 일이다.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할 때 세계는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며,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들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 주권의 권리를 옹호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가장 악랄한 초국가적 기구들의 행위에 반대하며, 그러한 기구들이 개인의 주권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하고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믿는다.

• 주권과 존중

미국은 우리의 주권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다. 이는 초국가적 및 국제적 기구에 의한 주권 침해 방지, 외국 세력이나 단체의 언론 검열 시도 또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 제한, 우리의 정책 방향을 좌우하거나 해외 분쟁에 개입시키려는 로비 및 영향력 행사, 외국 이익에 충성하는 투표 집단을 국내에 구축하기 위한 이민 제도의 악용을 막는 것을 포함한다. 미국은 외부 간섭 없이 세계에서 우리만의 항로를 개척하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 힘의 균형

미국은 어떤 나라도 우리의 이익을 위협할 정도로 지배적인 위치에 오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여 세계적,

지역적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지배적인 적대국의 출현을 막을 것이다. 미국은 스스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불길한 구상을 거부하는 만큼,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세계적, 나아가 지역적 지배를 막아야 한다. 이는 세계 모든 강대국과 중견국의 영향력 억제를 위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을 낭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더 크고, 더 부유하고, 더 강한 국가들의 막대한 영향력은 국제 관계에서 변함없는 진리이다. 이러한 현실은 때때로 우리의 공동 이익을 위협하는 야심을 저지하기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 친미 노동자

미국의 정책은 단순히 경제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될 것이며, 우리 노동자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다. 우리는 번영이 소수의 엘리트층이나 특정 산업 혹은 몇몇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실현되는 경제를 재건해야 한다.

• 공정성

군사 동맹에서부터 무역 관계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을 것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무임승차, 무역 불균형, 약탈적인 경제 관행, 우리의 오랜 우호 관계를 훼손하고 미국의 이익을 저해하는 기타 행위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이를 감당할 수 없다. 우리가 동맹국들이 부유하고 유능해지기를 바라는 만큼, 동맹국들 또한 미국이 부유하고 능력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우리는 동맹국들이 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중을 훨씬 높여, 수십 년간 미국의 막대한 국방비 지출로 누적된 불균형을 해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한다.

• 역량(Competence)과 실력(Merit)

미국의 번영과 안보는 역량의 개발과 증진에 달려 있다. 역량과 실력은 우리 문명의 가장 큰 장점이다. 최고의 미국인들이 채용되고, 승진하고, 존중받는 곳에서 혁신과 번영이 뒤따른다. 역량이 파괴되거나 체계적으로 억제된다면, 사회 기반 시설에서 국가 안보, 교육 및 연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복잡한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될 것이다. 실력이 억압된다면, 과학, 기술, 산업, 국방 및 혁신 분야에서 미국이 역사적으로 누려온 우위는 사라질 것이다. 역량과 실력을 특정 집단의 특권으로 대체하려는 급진적 이념이 성공한다면, 미국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모하고 스스로 방어할 수 없게 된다. 동시에, 우리는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내리는 "글로벌 인재"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미국의 노동 시장을 전 세계에 개방하는 명분으로 능력주의를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모든 원칙과 행동에 있어서 미국과 미국인들이 항상 최우선이어야 한다.

2. 우선순위

• 대규모 이민 시대는 끝났다.

한 국가가 어떤 사람들을, 얼마나, 어디에서 받아

들이느냐는 필연적으로 해당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게 된다. 주권 국가라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역사를 통틀어 주권 국가는 무분별한 이민을 금지했고,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지난 수십 년간 서방의 경험은 이러한 오랜 지혜를 입증한다.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대규모 이민은 국내 자원을 고갈시키고, 폭력과 범죄를 증가시키며, 사회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노동 시장을 왜곡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해 왔다. 대규모 이민 시대는 반드시 끝나야 한다. 국경 안보는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이다. 우리는 무분별한 이민뿐 아니라 테러, 마약, 간첩 행위, 인신매매와 같은 국경을 넘나드는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해야 한다. 미국 국민의 의지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는 국경 통제는 주권 공화국으로서 미국의 존립에 필수적이다.

• 핵심 권리와 자유 보호

미국 정부의 목적은 미국 시민에게 신이 부여한 천부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의 각 부처와 기관에는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었다. 해당 권한은 "탈 급진화", "민주주의 수호" 또는 그 어떤 구실로도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권한 남용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공동 정부를 선택하고 이끌어갈 권리는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핵심 권리이다. 이러한 원칙을 공유하거나 공유한다고 주장하는 국가들에 대해 미국은 이러한 원칙들이 문자 그대로, 정신적으로 옹호되도록 강력히 지지할 것이다. 우리는 유럽, 영미권, 나머지 민주주의 세계, 특히 동맹국에서 엘리트 주도의 반민주적인 핵심 자유 제한에 반대할 것이다.

• 부담 분담 및 부담 이전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수많은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각자의 지역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지고 공동 방위에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NATO 회원국들이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헤이그 협약을 통해 새로운 국제적 기준을 제시했으며, NATO 동맹국들은 이를 지지하고 이제 준수해야 한다. 동맹국들에게 각자의 지역에 대한 주요 책임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방식을 이어가면서, 미국은 정부를 주도적이고 지원적 주체로 하여 부담 분담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부담을 분담하고 모든 노력이 더 폭넓은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보장한다. 이 모델은 경제적 도구를 활용하여 인센티브를 조정하고, 뜻을 같이하는 동맹국들과 부담을 분담하며, 장기적인 안정을 위한 개혁을 요구하는 목표 지향적 협력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명확성을 통해 미국은 과거의 노력을 저해했던 과도한 개입과 분산된 초점을 피하면서 적대적이고 파괴적인 영향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자국 주변 지역의 안보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지고

수출 통제를 미국과 일치시키려는 국가들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잠재적으로 상업 문제에서 더 유리한 대우, 기술 공유 및 국방 조달 등을 통해 지원할 것이다.

• 평화를 통한 재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의 당면한 핵심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역이나 국가에서도 평화 협상을 추진하는 것은 안정성을 증진하고,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을 강화하며, 국가와 지역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재편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필요한 자원은 대통령 외교로 귀결되는데, 우리 위대한 나라는 유능한 지도력이 있을 때만 이를 감당할 수 있다. 오랜 갈등의 종식, 생명을 구함, 새로운 우방국 확보와 같은 성과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비교적 적은 비용을 훨씬 능가할 수 있다.

• 경제 안보

마지막으로, 경제 안보는 국가 안보의 근간이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미국 경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균형 무역

미국은 무역 관계의 균형을 재조정하고, 무역 적자를 줄이며, 수출 장벽에 반대하고, 미국 산업과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 덤핑 및 기타 반경쟁적 행위를 근절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다. 우리는 상호 이익과 존중을 바탕으로 우리와 무역하기를 원하는 국가들과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협정을 추구한다. 그러나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반드시 우리의 노동자, 우리의 산업 및 우리의 국가 안보가 되어야 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 핵심 공급망 및 자재 확보

알렉산더 해밀턴이 공화국 건국 초기부터 주장했듯이, 미국은 국가 방위와 경제에 필수적인 원자재, 부품, 완제품 등 핵심 요소에 대해 어떤 외부 세력에도 의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스스로 방어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지키는 데 필요한 물자를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약탈적인 경제 관행에 맞서 싸우면서 핵심 광물과 자재에 대한 미국의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정보기관에서는 전 세계 주요 공급망과 기술 발전을 감시하여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대한 취약점과 위협을 파악하고 완화할 것이다.

• 재산업화

미래는 제조업자들의 것이다. 미국은 경제를 재산업화하고, 산업 생산을 국내로 되돌리며, 미래를 좌우할 핵심 신기술 분야에 집중하여 경제와 노동력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유치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관세와 신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미국 전역에서 산업 생산이 널리 이루어지도록 하고, 미국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며, 국가가 핵심 제품이나 부품을 현재 또는 잠재적 적대국에 다시는 의존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 방위산업 기반 재건

강력하고 능력 있는 군대는 강력해야 하고 능력 있는 방위산업 기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최근 분쟁에서 드러난 저비용 드론과 미사일 및 이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고가의 시스템 간의 엄청난 격차는 우리가 변화하고 적응해야 할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미국은 저비용으로 강력한 방어체계를 혁신하고, 최첨단 시스템과 탄약을 대량으로 생산하며, 방위산업 공급망을 국내로 복귀시키기 위한 국가적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특히, 우리는 대부분의 적을 격파할 수 있는 저비용 무기부터 정교한 적과의 전투에 필요한 최첨단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우리 군인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집단 방위력 강화를 위해 모든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의 산업기반 재건을 장려할 것이다.

• 에너지 패권

석유, 가스, 석탄, 원자력 분야에서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회복하고 필수적인 핵심 에너지 자원을 미국 본토로 되돌리는 것은 최우선 전략 과제이다. 저렴하고 풍부한 에너지는 미국 내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며, 재산업화를 촉진하고,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순(net) 에너지 수출 확대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적대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며, 미국의 영토 방어 능력을 보호하고, 필요할 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는 유럽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미국을 위협하며 적대국에 자금을 지원하는 재앙적인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 이념을 거부한다.

• 미국의 금융 부문 지배력 유지와 강화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 및 자본 시장을 자랑하며, 이는 미국 영향력의 핵심 축으로서 정책 결정자들이 국가 안보 우선순위를 추진하는 데 상당한 지렛대 효과와 수단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도적 지위는 결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미국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자유 시장 시스템과 디지털 금융 및 혁신 분야에서 리더십을 활용하여 미국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유동적이며 안전한 시장으로 남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위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3. 지역

본 문서에서는 세계 곳곳과 모든 사안을 언급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는데, 이는 어떤 누락이라도 사각지대나 무시를 의미한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결과적으로 본 문서는 장황해지고 초점을 잃게 되는데, 이는 전략의 본래 목적과는 정반대이다.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며,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어떤 민족, 지

역 또는 국가가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모든 면에서 역사상 가장 관대한 국가이지만, 세상의 모든 지역과 모든 문제에 똑같이 관심을 기울일 수는 없다.

국가 안보 정책 목적은 국가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일부 우선순위는 지역적 경계를 초월한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테러 활동이 우리의 긴급한 관심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필요성에서 주변부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A. 서반구: 먼로 독트린에 대한 트럼프 수정안

수년간 방치되었던 먼로 독트린을 미국은 재확립하고 강화하여 서반구에서 미국의 패권을 회복하고, 본토와 역내 주요 지역에 대한 접근권을 보호할 것이다. 우리는 서반구 밖의 경쟁국들이 우리 반구에 병력이나 기타 위협적인 역량을 배치하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소유 또는 통제하는 것을 차단할 것이다. 먼로 독트린에 대한 "트럼프 수정안"은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 미국의 힘과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상식적이고 강력한 조치이다.

서반구에 대한 우리의 목표는 "협력 강화 및 확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는 서반구 내 기존 우방국들과 협력하여 이민 통제, 마약 밀매 차단, 육상 및 해상 안정과 안보 강화에 힘쓸 것이다. 또한, 새로운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동시에, 서반구에서 가장 선호되는 경제 및 안보 파트너로서 우리 국가의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다.

협력 강화(Enlist)

미국 정책은 역내에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지역 강대국들을 발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해당 국가들은 불법 이민과 불안정화를 초래하는 이민을 막고, 마약 카르텔을 무력화하며, 제조업을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고, 지역 민간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원칙과 전략에 폭넓게 부합하는 역내 정부, 정당과 시민 운동을 지원하고 장려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비록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더라도 공통의 이익을 공유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정부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서반구에서의 군사적 주둔을 재고해야 한다. 이는 분명 네 가지를 의미한다.

- 미국이 직면한 긴급한 위협, 특히 해당 전략에서 제시된 임무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군사 주둔을 재조정하고, 최근 수십 년 또는 수년간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이 감소한 지역에서 군사력을 철수해야 한다.
- 해상 항로를 통제하고, 불법 및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이민을 저지하고, 인신매매 및 마약 밀매를 줄이고, 위기 시 주요 이동 경로를 통제하기 위

해 보다 적절한 해안 경비대와 해군의 존재가 필요하다.

- 국경을 확보하고 마약 카르텔을 소탕하기 위한 표적 배치(deployment)에는, 지난 수십 년간 실패했던 법 집행 중심 전략 대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치명적인 무력 사용도 포함된다.
-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거나 확대한다.

미국은 관세와 상호 무역 협정을 강력한 도구로 활용하여 자국의 경제와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상업 외교를 우선시할 것이다. 목표는 파트너 국가들이 국내 경제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더욱 강력하고 발전된 서반구가 미국의 상업 및 투자에 더욱 매력적인 시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지역의 핵심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은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의 경제적 회복력을 높일 것이다.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 간의 연계 강화는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이외의 경쟁국들이 영향력을 확대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또한, 상업 외교를 우선시하는 동시에 무기 판매부터 정보 공유, 합동 훈련에 이르기까지 안보 협력 강화에도 힘쓸 것이다.

확장(Expand)

미국은 현재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이 지역에서 우리의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최우선 파트너로 여기도록 만들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그들이 다른 나라와 협력하는 것을 억제할 것이다.

서반구에는 미국이 역내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개발해야 할 전략적 자원이 풍부하며, 이를 통해 인접국뿐 아니라 미국 본토의 번영도 증진될 것이다. 국가안보회의는 정보기관 분석 부서의 지원을 받아 서반구의 전략적 요충지와 자원을 파악하고, 이를 보호하고 역내 파트너들과 공동 개발하기 위한 강력한 범부처 협력 프로세스를 즉시 시작할 것이다.

미주 대륙 밖의 경쟁국들이 우리 미주 대륙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이는 현재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불리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전략적으로도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러한 침략을 강력한 대응 없이 방치하는 것은 최근 수십 년간 미국이 저지른 또 다른 중대한 전략적 실수이다.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는 서반구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이 지역에서 자신감 있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 조건이다. 동맹 관계 및 모든 종류의 원조 제공 조건은 적대적인 외부 세력의 영향력 축소에 달려 있으며, 여기에는 군사 시설, 항만,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통제부터 광범위하게 정의된 전략 자산 구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포함된다.

일부 중남미 정부와 특정 외국 세력 간의 정치적 유착 관계를 고려할 때, 외국의 영향력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많은 정부는 외국 세력과 이념적으로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라, 저렴한 비용과 규제 완화 등 다른 이유로 외국과의 거래에 매력을 느낀다. 미국은 소위 "저비용" 해외 원조에 숨겨진 수많은 비용(간첩 행위, 사이버 보안, 채무 함정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서반구에서 외부 영향력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하며, 특히 금융 및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각국이 그러한 원조를 거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서반구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미국은 미국산 상품, 서비스, 기술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품질이 더 우수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원조처럼 여러 가지 조건이 붙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미국은 승인 및 라이선스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자체 시스템을 개혁하여 다시 한번 최고의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모든 국가가 직면해야 할 선택은 미국이 주도하는 주권 국가와 자유 경제 체제 속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지구 반대편 국가들의 영향력 아래 놓인 평행 세계에서 살 것인지이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이 지역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 관리들은 외부의 해로운 영향력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동시에 파트너 국가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우리 대륙을 보호해야 한다.

미주 대륙을 성공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와 미국 민간 부문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모든 대사관은 자국 내 주요 사업 기회, 특히 대규모 정부 계약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들 국가와 교류하는 모든 미국 정부 관계자는 미국 기업이 경쟁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 중 하나임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이 지역에서 미국 기업을 위한 전략적 획득 및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국무부, 전쟁부, 에너지부를 비롯한 모든 미국 정부 금융 프로그램, 중소기업청, 국제개발 금융 공사, 수출입은행,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MCC) 등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시할 것이다. 또한, 지역 정부 및 기업과 협력하여 확장 가능하고 탄력적인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핵심 광물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며, 미국의 암호화 및 보안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기존 및 미래의 사이버 통신망을 강화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미국 정부 기관들은 해외에서 미국 제품을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미국은 표적 과세, 불공정한 규제, 국유화와 같이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에 저항하고 이를 반대해야 한다. 특히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우리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들과의 협정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단독으로 사업을 수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의계약제(sole-source)를 도입해야 한다. 동시에, 해당 지역에 인프라를 건설하는 외국 기업들을 몰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B. 아시아: 경제적 미래를 확보하고 군사적 충돌 예방

강점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

트럼프 대통령은 30년 넘게 이어져 온 미국의 중국에 대한 잘못된 가정, 즉 미국 시장을 중국에 개방하고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장려하며 제조업을 중국으로 이전하면 중국이 이른바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편입될 것이라는 가정을 단번에 뒤집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중국은 부와 권력을 축적했고, 그 부와 권력을 상당한 이점을 누리는 데 활용했다. 미국 엘리트들은 양당의 네 차례에 걸친 행정부 동안 중국의 전략을 기꺼이 묵인하거나, 아니면 현실을 외면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이미 구매력평가(PPP) 기준 세계 GDP의 거의 절반, 명목 GDP 기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중은 21세기에 더욱 증가할 것이 확실하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이미 다음 세기의 주요 경제 및 지정학적 격전지 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의미한다. 국내 경제가 번영하려면 이 지역에서 경쟁에 성공해야 하며,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0월 순방 중에 상업, 문화, 기술, 국방 분야에서 강력한 유대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주요 협정들을 체결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경제력과 군사력,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 독보적인 Soft Power,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에게 이익을 준 역사적인 기록 등 우리가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엄청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구축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의 안보와 번영의 기반이 될 것이다.

경제학: 궁극적인 위험 부담

1979년 중국 경제가 세계에 개방된 이후 양국 간의 상업 관계는 근본적으로 불균형적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성숙하고 부유한 경제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 사이의 관계로 시작되었던 것이, 이제는 거의 동등한 위치에 있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로 변모했다. 하지만 아주 최근까지도 미국의 입장은 이러한 과거의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중국은 2017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특히 향후 수십 년간 가장 치열한 경제 전쟁터가 될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1인당 GDP 13,800달러 이하)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했다. 중국의 저소득 국가 수출은 2020년에서 2024년 사이에 두 배로 증가했다. 미국은 멕시코를 포함한 12개국에 있는 중국산 공장과 중간 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중국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저소득 국가 수출은 미국 수출의 거의 네 배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당시 중국의 대미 수출은 GDP의 4%였지만, 현재는 2%를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중국은 다른 대리 국가들을 통해 미국에 계속해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상호주의와 공정성을 우선시하여 미국의 경제적 독립성을 회복함으로써 중국과의 경제 관계 균형을 재조정할 것이다. 중국과의 무역은 균형을 이루고 민감하지 않은 요소에 집중되어야 한다. 미국이 성장 궤도를 유지하고 베이징과 진정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를 지속할 수 있다면, 현재 30조 달러 규모인 미국 경제는 2025년에 4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하여 세계 경제 대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기적인 경제 활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억지력 강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방식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미국의 강력한 억지력은 보다 절제된 경제 활동을 위한 여지를 마련해주고, 이러한 절제된 경제 활동은 장기적인 억지력 유지를 위한 미국의 재원을 더욱 확충해 주기 때문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사항이 있다.

첫째, 미국은 어떤 국가나 세력으로부터든 우리 경제와 국민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고 방어해야 한다. 이는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과 더불어) 다음 내용의 종식을 의미한다.

- 국가 주도의 약탈적 보조금 및 산업 전략
- 불공정 무역 관행
- 일자리 감소 및 탈산업화
- 대규모 지적 재산권 도용 및 산업 스파이 행위
- 광물 및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자원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위협하는 공급망 공격
- 미국의 오피오이드(opioid) 중독 확산을 부추기는 펜타닐 전구물질 수출
- 선전, 영향력 행사 공작 및 기타 형태의 문화적 전복 행위

둘째, 미국은 조약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 이들 국가는 미국의 30조 달러 규모의 경제력에 더해 35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우리는 약탈적인 경제 관행에 맞서 싸우고, 공동의 경제력을 활용하여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주도적 지위를 수호하고 동맹국 경제가 어떤 경쟁국에도 종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인도와의 상업적(그리고 기타) 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뉴델리가 인도-태평양 안보에 기여하도록 장려해야 하며, 여기에는 호주,

일본, 미국과의 4자 협력('Quad')을 지속하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우리는 어떤 단일 경쟁국에 의한 패권 장악을 막는다는 공동의 이익에 맞춰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의 행동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미국은 최첨단 군사 및 이중 용도 기술 분야에서 우리의 우위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에 투자해야 하며, 특히 미국의 강점이 가장 강한 영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영역에는 해저, 우주, 핵 분야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자율 시스템과 같이 미래 군사력의 향방을 결정할 분야와 이러한 분야들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분야가 포함된다.

또한, 미국 정부와 미국 민간 부문 간의 긴밀한 관계는 핵심 기반 시설을 포함한 미국 네트워크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을 감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미국 정부가 실시간으로 위협을 탐지, 추적 및 대응(즉, 네트워크 방어 및 공격 사이버 작전)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미국 기술 부문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역량을 더욱 향상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며 미국의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상당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미국과 역내 동맹국 모두에게 유리한 군사적 균형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미국은 경제적 우위를 유지하고 동맹 체제를 경제 그룹으로 공고히 하는 것 외에도, 향후 수십 년 동안 세계 경제 성장의 대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에서 강력한 외교적 노력과 민간 부문 주도의 경제 활동을 펼쳐야 한다.

미국 우선주의 외교는 세계 무역 관계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유럽,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국가들이 중국 경제의 균형을 가계 소비 중심으로 재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무역 정책을 채택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동남아시아, 중남미, 중동만으로는 중국의 막대한 과잉 생산 능력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럽과 아시아의 수출국들 또한 중소득 국가들을 제한적이지만 성장 가능성이 큰 수출 시장으로 고려할 수 있다.

중국의 국영 및 국가 지원 기업들은 물리적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은 무역 흑자 중 약 1조 3천억 달러를 무역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대출로 전환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른바 "Global South"를 위한 공동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고 실행에 옮기지도 못했지만, 막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유럽, 일본, 한국 등은 순 해외 자산이 7조 달러에 달한다. 다자개발은행을 포함한 국제 금융 기관들은 총 1조 5천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의 임무 범위가 확대되면서 일부 효율성이 저해

되었지만, 현 행정부는 지도적 위치를 활용하여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개혁을 추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미국을 다른 나라들과 차별화하는 요소, 즉 개방성, 투명성, 신뢰성, 자유와 혁신에 대한 헌신, 자유 시장 자본주의는 앞으로도 미국을 세계 최고의 파트너로 만들어 줄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가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 분야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파트너들에게 첨단 기술 협력, 방산 구매, 자본 시장 접근성 제공 등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하여 미국이 유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해야 한다.

2025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의 페르시아만 국가 국빈 방문은 미국 기술의 힘과 매력을 보여주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의 지지를 얻어 미국의 우수한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했다. 미국은 이와 유사하게 인도를 비롯한 유럽 및 아시아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여 서반구와 아프리카의 핵심 광물 자원 분야에서 공동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금융과 기술 분야에서 우리의 비교 우위를 활용하여 협력국들과 수출 시장을 구축하는 연합체를 구성해야 한다. 미국의 경제 파트너들은 더 이상 과잉 생산과 구조적 불균형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되며, 전략적 제휴와 장기적인 미국 투자를 바탕으로 관리된 협력을 통해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깊고 효율적인 자본 시장을 보유한 미국은 저소득 국가들이 자체 자본 시장을 발전시키고 자국 통화를 달러에 더욱 긴밀하게 연동시켜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로서의 미래를 보장하도록 도울 수 있다.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은 여전히 정부 체제와 역동적인 자유 시장 경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의 장점이 저절로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가 안보 전략은 필수적이다.

군사적 위협 억제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의 경제적,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대규모 군사 충돌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유리한 재래식 군사력 균형은 전략적 경쟁의 필수 요소이다. 대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부분적으로 대만이 반도체 생산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대만이 제2도련선(Second Island Chain)의 직접적인 통로를 제공하여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두 개의 서로 다른 전역(theater)으로 나누기 때문이다. 전 세계 해상 운송량의 3분의 1이 매년 남중국해를 통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미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만을 둘러싼 분쟁을 억제하고, 이상적으로는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또한 미국은 대만에 대한 오랜 선언적 정책을 유지할 것이며, 이는 미국

이 대만 해협의 현상 유지에 대한 어떠한 일방적인 변화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제1도련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축할 것이다. 그러나 미군은 이 일을 혼자서 할 수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 우리의 동맹국들은 집단 방위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제1도련선도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이 미군에 항만 및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자국의 방위비 지출을 늘리고, 무엇보다도 침략을 억제하는 역량에 투자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는 제1도련선을 따라 해양 안보 문제를 연계하는 동시에 미국과 동맹국들이 대만을 점령하려는 시도나 대만 방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불리한 전력 균형을 달성하려는 시도를 저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관련된 안보적 과제는 경쟁국이 남중국해를 장악할 가능성이다. 이는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상업 항로 중 하나에 통행료를 부과하거나, 더 나아가 마음대로 폐쇄하고 재개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결과 모두 미국 경제와 더 나아가 미국의 국익에 해로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항로를 통행료 없이, 어느 한 국가의 자의적인 폐쇄로부터 보호되도록 필요한 억지력과 함께 강력한 조치를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사력, 특히 해군력에 대한 추가 투자뿐만 아니라,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국가, 즉 인도에서 일본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가와의 강력한 협력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의 국방비 분담 확대 요구를 고려할 때, 우리는 해당 국가들이 국방비를 증액하도록 촉구해야 하며, 특히 적대 세력을 억제하고 제1도련선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역량, 특히 새로운 역량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주둔을 강화하는 한편, 대만 및 호주와의 관계에서도 국방비 증액에 단호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방위산업 기반을 재정비하며, 우리 자신과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의 군사 투자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및 기술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C. 유럽의 위대함 증진

미국 관리들은 유럽의 문제를 군사비 지출 부족과 경제 침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물론 이 점도 사실이지만, 유럽의 진정한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다.

유럽 대륙의 세계 GDP 점유율은 1990년 25%에서 현재 14%로 감소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창의성과 근면성을 저해하는 국가적 및 국제적 규제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침체는 문명 소멸

이라는 현실적이고 암울한 전망에 가려져 있다. 유럽이 직면한 더 큰 문제는 정치적 자유와 주권을 훼손하는 유럽 연합 및 기타 초국가적 기구의 활동, 대륙을 변화시키고 갈등을 야기하는 이민 정책, 표현의 자유 검열과 정치적 반대 세력 탄압, 급격한 출산율 감소, 국가 정체성과 자존감 상실 등이 포함된다.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20년 안에 유럽 대륙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일부 유럽 국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남을 만큼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많은 국가가 현재의 노선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유럽이 유럽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문명적 자긍심을 되찾으며, 실패한 규제 압박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이러한 자신감 부족은 유럽과 러시아의 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유럽 동맹국들은 핵무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면에서 러시아에 비해 상당한 군사력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과 러시아의 관계는 심각하게 악화되었으며, 많은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를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유럽과 러시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 대륙 전반에 걸쳐 전략적 안정을 회복하고 러시아와 유럽 국가들 간의 갈등 위험 완화를 위해 미국의 적극적인 외교적 개입이 필요하다.

미국은 유럽 경제를 안정시키고, 의도치 않은 전쟁 확대나 확전을 방지하며, 러시아와의 전략적 안정을 재확립하고, 전쟁 후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지원하여 국가로서 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핵심적인 이해관계를 두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특히 독일의 대외 의존도를 오히려 높이는 역효과를 낳았다. 오늘날 독일 화학 기업들은 자국에서 구할 수 없는 러시아산 가스를 이용해 중국에 세계 최대 규모의 가공 공장들을 건설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안정한 소수 정부에 기반하여 전쟁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품고 있는 유럽 관리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들 소수 정부 중 상당수는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짓밟고 있다. 대다수 유럽인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이러한 열망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각국 정부가 민주적 프로세스를 왜곡하기 때문이다. 이는 유럽 국가들이 정치적 위기에 갇히면 스스로 개혁할 수 없으므로 미국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유럽은 여전히 미국에 전략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대서양 횡단 무역은 세계 경제와 미국의 번영을 지탱하는 핵심 축 중 하나이다. 제조업, 기술, 에너지 등 유럽의 여러 산업 분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을 자랑한다. 유럽에는 최첨단 과학 연구와 세계적인 문화 기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유럽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이 전략의 목표 달성에 오히려 해가 될 것이다.

미국 외교는 진정한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유럽 국가들의 고유한 특성과 역사를 거리낌 없이 기리는 것을 계속해서 옹호해야 한다. 미국은 유럽의 정치적 동맹국들이 이러한 정신의 부활을 장려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애국적인 유럽 정당들의 영향력 증대는 큰 낙관론을 불러일으킨다.

우리의 목표는 유럽이 현재의 궤도를 바로잡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경쟁하고, 어떤 적대 세력도 유럽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와 협력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유럽이 필요하다.

미국이 유럽 대륙, 특히 영국과 아일랜드에 애착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들 국가의 특성은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안정과 안보를 구축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유능하며 자신감 넘치는 민주적인 동맹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의 위대함을 되찾고자 하는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협력하기를 원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늦어도 수십 년 안에 특정 NATO 회원국들이 다수의 비유럽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들이 NATO 헌장에 서명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세계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나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지는 미지수다.

유럽에 대한 우리의 포괄적인 정책은 다음 사항을 우선시해야 한다.

- 유럽 내 안정 조건 재확립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안정 유지.
- 유럽이 어떤 적대 세력의 지배도 받지 않고, 자체 방위에 대한 주요 책임을 포함하여 동맹을 맺은 주권 국가 집단으로서 자립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 유럽 국가들 내에서 유럽의 현재 방향에 대한 저항 육성.
- 미국 상품과 서비스에 유럽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 보장.
- 상업적 유대, 무기 판매, 정치적 협력, 문화 및 교육 교류를 통해 중부, 동부 및 남부 유럽의 건전한 국가들을 육성.
- NATO가 끊임없이 확장하는 동맹이라는 인식을 종식하고, 그러한 현실을 방지.
- 유럽이 중상주의적 과잉 생산, 기술 절도, 사이버 스파이 행위 및 기타 적대적 경제 관행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

D. 중동: 부담을 나누고 평화 구축

적어도 반세기 동안 미국의 외교정책은 다른 모든 지역보다 중동을 우선시해 왔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중동은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이었고, 초강대국 간 경쟁의 주요 무대였으며, 더 나아가 세계와 미국 본토로까지 확산될 위험이 있는 분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그러한 역학 관계 중 적어도 두 가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에너지 공급원이 크게 다변화

되었고, 미국은 다시 순 에너지 수출국이 되었다. 초강대국 간의 경쟁은 강대국 간의 경쟁 구도로 바뀌었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걸프 지역 및 다른 아랍 파트너와 이스라엘과의 동맹을 성공적으로 재활성화함으로써 가장 부러워할 만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중동에서 가장 골칫거리인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오늘날 해당 문제는 언론 보도에서 보여주는 것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중동의 주요 불안정 요인인 이란은 2023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의 조치와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6월 'Midnight Hammer Operation'으로 인해 크게 약화 되었고, 이 작전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상당히 약화시켰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이루어진 휴전과 인질 석방 덕분에, 보다 영구적인 평화를 향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하마스의 주요 지원 세력은 약화되거나 지원을 중단했다. 시리아는 여전히 잠재적인 문제이지만, 미국, 아랍 국가, 이스라엘, 터키의 지원을 통해 안정을 되찾고 중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제한적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고 미국의 에너지 생산을 확대함에 따라, 미국이 역사적으로 중동에 집중해 온 이유가 점차 약화될 것이다. 오히려 중동은 석유 및 가스 산업을 넘어 원자력, 인공지능, 방위 기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국제 투자의 원천이자 목적지로 부상할 것이다. 또한 중동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공급망 확보부터 아프리카 등 세계 다른 지역의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시장 개발 기회 확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증진할 수 있다.

중동 파트너 국가들은 급진주의와의 싸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정책이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할 추세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이들 국가, 특히 걸프만 군주국들에게 전통과 역사적인 통치 형태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잘못된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개혁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때 이를 장려하고 지지해야 하며, 외부에서 강요해서는 안 된다. 중동과의 성공적인 관계의 핵심은 그 지역과 지도자, 국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공통의 이익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이다.

미국은 걸프 지역의 에너지 공급이 적대 세력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유지하며, 홍해의 항해 가능성을 보장하고, 이 지역이 미국의 이익이나 본토에 대한 테러의 온상이나 수출처가 되지 않도록 하며, 이스라엘의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항상 핵심적인 이해관계를 두고 있다. 우리는 수십 년간의 결실 없는 "국가 건설" 전쟁 없이도 이 위협을 이념적,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아브라함 협정을 이 지역의 더 많은 국가와 이슬람 세계의 다른 국가들로 확대하는 데 분명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동이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장기적인 계획과 일상적인 실행 모두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시대는 다행히 끝났다. 이는 중동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처럼 끊임없는 골칫거리이자 임박한 재앙의 잠재적 원천이 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중동은 협력, 우정과 투자의 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환영하고 장려해야 마땅하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Sharm el-Sheikh에서 아랍 세계를 평화와 관계 정상화를 위해 하나로 모은 것은 미국이 마침내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E. 아프리카

미국은 오랫동안 아프리카에 대한 정책을 자유주의 이념을 제공하고 확산시키는 데에만 집중해 왔다. 이제 미국은 특정 국가들과 협력하여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 관계를 조성하며, 해외 원조 중심의 정책에서 아프리카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투자 및 성장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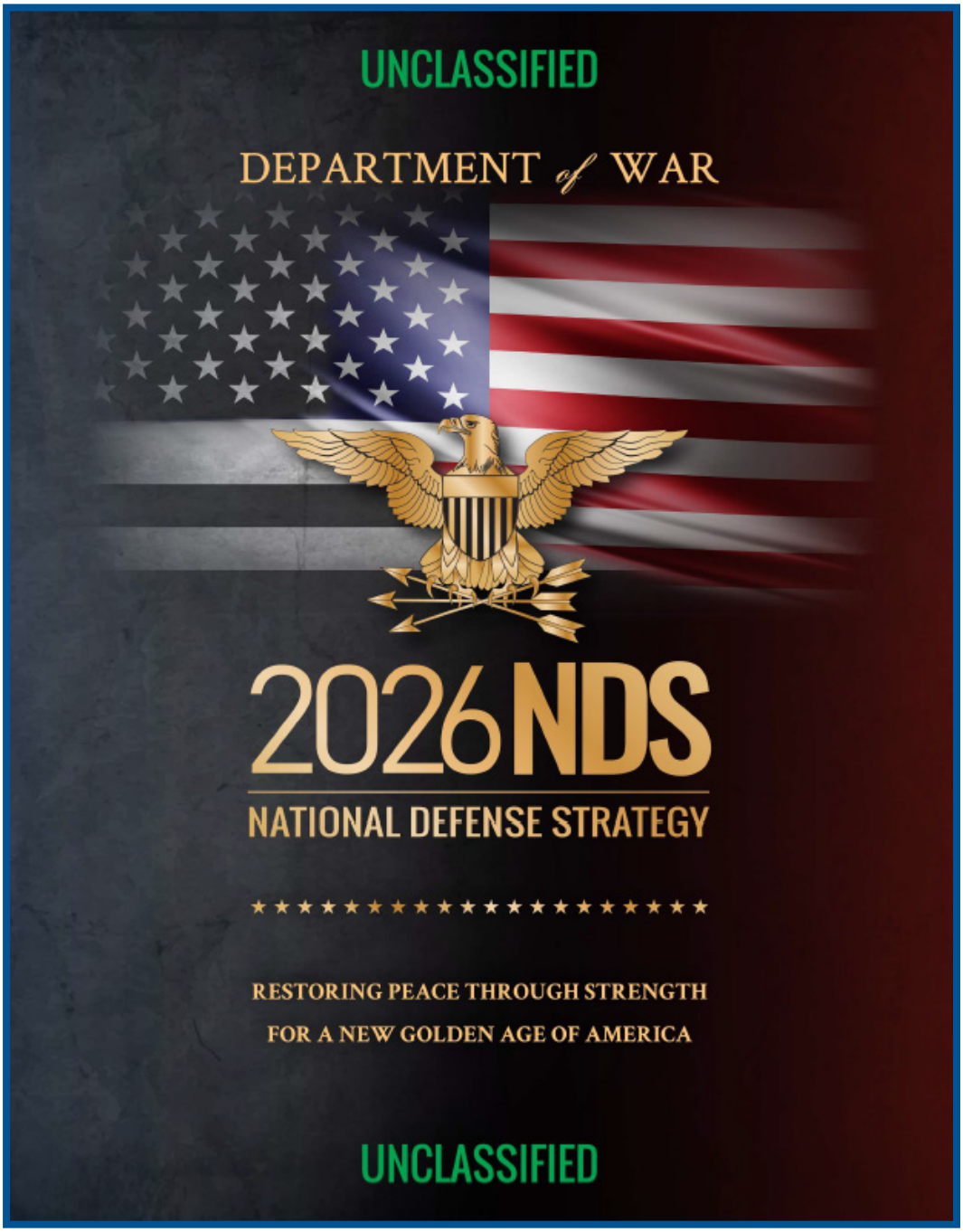
협력 기회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예: 콩고민주공화국-르완다, 수단)에 대한 협상 및 새로운 분쟁(예: 에티오피아-에리트레아-소말리아) 예방, 원조 및 투자에 대한 접근방식 수정(예: 아프리카 성장 및 기회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재발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활동을 경계하는 동시에 미국의 장기적인 주둔이나 개입은 피해야 한다.

미국은 아프리카와의 관계에서 원조 중심에서 무역 및 투자 중심의 관계로 전환해야 하며, 미국 상품과 서비스에 시장을 개방할 의지가 있는 능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우선시해야 한다. 아프리카에서 미국이 즉각적으로 투자하여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로는 에너지 부문과 핵심 광물 개발이 있다. 미국이 지원하는 원자력 에너지,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기술 개발은 미국 기업에 수익을 창출하고 핵심 광물 및 기타 자원 확보 경쟁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DSJ*

U.S. and DoW Document

2. 2026 National Defense Strategy (국가 방위 전략)

번역: **백현봉**



UNCLASSIFIED
SECRETARY OF WAR
1000 DEFENSE PENTAGON
WASHINGTON, DC 20301-1000

JAN 2 3 2026

MEMORANDUM FOR SENIOR PENTAGON LEADERSHIP
COMMANDERS OF THE COMBATANT COMMANDS
DEFENSE AGENCY AND DOW FIELD ACTIVITY DIRECTORS

2026 국가방위전략

미국 정부는 오랫동안 미국 국민과 그들의 구체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을 소홀히 했고, 심지어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전 행정부들은 우리의 군사적 이점과 국민의 생명, 신뢰, 자원을 거창한 국가 건설 사업과 규칙 기반 국제 질서와 같은 허황된 이상을 수호하겠다는 자화자찬적인 공약에 낭비했습니다. 과거 지도자들은 우리 군인들의 투지와 군대의 핵심이자 대체 불가능한 역할, 즉 우리 국민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고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소홀히 했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훼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채 파멸적인 전쟁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미국을 다시 한번 진정으로 위대하게 만드는 용감한 정책을 펼쳐 이러한 상황을 과감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지도력 아래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치명적이며, 가장 유능한 군대, 실제로 이 세상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전쟁부는 더 이상 개입주의, 끝없는 전쟁, 정권 교체, 국가 재건에 매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국민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는 정책을 지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목표로 전쟁을 억제하는 칼과 방패가 될 것이지만, 필요하다면 국가에 필요한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고립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국가가 직면한 위협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집중적이고 진정한 전략적 접근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세계를 냉철하게 바라보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현실주의에 기반하며, 이는 미국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국가 안보 전략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 온 상식적인 접근방식입니다.

미국 우선주의, 힘을 통한 평화, 상식.

이러한 접근방식의 핵심은 우리가 직면한 위협의 규모와 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에 대해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모든 곳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미국의 의무도 아니고 국가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동맹국 지도자들의 무책임한 선택으로 인한 안보 부족을 우리가 대신 메워줄 수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신, 전쟁부는 미국의 적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그리고 가장 위험한 위협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며, 그러한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할 우리의 결의와 능력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도록 요구하고, 그들이 문제를 제기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국민의 생명, 재정, 지원을 책임감 있게 관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조국을 수호하고 서반구에서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결이 아닌 힘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억제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부담 분담을 확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통령이 추진하는 1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미국 산업 부흥 계획의 일환으로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을 재건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단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만이 아니라, 미국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향후 수십년 동안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힘을 통해 평화를 되찾을 것입니다. 2026년 국가방위전략은 그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전략은 국가 방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접근방식을 반영합니다. 이 전략은 철저하고 신속하며 포괄적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전쟁부 산하 기관은 첨부된 지침과 방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DSJ*

목 차

Ⅰ. 서론

Ⅱ. 안보 환경
1. 본토와 반구
2. 중화인민공화국(PRC)
3. 러시아
4. 이란
5. 조선민주주의공화국(북한)
6. 동맹국 부담 분담의 동시성 문제와 시사점

Ⅲ. 전략적 접근
■ 핵심 추진 방향 1: 미국 본토 방어
■ 핵심 추진 방향 2: 대결이 아닌 힘을 통해 인도-태평양 국가와의 부담 분담 확대
■ 핵심 추진 방향 3: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의 부담 분담 확대
■ 핵심 추진 방향 4: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 강화

Ⅳ. 결론

Ⅰ. 서론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그리고 2025년 1월 재취임 이후에도 미군을 세계 최고, 즉 가장 강력한 전투력으로 재건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업적인지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취임 당시 미국 역사상 가장 위험한 안보 환경 중 하나에 직면해 있었다. 미국 국경은 침략당했고, 마약 테러리스트와 기타 적들은 서반구 전역에서 세력을 확장했으며,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 같은 주요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접근권은 점점 더 불확실해졌다. 한편, 유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이 방어 태세를 강화하도록 이끌었던 것과는 달리, 이전 행정부는 동맹국들이 무임 승차하도록 부추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거나 억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10월 7일의 야만적인 공격 이후 스스로 방어할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었고, 이는 이스라엘의 모범적인 동맹국임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전 행정부는 이스라엘을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제약을 가했다. 그 와중에 중국과 그 군사력은 세계 최대이자 가장 역동적인 시장 지역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강력해졌고, 이는 미국인들의 안보, 자유, 번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모든 것은 예정된 것이 아니었다. 미국은 냉전 종식 후 압도적인 차이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부상했다. 우리는 서반구에서 안보를 확보했고, 전쟁 수행에 특화된, 그 어느 나라보다 월등히 우월한 군사력, 협력 동맹, 강력한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냉전 이후 미국의 지도부와 외교정책 담당자들은 어렵게 얻은 이러한 이점들을 잘 관리하고 발전시키기는커녕 낭비해 버렸다.

그들은 미국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는커녕 국경을 개방하고 먼로 독트린의 지혜를 잊었으며, 서반구에서의 영향력을 양보하고 미군이 의존하는 방위산업 기반(DIB)을 포함한 미국의 산업

을 해외로 이전했다. 그들은 미국의 용감한 아들딸들을 방향 없는 전쟁터로 보내 정권을 전복하고 지구 반대편의 국가를 건설하게 함으로써 미군의 준비 태세가 약화되고 현대화를 지연시켰다. 그들은 우리 군인들을 비난하고, 선조들이 한때 기반을 닦고 찬양했던 전사 정신을 폄훼하고 무시하였다. 바로 그 정신 덕분에 미국 군대는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군대가 될 수 있었다. 그들은 교활한 적들이 더욱 강력해지도록 방치하고, 심지어 방조하기까지 했다. 동시에 동맹국들이 파트너가 아닌 의존자로 행동하도록 부추겨 동맹을 약화시키고 우리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2025년 1월, 우리는 여러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지거나 전쟁으로 치닫는 상황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자체가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대규모 전쟁에 휘말릴 위험, 즉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했던 제3차 세계대전에 휘말릴 위험까지 직면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국가 안보 전략(NSS)에 명시된 그의 비전과 방향에 따라, 전쟁부(DoW)는 힘을 통한 평화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NSS에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대통령의 접근방식은 유연하고 실용적인 현실주의에 기반하여, 미국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냉철한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는 전쟁부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도, 이는 미국인의 안보, 자유, 번영에 가장 중요한 임무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전쟁부 노력을 다음과 같은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 미국 본토 수호

우리는 미국의 국경과 해상 접근로를 확보하고, 골든 돔을 통해 미국의 영공을 방어하고 무인 항공 위협 대응하는데 새롭게 집중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에 대한 전략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하고 현대적인 핵 억지력을 유지하고, 막강한 사이버 방어 시스템을 구축 및 유지하며,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과 의도를 가진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을 추적하고 무력화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서반구 전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적극적이고 용감하게 수호할 것이다. 우리는 파나마 운하, 아메리카만, 그린란드 등 주요 지역에 대한 미군과 민간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이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약 테러리스트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사용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캐나다에서부터 중남미 파트너 국가들에 이르기까지 이웃 국가들과 성실하게 협력하겠지만, 그들이 우리의 공동 이익을 존중하고 수호하는 데 각자의 역할을 다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국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증진시키는 집중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먼로 독트린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수정안이며, 미국 군대는 세계가 'ABSOLUTE RESOLVE OPERATION'에서 목격했듯이 신속하고 강력하며 정확하게 이를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 인도 –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대립이 아닌 힘으로 저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안정적인 평화, 공정한 무역, 존중하는 관계를 추구하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시진핑 주석과 직접 대화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협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으며, 전쟁부에 그에 따른 임무를 부여했다. 대통령의 접근방식에 따라, 전쟁부는 중국 인민해방군(PLA)과 더욱 폭넓은 군사 대(vs) 군사 소통을 모색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며, 특히 베이징과의 전략적 안정 지원과 더불어 전반적인 갈등 완화 및 긴장 고조에 중점을 둘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의 역사적인 군사력 증강 속도, 규모, 질적 수준에 대해 냉철하고 현실적인 시각을 유지할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중국을 지배하거나, 압박하거나, 굴욕감을 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목표는 간단하다. 중국을 포함한 그 누구도 우리나 우리 동맹국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즉 NSS 목표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세력 균형을 달성하여 우리가 품위 있는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군사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NSS의 지시에 따라 제1열도선(FIC: First Island Chain)을 따라 강력한 거부 방어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주요 지역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이 공동 방위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고 지원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거부를 통한 억지력을 강화하여 모든 국가가 평화와 자제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최선으로 실현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가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군사적 강점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강하겠지만 불필요하게 대립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힘을 통한 평화'라는 비전을 중요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부담 분담 강화

우리의 전략은 고립주의 전략이 아니다. NSS에서 지시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익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춰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미국 우선주의'와 상식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은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과거 세대의 의존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전쟁부가 국토방위와 중국 억제를 우선시하는 것은 옳지만, 다른 위협들은 계속될 것이며, 동맹국들은 이러한 모든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필수적이다. 동맹국들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역 질서에 대한 열망을 공유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기여는 중국을 억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유럽 및 기타 지역에서 동맹국들은 우리에게는 덜 심각하지만, 그들에게는 더 큰 위협에 맞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미국은 그들에게는 제한적이지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다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과 지체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 자신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것이다. 이는 과거와는 다른 어조와 방식을 요구하지만, 이는 미국인뿐 아니라 우리의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에게도 필요한 조치이다. 너무 오랫동안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은 우리가 그들의 국방비를 보조해 주는 것에 만족해 왔다. 우리의 정치권은 그 공로를 독차지하는 동안 일반 미국인들은 그 비용을 부담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 체제에서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시행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NATO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국방비 지출에 대한 새로운 세계적 기준을 제시했다. 핵심 군사비 지출에 국내총생산(GDP)의 3.5%, 안보 관련 지출에 추가 1.5%를 투입하여 GDP의 총 5%를 배분하는 것이다. 우리는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우리의 동맹국들이 그렇게 한다면, 미국과 함께 전 세계 주요 지역에서 잠재적 적대 세력을 억제하거나 격퇴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다발적인 공격에 직면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 세계에 힘을 통한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방법이다.

• 미국 방위산업 기반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1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미국 산업 부흥을 주도하며, 전략 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고 이전 세대가 해외로 이전했던 산업들을 되살리고 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계획을 활용하여 우리 자신과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방위산업을 재건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무기 생산국으로서의 위상을 되찾아야 하며, 우리 자신뿐 아니라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를 위해 대규모로, 신속하게, 최고 수준의 품질로 무기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미국 방위산업 생산에 재투자하고, 생산 능력을 확대하며, 혁신가들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과 같은 새로운 기술 발전을 도입하고, 합동군이 당면한 우선순위에 필요한 생산 유형과 규모를 가로막는 낡은 정책, 관행, 규제 및 기타 장애물을 제거할 것이다. 우리는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의 생산력을 동시에 활용하여 우리 자신의 수요 충족뿐만 아니라, 그들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가능한 한 빨리 추가 병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방위산업 우위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이 강력하고 공정하며 지속적인 기반 위에서 힘을 통한 평화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전쟁부가 이러한 우선순위에 집중함으로써, 합동군은 미국의 이익에 대한 가장 위험한 위협에 맞서 국가 목표를 달성하고, 필요시에는 이를 억제할 준비가 되어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동시에, 이 전략은 합동군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른 목표, 특히 미 본토를 포함한 어디에서든 목표물에 대한 결정

적인 작전을 개시할 수 있는 능력과 작전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는 미군 장병들이 MIDNIGHT HAMMER Operation에서 인상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 합동군이 최강의 역량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우리는 대통령이 미군을 운용하는 데 있어 최대한의 선택권을 보장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이고 필요한 변화에 발맞춰, 이 전략의 핵심 논리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미국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직면한 위협과, 이러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우리와 동맹국이 보유한 자원을 냉철하게 파악해야 한다. 미국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이익에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이 어디에 있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또한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 미국 국민을 위한 호의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더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이는 접근방식, 초점, 어조에 있어 급격한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재앙으로 향하던 과거의 노선에서 벗어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변화이다. 또한 이는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며, 다시 말해 미국 국민뿐 아니라 동맹국과 파트너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유토피아적 이상주의는 버리고, 냉철한 현실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전쟁부가 담대하고 적극적이며 주저함 없이 받아들여야 할 사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새로운 황금기로 이끌고 있다. 그는 평화 회복에 대해 자주 언급하지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강대국, 특히 군사력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직 전쟁부만이 국가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우리는 주저 없이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의 검이자 방패가 되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 단호하게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강대국이 추구하는 지속적인 평화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헌신할 것이다. 이 국가방위전략(NDS)은 바로 그 방법을 보여준다.

Ⅱ. 안보 환경

NSS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미국 우선주의 전략의 핵심은 평가, 분류, 우선순위 설정이다. 또한 현실적인 방식으로 목표, 방법, 수단을 실질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에 따라, 이 전략은 미국인들이 직면한 위협을 명확히 이해하고,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위협에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전략은 과거 냉전 이후 행정부들이 내세웠던 거창한 전략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과거 전략들은 미국인들의 실질적인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초점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 전략은 미국인들의 이익을 세계 다른 나라들의 이익과 혼동하지 않았다. 즉,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 대한 위협을 미국

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또한 무력을 통해 우리의 생활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도 않았다.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미국인들의 안보, 자유, 번영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위협에 실질적인 방식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면서도 본토에 대한 위협처럼 다른 위협보다 더 직접적이고 절박한 위협이 있음을 인식한다. 그러나 세계 최대 시장 지역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접근권 유지와 같이 다소 멀게 느껴지는 위협조차도 국가의 핵심 이익에 매우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한다.

NSS 지침에 따라, 이 전략은 모든 위협이 동일한 심각성, 중대성 및 결과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도가 낮아 보이는 위협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중요하며 무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본 전략은 국가 안보, 자유 및 번영에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위협에 우선순위를 두는 동시에, 국가와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이 다른 위협에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를 통해 본 전략은 대통령의 남은 임기뿐 아니라 앞으로 오랫동안 힘을 통한 평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1. 본토와 반구(Homeland & Hemisphere)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외교정책 담당자들은 국가 안보를 소홀히 해 왔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해당 방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 때문이었지만,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이 국경 통제를 완화하고 불법 이민과 통제되지 않은 불공정한 상품 유통을 조장하려는 욕구가 커진 것도 한몫했다.

참담한 결과는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말해준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불법 이민자들의 홍수에 시달려 왔다. 동시에 마약이 국경을 넘어 쏟아져 들어와 수십만 명의 미국인을 중독시켰다. 이 지역의 마약 밀매업자들은 이러한 악행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그 결과 외국 테러 조직(FTO)으로 지정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SOUTHERN SPEAR Operation'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테러리스트들이 치명적인 마약을 미국으로 밀반입하는 것을 막는 데 매우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대통령은 또한 마약 테러리스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데에도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니콜라스 마두로는 미국인들을 독살해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ABSOLUTE RESOLVE Operation'은 그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고, 모든 마약 테러리스트들은 이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핵 위협뿐 아니라 다양한 재래식 공격 및 우주, 사이버, 전자기 전 능력이 포함된다. 동시에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알카에다와 ISIS 같은 이슬람 테러 조직을 크게 약화시켰지만, 이러한 세력은 계속해서 적응하며 심

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미국의 이익은 서반구 전역에서 위협받고 있다. 이미 19세기 초, 우리 선조들은 미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서반구 문제에서 더욱 강력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다. 이러한 통찰력이 먼로 독트린과 그 후속 조치인 루즈벨트 수정안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접근방식의 타당성을 간과했고, 지배적인 지위가 약화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연하게 여겼다. 그 결과, 북극의 그린란드에서부터 아메리카만, 파나마 운하, 그리고 더 남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적대 세력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는 서반구 전역의 주요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접근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의 안정과 안보를 저해하여 미국과 역내 파트너 국가들의 이익을 모두 약화시킨다.

2. 중화인민공화국 (PRC: People's Republic of China)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중국은 이미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국가이며, 19세기 이후 우리와 비교했을 때 가장 강력한 국가이다. 중국은 심각한 국내 경제, 인구,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국력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베이징은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정책 우선순위를 희생하면서까지 인민해방군(PLA) 에게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원한다면 군사비에 더 많은 돈을 쓸 여력이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서태평양 작전을 위한 전력은 물론 훨씬 더 먼 거리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전력까지 포함하여, 중국의 역사적인 군사력 증강 속도, 규모, 질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말해준다.

이는 미국의 국익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NSS에서도 인정하듯이, 인도-태평양 지역은 머지않아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국민의 안보, 자유, 번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무역 및 외교 활동이 얼마나 강력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직결된다. 만약 중국, 혹은 그 어느 나라든 이 광범위하고 중요한 지역을 장악하게 된다면, 미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진출하는 것을 사실상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미국의 경제 전망, 특히 재산업화 능력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NSS에서 전쟁부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유리한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는 중국을 지배하거나, 굴욕감을 주거나, 압박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목표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합리적이다. 단순히 중국을 비롯한 그 어떤 나라도 미국이나 우리의 동맹국을 지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정권 교체나 그 밖의 실존적 투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미국에 유리하면서도 중국이 수용하고 공존할 수 있는 적절한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과의 외교에서 제시하는 비전 있고 현실적인 접근방식의 현명한 전제이다. 동시에, 전쟁부 노력은 이러한 접근방식에 강력한 기반을 제공한다.

3. 러시아(Russia)

러시아는 당분간 NATO 동부 회원국에게 지속적이지만 관리 가능한 위협으로 남을 것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다양한 인구 및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쟁은 러시아가 여전히 막대한 군사력과 산업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러시아는 인접국에서 장기전을 지속할 수 있는 국가적 결의를 보여주었다. 게다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은 주로 동유럽에 집중되어 있지만, 러시아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현대화하고 다양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해저, 우주 및 사이버 역량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쟁부에서는 미국 본토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군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할 것이다. 또한 전쟁부에서는 NATO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동시에, 미국의 이익과 동맹국의 역량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을 더욱 효과적으로 고려하여 유럽 전역에서의 미군 배치 및 활동을 조정할 것이다. 모스크바는 유럽 패권을 노릴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 유럽 NATO는 경제 규모, 인구, 잠재적 군사력 면에서 러시아를 압도한다. 동시에 유럽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유럽에서 계속 활동할 것이지만, 미국 본토를 방어하고 중국을 억제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그렇게 할 것이다.

미국을 제외한 NATO 회원국들의 경제력은 러시아를 훨씬 능가

다행히도 우리 NATO 동맹국들은 러시아보다 훨씬 강력하다.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이다. 독일 경제 규모만 해도 러시아를 압도한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NATO 동맹국들은 국방비를 GDP의 5%라는 새로운 세계적 기준으로 증액하기로 약속했으며, 이 중 3.5%는 군사력 증강에 투자하기로 했다. 따라서 우리 NATO 동맹국들은 미국의 핵심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유럽의 재래식 방어를 주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방어 지원에 앞장서는 것도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반드시 끝나야 하지만 그가 강조했듯이, 이는 무엇보다도 유럽의 책임이다. 따라서 평화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NATO 동맹국들의 리더십과 헌신이 필요하다.

4. 이란(Iran)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그리고 MIDNIGHT HAMMER Operation'을 통해 그는 자신의 약속을 단호하게 이행했음을 보여주었다. 전 세계 어느 군대도 'MIDNIGHT HAMMER Operation'만큼 규모와 복잡성, 중대한 결과를 수반하는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군은 이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파괴했다. 또한 미군은 12일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방어에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작전 및 전략적 승리를 가능하게 했다. 이제 이란 정권은 수십 년 만에 가장 약화되고 취약한 상태에 놓였다.

이란의 "저항의 축" 역시 마찬가지로 큰 타격을 입었다. 이스라엘의 작전으로 헤즈볼라와 하마스는 심각한 전력 약화를 겪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은 후티 반군의 공격 능력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후티 반군이 평화 협상을 요청하고 미군 함정에 대한 발포를 중단하도록 만든 'ROUGH RIDER Operation'을 개시했다. 이 짧고 강렬하며 결정적인 작전을 통해 대통령은 미군 함정의 항행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었다.

이란은 최근 몇 달 동안 심각한 타격을 겪었지만, 재래식 군사력을 재건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란 지도부는 의미 있는 협상을 거부하는 등 핵무기 획득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더욱이, 이란의 대리 세력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파괴된 기반 시설과 역량을 재건하려 할 수도 있다. 또한, 이란 정권이 미국인들의 피를 손에 묻혔다는 사실, 우리의 가까운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여전히 갖고 있다는 사실,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이 이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 장병들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많은 지도자와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가로막는 지역 위기를 일상적으로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중요한 기회들도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핵심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만으로도 스스로 방어할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오랫동안 입증해 왔다. 이스라엘은 모범적인 동맹국이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 확보를 위한 역사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자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기회를 맞이했다. 마찬가지로 걸프 지역에서도 미국의 파트너 국가들은 이란과 그 대리 세력에 맞서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 다양한 미국 군사 시스템을 획득하고 배치하는 등 점점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우리가 각 파트너 국가들이 자국의 방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준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역내 파트너 국가들 간의 통합을 촉진하여 그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5.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북한)

북한은 미국의 조약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은 상당 부분 노후화되었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지만, 한국은 북한의 침공 위협에 대비하여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재래식 무기, 핵무기, 기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동시에 북한의 핵전력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력은 규모와 기술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이라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을 제기한다.

6. 동맹국 부담 분담의 동시성 문제와 시사점

미국과 동맹국들이 하나 이상의 잠재적 적대국이 여러 전선에서 조직적으로 또는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만약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최근 수십 년 동안 국방에 충분한 투자를 해왔다면 이러한 시나리오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극히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들은 미국이 자신들을 방어해 주는 것에 만족하면서 국방비를 삭감하고 그 대신 공공복지나 다른 국내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 물론 그들만의 잘못은 아니다. 각국의 국방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 것은 분명 그들 자신의 결정이었다. 하지만 이는 과거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부추긴 결정이기도 했다. 그들은 미국이 파트너보다는 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동맹국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고 경솔하게 믿었던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NATO 동맹국들로부터 역사적인 국방비 지출 약속을 확보한 후 헤이그 NATO 정상회담에서 연설하고 있다.

다행히도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이, 우리의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은 공동 방위의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 이는 미국이 수십 년간 그들의 국방비를 지원해 온 것을 고려할 때 당연한 일이다. 또한 전략적 관점에서도 우리와 그들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2025년 1월 이후, 특히 유럽과 한국을 중심으로 동맹국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전쟁부가 합동군 증강을 우선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국방비 증액을 주장하는 동시에, 부담 분담이 이 전략의 필수적인 요소인 이유이다.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은 유라시아를 둘러싼 방어선을 형성한다. 이러한 관계는 유리한 지리적 위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의 동맹 네트워크는 잠재적 적대국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부유하다. 따라서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정립된 새로운 국제적 기준에 따라 국방에 적절히 투자한다면, 우리는 잠재적 적들이 동시에 행동하더라도 이를 억제하는 데 충분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NSS 지시에 따라 세계 주요 지역 각각에서 유리한 세력 균형을 유지할 것이다. 미군이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는 동안, 다른 지역의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은 미군의 핵심적이며 제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자국의 방어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질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수십 년 동안 힘을 통한 평화를 유지하고 냉전 종식 이후 어느 때보다 강력한 동맹 및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Ⅲ. 전략적 접근

전쟁부의 전략적 접근은 다음과 같은 핵심 추진 방향(LOE)에 기반한다.

1. 미국 본토 방어
2. 대결이 아닌 힘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억제
3.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의 부담 분담 확대
4.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 강화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각 핵심 추진 방향(LOE)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 지침 및 방향을 제공한다.

▶핵심 추진 방향 1: 미국 본토 방어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미군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부에서는 서반구 전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포함하여 바로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다음과 같다.

• 국경을 안전하게 지킴

국경 안보는 국가 안보이다. 따라서 전쟁부에서는 국토안보부(DHS)와 협력하여 국경을 봉쇄하고, 모든 형태의 침입을 저지하며,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데 최우선 과제를 둘 것이다.

• 서반구 마약 테러리스트 소탕

전쟁부는 미국의 국경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주 지역 깊숙한 곳에서 발생하는 국경 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주 전역에서 마약 테러 조직을 약화시킬 수 있는 파트너 국가들의 역량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그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독자적으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역량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파트너 국가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없거나 다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합동군이 'ABSOLUTE RESOLVE Operation'에서 보여준 것처럼 독자적으로 단호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먼로 독트린에 대한 트럼프 수정안

수년간 방치 끝에, 미국 전쟁부는 서반구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회복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본토를 보호하고 이 지역 전역의 주요 지형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할 것이다. 또한 적들이 우리 반구에 병력을 배치하거나 위협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을 차단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먼로 독트린에 대한 트럼프식 수정안이다. 이는 미국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서반구에서 미국의 힘과 특권의 회복하는 상식적이고 강력한 조치이다.

• 서반구의 핵심 지역을 확보

NSS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미국은 더 이상 서반구의 핵심 지역에 대한 접근권이나 영향력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전쟁부에서는 북극에서 남미에 이르는 핵심 지역, 특히 그린란드, 아메리카만, 파나마 운하에 대한 미군과 민간인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방안을 대통령에게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먼로 독트린이 수호되도록 할 것이다.

•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위한 Golden Dome' 계획 및 기타 드론 대응 조치를 통해 미국의 영공 방어

전쟁부는 대규모 미사일 공격 및 기타 첨단 공중 공격을 비용 효율적으로 격퇴할 수 있는 방안에 특히 중점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위한 Golden Dome' 계획 개발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또한, 전쟁부에서는 무인 항공 시스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시스템을 개발 및 배치할 것이다. 아울러, 미군이 본토 방어에 필요한 전자기 스펙트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 미국 핵전력의 현대화 및 적응

미국은 국가의 전반적인 전략과 국방 전략에 부합하는 강력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핵무기 무기고(arsenal)를 요구한다. 우리는 변화하는 세계 핵 환경 속에서 억지력과 고도화 관리에 중점을 두고 이에 맞춰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적응시켜 나갈 것이다. 미국은 결코 핵 위협에 취약한 상태로 남겨져서는 안 되며,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 사이버 위협 억제 및 방어

전쟁부는 미군 및 특정 민간 목표물에 대한 사이버 방어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또한, 전쟁부에서는 미국 본토에 대한 사이버 위협을 억제하거나 저하시키기 위한 다른 방안들도 개발할 것이다.

• 이슬람 테러리스트 대응

전쟁부에서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과 의도를 가진 조직에 초점을 맞춰, 이슬람 테러리스트 대응에 있어 지속 가능한 접근방식을 유지할 것이다.

▶핵심 추진 방향 2: 대결이 아닌 힘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억제

전쟁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더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중국 인민해방군(PLA)과 소

통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전략적 안정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갈등 완화와 긴장 고조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이 이루어지고, 모두가 번영하며, 우리의 이익이 존중받는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전쟁부에서는 이러한 소통을 통해 중국 당국에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과 의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달성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진심 어린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부에 부여한 가장 중요한 지침, 즉 '힘을 통한 평화'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이를 인식하고, 전쟁부의 핵심 책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강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NSS 지시에 따라, 우리는 인도-태평양 연안을 따라 강력한 거부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태세를 갖추고, 유지할 것이다. 또한, 역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 방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것이며, 특히 효과적인 거부 방어와 관련된 분야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미국의 이익에 대한 어떠한 공격 시도도 실패할 것이며, 따라서 애초에 시도할 가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거부를 통한 억지력의 핵심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쟁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갖고 현실적인 외교에 필요한 군사력을 제공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의 세력 균형을 조성하고, 미국, 중국, 역내 모든 국가가 품위 있는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동시에, 인도-태평양 연안(FIC)을 따라 강력한 거부 방어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전쟁부에서는 합동군이 미국 본토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목표물에 대해 파괴적인 타격과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항상 확보하도록 보장함으로써 대통령에게 최고의 작전 유연성과 민첩성을 제공할 것이다.

▶핵심 추진 방향 3: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의 부담 분담 확대

NSS에 명시된 대통령의 접근방식과 일관되게, 이 전략은 미국의 이익에 대한 가장 큰 위협에 대처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그러나 다른 위협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접근방식을 기반으로, 이 전략은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이 다른 위협들에 대한 방어 책임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신중하고 현명하게 압력을 가하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때 미국은 필수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 힘을 통한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전쟁부는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유럽, 중동, 한반도에서 자국 방어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도록 장려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며, 미

군의 지원은 필수적이지만 제한적일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병력 및 작전 계획에 대한 긴밀한 협력과 주요 임무 수행을 위한 군의 준비 태세 강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포함하여,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공동 방위의 부담을 더 많이 분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것처럼, 책임 소재는 명확해야 한다. 인센티브는 효과가 있으며, 동맹 정책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범적인 동맹국, 즉 필요한 만큼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미국의 제한적이지만 필수적인 지원을 받는 지역 내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가들과의 협력 및 관계 강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이러한 지원에는 무기 판매, 방산 산업 협력, 정보 공유 및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기타 활동들이 포함된다.

실질적으로 전쟁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것이다.

• 서반구

캐나다와 멕시코는 전쟁부 및 기타 미국 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이민자와 마약 테러리스트의 미국 국경 접근을 막는 등 서반구 방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캐나다는 또한 공중, 미사일, 해저 위협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하는 등 북미를 다른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더불어 서반구 전역의 미국 파트너 국가들은 불법 이민 문제 해결, 마약 테러리스트 세력 약화, 미국의 적대 세력이 그린란드, 아메리카만, 파나마 운하 등 주요 지역을 장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미국 전쟁부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서반구 전역의 국가들과 협력하고, 각국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것이다.

• 유럽

NSS에서 명확히 밝혔듯이, 유럽이 직면한 안보 위협에 대한 해답은 유럽이 자체적인 재래식 방어에 대한 주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부는 NATO 동맹국들이 유럽의 재래식 방어에 대한 주도적인 책임을 지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것이며, 미국은 필요에 따라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핵심으로, 전쟁부는 동맹국들이 헤이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국방비 지출을 이행하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또한 해당 목표 지원을 위해 NATO의 여러 프로세스를 활용하는 한편, 대서양 양안 방위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방위산업 무역 장벽을 완화하여 미국과 동맹국의 방위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공동의 역량을 극대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럽 동맹국들이 그들의 노력과 자원을 유럽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유럽이야말로 우리의 공동 방위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 중동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인 리야드 연설에서 밝혔듯이, 미국은 더욱 평화롭고 번영하는 중동을 추구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이, 이러한 변화는 오직 이 지역의 미래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 즉 이 지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손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의 임무는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고 끊임없는 외교를 통해 다져놓은 견고한 토대 위에 그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쟁부에서는 이 지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이란과 그 대리 세력에 대한 억제 및 방어에 주도적인 책임을 지도록 지원할 것이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자위 노력을 강력히 지원하고, 아라비아만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구상인 아브라함 협정을 기반으로 이스라엘과 아라비아만 파트너 간의 통합을 촉진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와 동시에 전쟁부에서는 미국 이익 보호를 위해 집중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통해 우리는 이 지역에서 힘을 통한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조건을 조성하고 강화할 수 있다.

• 아프리카

전쟁부의 아프리카 지역 최우선 과제는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역내 안전지대를 이용하여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 전략의 지속가능한 대테러 접근방식에 따라, 우리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과 의도를 가진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에 대해 관련 부처 및 해외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동시에,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들이 다른 테러 조직들을 약화시키고 파괴하는 노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은 중동을 포함한 세계를
더욱 평화롭고 번영하는 곳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 한반도

높은 국방비 지출, 탄탄한 방위산업, 의무 징병제를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한국은 미국의 핵심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북한을 억제하는 데 주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를 실천할 의지가 있다. 이러한 책임 균형의 변화는 한반도에서의 미군 전력 태세를 현대화하려는 미국의 이익과 일치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에 더욱 부합하는 더욱 강력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동맹 관계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핵심 추진 방향 4: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DIB) 강화

미국의 DIB는 우리 군대를 재건하고 적응시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와 협력하여 1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미국 산업의 부흥과 국가 방위에 대한 세대적 투자를 실현하고 이끄는 데 성공했으며, 우리는 이러한 소중한 자원을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한다. 이는 미군이 이 전략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무기, 장비, 수송 및 보급 능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이 공동 방위의 부담을 더 많이 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작은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방어 노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DIB는 이 전략의 다른 핵심 기둥들을 뒷받침한다. 우리는 DIB를 동원, 갱신, 확보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할 것이며, 미국 방위산업을 강화하여 지난 세기처럼 우리 시대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 전투력은 핵심 탄약, 시스템 및 플랫폼 생산, 공급 및 지속 유지를 위해 DIB에 의존한다. 우리의 준비 태세, 살상력, 사거리 및 생존력, 궁극적으로 우리가 제공하는 군사적 선택권은 우리에게 전쟁 우위를 제공하는 장비와 물자를 안전하게 개발, 배치, 지속 유지, 재보급 및 운송하는 DIB의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체적인 지속 유지 역량을 강화하고, 비전통적인 공급업체를 육성하며, 기존 DIB 공급업체, 의회, 동맹국 및 파트너, 다른 연방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우리 위대한 국가의 비할 데 없는 창의력과 독창성을 되살리고, 혁신 정신에 불을 지피고, 산업 역량을 복원할 것이다. DIB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명확한 비전, 견고한 관계, 우리 군사력의 궁극적인 기반을 재건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NSS에서 분명히 밝히듯이, 이러한 노력은 국가적 총력전, 즉 지난 세기에 미국이 세계 대전과 그 뒤를 이은 냉전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유사한 산업 부흥 운동과 같은 수준의 산업적 무기 동원을 요구할 것이다.

Ⅳ. 결론

불과 1년 전, 세계 대전의 위기에서 미국을 구해낸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상식적이고 실용적이며 구체적인 방식으로 미국인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새로운 황금시대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리석고 허황된 해외 모험에 미국인들의 의지와 자원, 심지어 생명까지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후퇴하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유연한 현실주의적 접근방식을 통해 미국인들의 구체적인 이익을 주저 없이 우선시할 것이다. 우리는 전사 정신을 되살리고, 미군이 국가의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는 핵심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목표에 다시 집중하도록 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J.D. 밴스 부통령,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 있는
무명용사의 묘에서 열린 현충일 헌화식에서 경의를 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듯이, 우리의 목적은 침략이나 영구적인 전쟁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목표는 평화이다. 평화는 최고의 선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안보, 자유, 번영을 희생시키는 평화가 아니다. 미국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고귀하고 자랑스러운 평화이다. 다행히도, 이러한 평화는 우리의 잠재적 적대국들이 합리적이고 제한적인 요구를 한다면 그들의 이익과도 양립이 가능하다. 우리는 그들의 굴욕이나 굴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들이 우리의 합리적인 이익과 우리와 굳건히 함께하는 동맹국 및 파트너들의 이익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할 뿐이다. 모두가 이 점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세력 균형과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쟁부는 우리의 정중한 제안이 거부당하더라도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는 품위 있는 평화를 바라는 것과 평화를 실제로 이루어내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잠재적 적들이 우리의 평화적 제안을 어리석게도 거부하고 전쟁을 선택한다면, 미군은 미국인들에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국가의 전쟁에서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이 전략은 우리가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인의 이익에 가장 중대하고 심각한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다. 우리는 직면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 네트워크를 재정비할 것이다. 우리는 항상 가장 날카롭고 강력한 무기를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화해의 손길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다. *DSJ*

U.S. and DoW Document

3. FY26 NDAA(국방수권법)

번역: **백현봉**

슬라이드 출처: 삼정 KPMG-미국 국방수권법 시행, 방위·바이오·전략 산업 벨류체인 영향과 대응(11, 12, 19, 21번 슬라이드)

미국 2026 국방수권법 개요

회계연도 2026(2025.10~2026.09) 미국 국방수권법은 2025년 12월 18일 트럼프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되었으며, 약 9,01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승인. 이는 사상 최대 규모 예산으로, 미국은 이을 토대로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는 데 사용할 예정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이란?

국방수권법

- 미국 의회가 매년 제정하는 국가방위예산 허가법으로 가장 광범위한 연례 '국방정책법'
- 국가 안보 전반 정책 방향 및 내용을 각 해당 부서에 요구하며 예산 배정 규모를 명시

1 법률 포괄 범위

- 미국 국방정책 전반 포괄(국방부뿐 아니라 에너지부 등에 있는 방위 관련 프로그램 예산 모두 포함)하여 규정
- 국방부의 예산 승인, 군 인력 운용, 군입 급여, 무기 및 장비 조달, 군사 훈련과 전략 수립 등

2 법률 시행의 의미

- ① 국방 관련 예산 승인
  - 미국 연방헌법은 조세 징수 권한을 연방의회에 부여, 의회는 예산 내역을 정한 뒤 법률적 효력 부여, 집행권한은 정부에 맡기는 데 이를 수권법이라고 하며, 본 법률은 국방 예산을 처리하기 때문에 국방수권법으로 명명
- ② 기업·국가 간 제재 조치의 법적 근거 제공
  - 특정 국가의 핵무기 개발제제 등의 조치, 제재 조치에 우방국을 참여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도 해당 법에 근거

2026 국방수권법(NDAA) 개요

미국 2026 국방수권법은 2025.12.18 트럼프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

- 주요 마일스톤
  - 2025년 4월 트럼프 정부가 8,920억 달러 규모 요청안 제시
  - 2025년 5~12월 상원 및 하원의 합의 진행 및 통합안 도출
  - 2025년 12월 10일 NDAA 최종안 하원 통과(찬성 312표, 반대 112표)
  - 2025년 12월 17일 NDAA 최종안 상원 본회의 통과(찬성 77표, 반대 20표)
  - 2025년 12월 18일 트럼프 대통령 서명 및 발효

2026 국방수권법, 9,010억 달러 규모로 사상 최대 예산

- 2025년 예산이었던 8,952억 달러 대비 4% 이상 증액
  -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수권법 예산을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정책 기조를 실현하는 데 사용할 예정
- 미국 국방 관련 예산 사용 주요 분야는 구체적으로 3가지
  - ① 미국 군사력 재편 및 강화
  - ② 첨단 기술혁신(AI(인공지능), 우주, 사이버 보안) 가속화
  - ③ 중국 견제 및 동맹 기반 방위 협력 확대

미국 2026 국방수권법 구성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8개의 Division(A~H) 하위에 국방, 외교, 정보 및 방첩 등 특정 분야를 다루는 Title(절) 및 실질적인 법적 효력을 가진 Section(조항)으로 구성된 가운데,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로 Division A·C·F·H 분석 필요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의 Division별 주요 내용

Division 구분		주요 분야	주요 내용
A	Department of Defense Authorizations	국방 전반	• 육해공군 및 통합 군의 무기체계 조달 관련 규정 및 예산 명시, 안보 전략 자산으로서 바이오 산업을 관리하고자 바이오 관련 공급망 요건 적시, 광학 및 디스플레이·배터리 분야에서 중국산 차단 전략 강화, 조달 프로세스 가속화 등
B	Military Construction Authorizations	국방 시설 건설 특화	• 미 본토 및 해외 기지의 군사 시설 건설과 가족 주택 예산에 관한 내용
C	Department of Energy National Security Authorizations and Other Authorizations	방위 산업 관련 에너지	• 핵 시설 및 자산을 무인체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법제화, 에너지부 산하 핵안보청에 대해 국방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타 거래 권한을 도입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등
D	Funding Tables	예산 데이터	• 국방수권법에서 승인된 모든 국방 활동의 항목별 예산 데이터 명시하여 제공
E	Department of Stat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6	외교 및 안보	•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의 외교 정책 기조와 동맹국에 대한 안보 지원 및 무기 수출 승인 절차 규정. 미국의 동맹국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교적 토대 및 법적 근거 마련
F	Intelligenc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6	정보 및 방첩	• 국가 기밀과 첨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법제화, 특히 AI(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전략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한 방첩활동과 적대국에 대한 정보 수집 역량 강화 방안 도출
G	Coast Guard Authorization Act of 2025	해상 안보와 물류	• 미국 해안경비대(USCG)의 예산과 함정 건조 계획을 주로 다루며 해상 치안 및 북극권 안보 논의 명시
H	Other Matters	경제 안보 및 기타	• 국방생산법 연장, 대외 투자 제한 등 국방과 관련된 경제 안보 이슈 논의, 더불어 안티 드론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도 제정하여 군사시설 뿐 아니라 주요 인프라에 대해서도 드론 공격에 대비하는 체제를 마련할 수 있는 토대 마련

핵심 산업 – ① 한국 방위 산업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에 기반한 무기체계 공동 개발부터 상호운용을 위한 표준화·적대국(중국)의 원료 조달 배제 및 관련 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 금지·무기체계 생산 규정 변화·군수물자와 데이터 흐름 측면 무결성 보장 등의 조항에 의거, 한국 방위 산업은 무기 설계부터 원료 조달 및 공급망 관리, 제조 시 미국 표준 반영 및 생산 포트폴리오 조정, 유지·정비·보수 비중 확대 등에 영향 존재

국방수권법 방위 산업 관련 주요 내용

- 골든 돔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 전자전을 대규모 합동 훈련에 통합 필수
-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
  - 동맹국과 무기체계 설계 공동 개발·생산·상호운용·표준화
- 미국 육군 조달 시 중국산 원료 포함 탄약·추진제 배제
- 중국 군사 기업의 우회 통로를 통한 미국 시장 진입 금지
- 탄약 제조 공정 사설 내 자동화 기술 도입
- 유도무기를 탄약과 분리해 별도 관리
- 인도–태평양 사령부 다국적 훈련에 창정비 통합 및 한국 참여
- 분쟁 시 군수물자 수송을 위한 취약점 식별 및 통합 관리
- 민간 기술, 국방 분야 진입 장벽 제거 및 평가 방식 변화
- 적격 소재, 적격 공급원 시별 및 자격 부여 가속화
- 국방 조달 체계 목적 재정의
  - 현장 병사 참여, 디지털 엔지니어링 등
- 전술적 전파 침투 및 통신 보안 기술 달성

한국 방위 산업 밸류체인 단계별 주요 영향

R&D·설계	• 미국 차세대 아키텍처와 호환 시스템 설계 필요 • 보안 통신이나 항재밍(Anti-Jamming) 기술 고도화	• 무기 공동 개발 조항에 기반한 무기 설계 필수 • 무기 설계 시 중국 포함 적대국 원료 배제 설계
조달·소싱	• 한국 제품 원료에 대한 추적 필수 • 한국 제품 원료 또는 동맹국 기반 원료 조달로 미국 공급망 화이트리스트 진입 노력 필요	• 한국 공급망–중국 군사 기업과 연관성 모니터링 필수
제조·구현	• 미국이 탄약 제조 자동화 표준을 만들 경우, 한국 기업의 수출 및 협력 시 생산 규정 영향 • 한국 공장의 미군 무기 생산 거점화 가능	• 유도무기–탄약 분리 시 가성비 및 생산 속도에 강점이 있는 한국산 유도무기 수요 증가 가능성
운송·전송	• 운송 플랫폼, 원격 제어 기술, 자율주행 등 안전한 수송 전략에 대한 미국 수요에 대응 • 적의 전자 공격 시 데이터 무결성 유지 필수	• 합동 화력 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무기체계 개발 필요
사용·가동	• 미국 방산 장비 수리(MRO) 시장에 한국이 공식 파트너로 관여도 증가 기대	• 민간 실적 인정 및 현장 가동 성능이 검증 대상이 됨에 따라 한국의 비전통적 방산 기업·스타트업의 미국 시장 진출 경로 확대
관리·피드백	• 미국과 동맹국의 무기 공동 운영으로 데이터 공유는 필수로 변화해 무기체계 내 디지털 표준 준수 필요	• 한국 방위 기업의 미국 국방 공급망 진출 가속화 • 국방 조달 체계 변화는 한국 방위 기업 운영 및 관리 기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

전략 산업 – ③ 한국 방산 인프라 및 MRO 섹터

방산 인프라 및 MRO 섹터(조선, 항공, 해운, 항만·창고, 원자력)에 영향을 미치는 국방수권법 조항을 분석 시, 물리적·디지털 MRO 시장 활성화, 분쟁 시 미군 장비 부품을 현지에서 조달하는 체계 마련, 함정 및 전투기 MRO 진행 시 프로세스 개선 기반 공기 단축과 공정 최적화 달성, 특수 해운 물류 시장이나 미군 자산 대행 관리 시장 등 신시장 발굴 등의 영향 예상

국방수권법 방산 인프라·MRO 관련 주요 내용

- 분쟁 환경 하의 물류 통합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책임자 지정 및 관련 전략(해외 물자 배치, 인프라 부족 식별 등) 수립
  - 미국 본토 외 전역(한국 포함) 내 해상 능력 확보 및 유사 시 무기 및 장비를 해당 지역 내 즉각 수송·수리 강조
  - 비축 물자, 창고, 수송 수단, 민간에 외주를 주는 물류 서비스 계약 관련 전쟁·분쟁 시 미군 활용
- 해군 수상함(비핵추진 수상함) 정비 프로세스 개선
  - 함대 사령관의 민간 조선소(한국 포함) 감독권 명시, 지역 유지보수 센터(한국 포함)의 역할 명확화
- 해군 조선소 인프라 최적화 프로그램에 디지털 인프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통합 의무화 명시
- F-35[1]가 전쟁 시 외부 지원 없이 최소 90일간 작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예비 부품과 창정비 역량 확보 지시
- 수상함 정비를 위한 23가지 첨단 기술을 계약에 통합
  - 자동 용접 검사,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 등 도입 필요
- 민간 항공국(FAA 등) 인증 또는 지정 엔지니어링 대표(DER) 인증을 받은 항공 부품·수리 공정을 수용
- 미국 에너지부(핵안보청), 기타 거래 권한 도입 법적 근거 명시
  - 핵 현대화 및 신속 역량 사업에 민간과 거래 체결 가속화

한국 방산 인프라 및 MRO 섹터 밸류체인 단계별 주요 영향

R&D·설계	• 함정 설계부터 정비까지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구동해야 하므로 한국 조선소가 미 해군 MRO를 수행하려면 미국 디지털 설계 표준 이식 필요	• 23가지 첨단 기술적 역량을 보유·고도화 필요 • 설계 표준, 민간 인증이 우선순위화 가능
조달·소싱	• 분쟁 시 현지 조달 체계 필요, 한국 조선· 항공 시장에 미군 장비 부품 조달 체계 마련 가속화 • 단순 부품 조달에서 미군 자산 대행 관리로 확대	• 적층 제조로 핵심 부품 재생산하여 조달 가능 • 민간 인증으로 미군 공급망 진입해 절차 간소화 • SMR 기자재 및 부대 시설 진입 타진 검토
제조·구현	• 한국 민간 조선소에서 함정 MRO 진행 시 수행 작업에 대한 협의를 미군 감독관과 즉각 협의할 수 있어 공기 단축 및 공정 최적화 가능	• 한국 조선소에서 스마트 야드를 미 해군 표준에 맞춰 정비 공정 구현 필수 • 핵 현대화는 빠른 공기에 초점, 모듈러 방식 주목
운송·전송	• 전쟁 시 안전한 수송로 확보를 위한 특수 해운 필요하므로 한국 특수 해운 물류 시장 성장 가능	
사용·가동	• 미 해군 내 가동 중인 함정 데이터를 한국 조선소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송되는 체계 수립 필요 • 한국 항만·창고, 미군 운영 표준 기반 가동 가능	• 핵 시설은 독립적인 에너지 망 필요해 에너지 저장 장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도 포함 가능
관리·피드백	• 현지에서 수행된 MRO가 미군 시스템에 통합 필요하므로 데이터 모니터링 등으로 확대되며 한국의 물리적·디지털 MRO 시장 활성화 기대	• 한국 조선소 MRO 성과가 미 해군에 즉시 반영 • 미국 디지털 설계 표준을 따르기 위한 시스템 통합 및 사이버 보안 기술 고도화 필요 필요

Y26 NDAA(국방수권법):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 정책 이행

FY26 NDAA는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을 실행하고, 적대 세력을 억제할 수 있는 준비되고 유능하며 치명적인 전투력을 구축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한다.

FY26 NDAA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15개 행정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제화한 것으로,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 Restoring America's Fighting Force (EO 14185)
- Ending Radical and Wasteful Government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DEI) Programs and Preferencing (EO 14151)
-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at the Southern Border (Proclamation 10886)
- Securing Our Borders (EO 14165)
- Clarifying the Military's Role in Protecting the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U.S. (EO 14167)
- Modernizing Defense Acquisitions and Spurring Innovation in the Defense Industrial Base (EO 14265)
- Building the Golden Dome for America (EO 14186)
- Deploying Advanced Nuclear Reactor Technologies for National Security (EO 14299)
- Restoring American Airspace Sovereignty (EO 14305)
- Unleashing American Drone Dominance (EO 14307)

FY26 NDAA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30개 입법안을 법제화하였고, 여기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전쟁부 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관련 법규 폐지
- 미국의 골든 돔 정책을 반영하여 국가 미사일 방어 정책 개정
- 만료 예정인 일부 보너스 및 특별 수당 지급 권한을 1년 연장
- 법 집행 기관 또는 연방 기관의 대테러 및 초국가적 조직범죄 활동 지원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에 전쟁부 권한 부여
- 전쟁부는 외국의 침입으로부터 미국의 영공, 해상 영역 및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연방 기관에 지원을 제공
- 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국가(ISIS)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권한 확대

FY26 NDAA: 보수의 승리

-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 내 좌파 이념, 진보주의, 다

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을 종식하고, 전투력, 능력 주의, 책임감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법제화한다.

- 국토안보부의 국경 안보 활동 지원을 위해 전쟁부에 전액 자금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 전쟁부 획득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지원하고 혁신적인 신기술을 전투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 트럼프 대통령의 장병 삶의 질 향상 정책 이행을 위해 3.8%의 급여 인상과 군인 가족을 위한 복지 혜택 개선을 시행한다.
- 골든 돔, F-47 전투기, 잠수함, 군함, 자율 시스템 등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산업 기반 활성화, 미국 내 국방 제조업 일자리 확대, 국방 공급망 국내 복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기관을 승인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신설한다.
- 해당 법안에는 동맹국들이 자국의 국방비를 더 많이 부담하도록 강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조선업 부흥 노력에 힘을 실어준다.
- 예산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 요청에 포함된 DOGE 주도의 개혁을 포함하여 약 200억 달러의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
- 트럼프 대통령의 공무원 개혁안 시행을 위해 전쟁부 민간인 직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 해당 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미군을 준비시키려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권한과 자금이 포함되어 있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을 위협하는 테러리스트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권한을 확대한다.
-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독립 촉진 및 새로운 원자력 발전 기술 활용을 위한 행정명령을 법제화한다.

전투원들을 위한 납품 성과를 내도록 획득 방식 개혁

국가 안보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 군인들은 최첨단 기술로 무장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국방 획득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너무 느리고 경직되고 관료적이어서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 새로운 역량이 실제로 배치되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릴 수 있으며, 그때쯤이면 위협은 이미 바뀌고, 기술은 구식이 되고, 사업 예산은 초과될 것이다.

FY26 NDAA에는 효율적인 이행 및 납품을 위한 조달 간소화법(Speed Act)에서 제안된 많은 혁신적인 개혁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방 획득의 주요 목표인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전투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획득 시스템이 전투원에게 신속하고 대규모로 필요한 물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

-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신, 업계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롭고 가속화된 요구사항 프로세스를 만든다.
- 단일 포트폴리오 획득 책임자(PAE) 아래 획득 프로그램 관리를 중앙 집중화함으로써 관료적 의사 결정을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 획득 프로세스 초기에 수명주기 지속 유지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하여 비용이 많이 드는 준비 태세 문제와 장기적인 정비 관리 부족을 방지한다.

상업적 솔루션을 최우선

- 전쟁부는 값비싼 정교한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에 착수하기 전에 상용에서 구할 수 있는 기성품 솔루션을 검토해야 한다.
- 상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부과되는 비용이 많이 드는 규제 요건을 제거한다.
- 전쟁부는 더 많은 비즈니스 및 신규 진입자 확보를 위해 상용 솔루션 입찰 절차를 강화한다.
- 개인 위성 영상과 같은 구독 기반 서비스에 대한 장벽을 제거한다.
- 국방혁신단(DIU) 내에 운영 목표 연계 및 전환 지원(BOOST: Bridging Operational Objectives & Support for Transition) 프로그램을 설립하여 유망한 기술을 작전 니즈(Needs)와 연계함으로써 '죽음의 계곡'을 극복한다.

비용이 많이 드는 규제 부담 제거

- 소규모 획득 프로그램은 과도한 규제 부담을 면제하면서 핵심 계약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한다.
- 원가 회계기준(CAS)에 대해 오랜 미뤄왔던 개혁을 시행하고, 전쟁부 장관에게 CAS 관련 요구사항 준수 이행을 간소화하도록 지시한다.

임무 지향적인 국방 획득 인력 양성

- 획득 인력이 현대의 과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획득 전문가의 경력 개발을 촉진한다.
- 국방 획득대학(DAU)이 뛰어난 리더를 교육하고 육성하도록 보장한다.
- 공공-민간 인재 교류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국방 민간 훈련단 구성원을 공무원 획득 직책에 임명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쟁부 획득 인력의 인재 양성 시스템을 강화한다.
- 첨단 제조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이 분야에서 장애인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 권고를 위한 실무 그룹을 구성한다.

해외 군사 판매 개혁

- 전쟁부에 기술 이전 및 해외 정보 공개 정책에 대한 프로세스와 절차 개선을 위한 틀을 마련하도록 요구한다.
- 전투사령부에 해외 군사 판매 및 기타 장비 이전에 관해 사령부에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자격을 갖춘 획득 전문가를 고용한다.
- 전쟁부는 미군 공식(record) 프로그램이 아닌 장

비를 해외 파트너들이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무소를 설치한다.

- 전쟁부 관료주의 간소화를 통해 해외 군사 판매를 포함한 국제 무기 이전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개선한다.
- 전쟁부 장관은 국방 획득 인력이 해외 파트너 국가의 국방 역량 강화 우선순위를 인식하고, 안보 협력 담당 인력과 협력하여 파트너 국가의 요청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한다.
- 국무부 장관은 해외 군사 판매가 아닌 직접 상업 판매 방식을 통해 해외 파트너에게 이전할 수 있는 국방 물품 및 서비스 식별을 위해 2년마다 검토를 수행한다.

방위산업 기반 재활성화

지난 30년간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은 장기적인 분쟁에서 우리 군인들을 더 이상 지원할 수 없을 정도로 위축되었다. FY26 NDAA에서는 전쟁부에 방위산업 기반의 역량을 되살리고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권한과 투자 수단을 제공한다.

방위산업 기반 활성화

- 이를 통해 전쟁부에서는 산업기반 기금을 활용하여 핵심 광물 채굴 및 정제 프로젝트를 포함한 방위산업 기반에 오랫동안 미뤄왔던 역량 강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전쟁부 장관은 산업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납세자에게 더 큰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제공하기 위해 탄약 및 기타 수요가 높은 시스템에 대한 다년 조달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한다.
- 전쟁부는 3D 프린팅과 같은 첨단 제조 방식으로 제작된 부품의 인증 및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 공급망 투명성을 개선하고 계약업체가 중국 및 기타 적대 세력의 침투에 대한 공급망의 강점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도록 장려한다.
- 전쟁부에서는 계약업체가 급증하는 공급 능력을 유지하거나 확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규제 장벽을 파악하고 제거하도록 지시한다.
- 정부, 민간 부문, 학계 및 비영리 단체가 협력하여 부품 노후화, 공급망 취약성 및 미국의 긴급 대응 능력 복구 필요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포럼을 구축한다.
- 군수품 제조 분야에서 로봇 자동화 역량의 성숙과 확대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전쟁부는 국내 소형 무인 항공기 시스템(sUAS) 산업 기반을 조사하고 sUAS 시스템 및 구성품의 국내 공급업체 기반 개선을 위한 투자 또는 기타 조치를 권고하는 실무 그룹을 구성한다.
- 전쟁부는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의 인도-태평양 지역 방위산업 기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안보 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유지한다.

치명적인 공격력과 전사 정신의 회복

FY26 NDAA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진보적 위선주의(wokeism)를 종식하고 우

리 군대의 전투력과 전사 정신을 회복하는 데 기여한다.

여성 스포츠에 남성 참여 금지

- 모든 군사학교에서 남성이 여자 스포츠팀에서 뛰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한다.

능력주의 회복

- 모든 군사 승진, 임용 및 지휘관 선발은 인종, 민족 또는 성별이 아닌 개인의 능력과 입증된 실적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전쟁부에 다양성, 형편성 및 포용성 (DEI) 프로그램 종료

- 전쟁부의 기존 DEI 사무실, 프로그램, 교육, 활동 및 권한을 모두 영구적으로 폐지한다.
- 새로운 DEI 사무실, 교육 및 활동을 금지한다.
- 전쟁부가 보수 언론 매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뉴스 가드와 같은 광고 회사와 계약하는 것을 금지한다.

군사적 녹색 뉴딜 정책 방지

-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 요청에 따라 전쟁부는 기후 변화 관련 프로그램 예산을 10억 달러 이상 삭감한다.
- 기후 변화 관련 프로그램을 승인하지 않는다.

종교 서비스 제공 기관 확대

- 군종 목사로 복무하는 데 필요한 학교와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군인의 수를 확대한다.

국경 보안 강화

국경 안보는 국가 안보다. FY26 NDAA는 미국의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미국 국경 보호

- 남서부 국경에서 국경 순찰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 방위군과 현역 병력 배치에 필요한 자금을 전액 지원한다.
- 남서부 국경을 따라 국가 방위 구역을 설치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전액 지원한다.
- 전쟁부는 민간 계약업체를 활용하여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
- 합동 법 집행 태스크포스에 대한 전쟁부의 지원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테러 방지 및 초국가적 조직범죄 대응 활동을 강화한다.
- 전쟁부는 국경 안보 활동에 대해 의회에 보고한다.
- 마약 밀매와의 전쟁을 위해 10억 달러 이상을 승인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전쟁부의 마약 단속 작전 지원에 3억 9,800만 달러
- 주 방위군 마약 단속 프로그램에 2억 1,600만 달러 (예산 요청액보다 1억 달러 초과)

예산 절감 및 개혁

FY26 NDAA는 국가 방위 재량 프로그램에 9,010억 달러를 승인했다.

Account	FY26 NDAA
조달(Procurement)	$162 billion
연구, 개발, 시험 및 평가	$146 billion
운영 및 정비유지	$291 billion
군인 및 건강 (Military Personnel & Health)	$234 billion
군사 건설 및 가족 주택	$20 billion
국방 핵 프로그램	$34 billion
총 국방 재량 (Total Defense Discretionary)	$900.6 billion

비용 절감

FY26 NDAA는 납세자들에게 약 200억 달러를 절감한다. 절감액은 다음과 같다.

- DEI 활동 제거로 4,050만 달러 절감
- 기후 변화 관련 지출에서 16억 달러 삭감
- 노후 항공기와 선박 퇴역으로 12억 달러 절감
- 전쟁부의 불필요한 관료주의 축소로 68억 달러 절감
- 컨설팅 및 서비스 계약에서 55억 달러 삭감
- 비효율적인 국방 프로그램에 37억 달러 삭감

전쟁부 민간인 인력 개혁

FY26 NDAA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무원 개혁 지원을 위해 전쟁부의 민간인 인력 채용 및 관리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안이 포함되어 있다.

- 전쟁부가 직급별 근속기간 여건을 무시하고 입증된 스킬과 성과에 따라 승진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 전쟁부가 직무 적합성 평가(skills-based assessment)를 통해 지원자의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채용 절차를 개혁한다.

군사 건설 개혁

군사 건설(MILCON) 비용은 동등한 규모의 상업 건설보다 평균 35% 더 높다. FY26 NDAA에는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비용 절감을 위한 중요한 개혁안이 포함되어 있다.

- 각 군에 다년간의 계약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건설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한다.
- 군사 건설 프로젝트의 비용을 절감하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가속 설계-시공 및 단계적 설계-시공 계약 방식의 사용을 승인한다.
- 건설 계획을 복잡하게 만들고 프로젝트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시대착오적인 요건을 폐지한다.
- 건설 프로젝트에 기타 거래 권한(OTA)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전쟁부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연방 계약 규제 부담을 피할 수 있다.
- 미 육군 공병단과 해군 시설 공병사령부를 전쟁부 건설 대행 기관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폐지한다.
- 해군이 복잡한 조선소 건설 프로젝트를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약 유연성을 강화한다.

- 군사 시설 건설과 관련된 비용 프리미엄에 기여하는 나머지 요인들을 상세히 기술하고 비용 절감 방안을 권고하는 연례 보고서를 제출한다.

전쟁부 지출 및 감사에 대한 의회 감독

FY26 NDAA는 전쟁부 지출에 대한 강력한 감독을 지속하고 있으며, 감사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전쟁부 감사 결과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한다.
- 전쟁부 감사관의 감사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전액 지원한다.
- 전쟁부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법에 따라 제공된 자금을 사용하여 수행된 활동 및 잔액 현황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군인의 삶의 질 향상

FY26 NDAA는 군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한다.

보상 증액

-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군인 급여 3.8% 인상을 지지한다.
- 군인 보너스 및 특별 수당을 재승인하고 확대한다.
- 해외 파병 장병의 가족 분리 수당을 인상한다.
- 회복기 휴가 기간을 연장한다.
- 치솟는 임대료를 반영하여 주택 기본 수당 산정 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군 급식 프로그램 개혁

- 새로운 식당 시설 건설을 위해 1억 3100만 달러 이상을 승인한다.
- 군인들이 공용 액세스 카드(CAC)를 사용하여 기지 내 식당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군 식량 프로그램 예산의 관리, 투명성 및 의회 감독을 개선하여 기본 식비 지원금이 미국 군인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도록 보장한다.

군인 주택 개선 사업

- 병영 및 가족 주택 신축에 15억 달러 이상을 승인한다.
- 전쟁부는 군 주택의 건강, 안전 및 환경 위험과 관련하여 이행하지 못한 법적 의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한다.
- 군인 주택 환경, 거주자 지원 부족, 민간 기업의 성과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 민간 위탁 주택에 거주하는 군인 가족의 계약 조건을 개선한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 확대

- 군 병원 개보수 및 신규 의료 시설 건설에 3억 3500만 달러 이상을 승인한다.
- 의료 진료를 위한 교통비 환급 기준을 100마일에서 75마일로 낮춰 전문 진료 접근성을 높인다.
- 전쟁부가 군 의료 시설의 인력 부족을 막기 위해

제복을 입은 의료진 수를 줄이는 것을 방지한다.

- 의료 면허를 소지한 주 방위군과 예비군 장병들이 현역 복무 소집 시에도 현역 장병들을 계속 치료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 간의 군사 의료 협력, 면허 제도 및 상호 운용성을 확대한다.
- 국가 재난 의료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군과 민간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 전쟁부 의료 시설에서 재향 군인들이 의료 서비스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해외 군사 시설에서 성폭력 법의학 키트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한다.
- 군인들의 정신 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정신 건강 관련 인력 수준, 진료 예약 대기 시간, 원격 진료 서비스 이용 가능성 및 전쟁부의 정신 건강 서비스 개선 계획에 대한 평가를 요구한다.
  - 전쟁부는 전군 정신 건강 요구사항의 끊임없는 변화에 발맞춰 인공지능 개발 및 도입을 우선시하도록 지시한다.
  - 사이버 임무 부대의 특수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정신 건강 서비스를 확대한다.
- 군 복무에 특유한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 필요하다.
  - 특수부대원 집단 내 장기적인 건강 영향 연구.
  - 군용 회전익 항공기 승무원들의 암 발병률 연구
  - 고속 기동, 캐터펄트 발사 및/또는 뇌에 잠재적으로 해로운 기타 반복적인 동작에 노출된 현역 조종사의 외상성 뇌손상에 관한 보고서.
  - 전투용 원격 조종 항공기 운용이 심리적 영향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군 치과 치료 시설 인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보육 서비스 접근성 확대

- 새로운 보육 시설 설계 및 건설에 4억 9100만 달러 이상을 승인한다.
- 가정 내 종일 보육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가정 보육 시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보육비가 높은 지역의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승인한다.
- 보육비 증가에 발맞춰 보육비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매년 검토를 수행한다.
- 아동 발달 센터는 자신이 돌보는 아동에 대한 방임이나 학대가 의심될 경우, 즉시 부모에게 알린다.

전쟁부 학교 개선

- 군인 자녀들을 위한 새 학교 건설에 2억 600만 달러 이상을 승인한다.
- 현역 복무 소집된 주 방위군과 예비군 구성원이 자녀를 전쟁부 학교에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군인 가족 학생이 있는 공립학교에 5천만 달러의 영향 지원금을, 중증 장애 아동을 가르치는 지역 학교에 추가로 2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승인한다.
- 상세한 분석과 최소 한 학년도 전에 학부모에게 통지하지 않고는 전쟁부 학교를 폐쇄할 수 없다.
- 전쟁부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역 대학에서 대학

수준의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 전쟁부 소속 학교들이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경력 전환 지원 프로그램(TAP) 강화

- 전역하는 군인들이 국방 산업 기반 및 의료 분야에서 즉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 군인 가족의 전직 적응을 돕기 위해 배우자 대상 시범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 전쟁부는 이를 통해 전역 예정 장병들이 민간 생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정보와 자원에 시기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TAP 참여 현황을 추적하는 지표를 개발한다.

군대 모집 강화

- 군 모집 보너스 지급 기간을 연장한다.
- 전쟁부의 의료 인력 채용 기준에 대한 통일된 지침이 필요하다.
- 모든 군 모집관이 중등학교 및 고등 교육 기관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군 복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방 산업 기반에서 복무에 대한 정보를 군 모집관이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주니어 예비 장교 훈련단(JROTC) 부대 수를 늘리고 강사 자격 요건을 확대하여 더 많은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전쟁부 장관에게 인력난을 겪는 예비 장교 훈련단 교관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는 임시 권한을 부여한다.

전사자를 기리고 군사 역사 보존

- 전쟁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예산을 증액하여 더 많은 조사를 수행하고 미군 포로와 실종자 유해를 송환할 수 있도록 한다.
- 미국 정부 실종자 명단을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한다.
- 알링턴 국립묘지에 있는 채플린 기념관의 최신 정보와 지속적인 보존을 허용한다.

준비되고, 능력 있고, 치명적인 전투력 구축

FY26 NDAA는 준비되고, 능력 있고, 치명적인 전투력을 갖춘 군대를 구축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한다.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춘 병력

FY26 NDAA는 미군 전투원들이 당장 전투에 필요한 훈련, 장비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정비유지 개선 및 준비 태세 강화

- 2028년 9월 30일까지 최소 90일분의 F-35 합동 전투기 부품을 확보해야 하며, F-35 계약업체가 충분한 F-35 부품 재고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 상륙함이 함정 정비유지 예산을 비례적으로 배분받도록 규정한다.
- 대통령의 예산안에 상륙함 예비 부품과 수리 부품 비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함으로

써 군함의 장기 정비유지 기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

- 민관 협력을 장려하고 육군 병기창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 상용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지상 차량 정비 유지를 개선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 부품 부족 현상과 그것이 목표 임무 수행 능력 미달 항공기 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민간 선원들의 보상을 개선하여 해군 수송선 운항에 필수적인 해상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핵심 프로그램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보장

- 정부회계감사원(GAO)이 F-35 획득 프로그램을 매년 평가하고 의회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권한을 갱신함으로써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한 감독을 유지한다.
- 전쟁부 장관에게 F-35 항공기에 개방형 임무 시스템 아키텍처를 획득 및 통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한다.
- GAO(미국 회계감사원)가 화물 항공기 임무 수행 가능률 결함을 감사하도록 요구한다.
- 전쟁부 장관이 모든 주요 결함에 대한 시정 조치 계획을 제출할 때까지 KC-46 항공기 188대 이상 인도를 수용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을 제한한다.

군사 훈련 강화

- 주요 국방 획득 프로그램에 추가 훈련 시뮬레이터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장려한다.
- 공군이 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비유지 및 군수 기술 교육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원한다.
- 가상훈련 환경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전투원의 전투력을 향상하고 훈련 비용을 절감한다.
- 미국 동부 및 서부에 지역 훈련장을 설립하여 다영역 작전 및 로봇 자율 시스템 훈련, 시험 및 실험을 확대한다.
- 성과 훈련 및 숙련도 평가를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과 공간 컴퓨팅을 확대 적용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능력을 갖춘 전투력

FY26 NDAA는 미군 전투원들이 오늘날 끊임없이 변화하고 복잡해지는 세계적 위협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확보하도록 보장한다.

역량 정비 관리

- 특정 F-15E, A-10, C-130, E-3, RQ-4 및 그레이 이글 항공기의 퇴역을 금지한다.
- E-7A Wedgetail 생산라인 폐쇄를 금지한다.
- 전쟁부의 공중급유기 보유 대수 최소 기준을 늘린다.
- 버지니아급 잠수함 건조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핵심 구성품의 사전 조달 권한을 부여한다.
- UH-60 블랙호크 항공기에 대한 다년간의 조달 권한을 제공한다.

병력 보호 및 드론 대응 권한 강화

- 전쟁부의 드론 방어 권한을 재승인하고 강화하여 더 많은 군사기지를 보호하고 연방, 주 및 지방 당국과의 협력을 개선한다.
- 에너지부가 무인 항공 시스템(UAS)으로부터 원자력 연구소와 시설을 보호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 드론을 전략적 영향력 무기로 활용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전쟁부 차원의 노력을 주도, 옹호 및 조정하는 책임을 맡은 합동 범부처 태스크포스(JIATF) 401을 설립한다.
- 국내 군사 시설에 침입하는 소형 UAS를 더 효과적으로 탐지, 식별 및 추적을 위해 공군에서 상용 데이터 피드를 통합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군사 시설의 에너지 독립성 향상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첨단 핵에너지 행정명령을 법제화하여, 전쟁부가 핵에너지 담당 집행기관을 지정하고 군사 시설 및 운영용 핵에 대한 공식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요구한다.
- 군사 시설에 이동식 원자로와 같은 첨단 핵 기술의 배치를 조정하기 위해 첨단 핵 전환 실무 그룹을 설립한다.
- 전쟁부 전략 자본 사무소의 투자 대상에 핵분열 및 핵융합 기술을 추가한다.
- 해군부가 소형 모듈형 원자로 또는 이동형 원자로를 활용하는 원자력 에너지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요구한다.
- 기존 플루토늄 물질의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 동시에, 국가 방위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물질에 대한 연방 정부의 통제권을 보장한다.

안전 문화 회복

- 전쟁부 회전익 항공기가 수도권 지역에서 공대공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의 상업용 항공기에 자동으로 경고 방송을 하도록 요구한다.
- 육군 장관은 육군이 초기 회전익기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개념 증명 계획을 완료해야 한다.
- 폭발 관련 부상의 예방, 완화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폭발 안전 담당관을 임명한다.
- 오토바이 안전 교육 요건을 확대한다.

치명적인 전투력

FY26 NDAA 미군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도록 보장한다.

Shipbuilding

- 260억 달러 규모의 조선 자금 지원을 승인하여 다음 선박의 건조 및 지원을 담당한다.
  - 콜럼비아급 탄도미사일 잠수함 3호 및 향후 잠수함 확보를 위한 첨단 조달
  - 버지니아급 잠수함 1척 및 미래 잠수함을 위한 첨단 조달.
  - 차세대 DDG-51 Arleigh Burke급 구축함 조달
  - Ford급 항공모함 프로그램에 대한 전액 지원

- 대잠전 보조함 1척
- 2척의 함선-해안 연결용 상륙정

항공기

• 항공기 개발, 조달 또는 개조에 380억 달러 이상을 승인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공군의 F-47과 해군의 F/A-XX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에 대한 전액 지원
- B-21 레이더 전략 폭격기 사업에 대한 전액 지원
- 4대의 E-2D Hawkeye 전술 공중 조기 경보기
- F-35 전투기 47대
- UH-60 블랙호크 헬리콥터 24대
- H-47 Chinook 헬리콥터 11대
- H-53K King Stallion 헬리콥터 13대
- T-7A 훈련기 14대
- 공군의 완전 자율 협동 전투기와 해군의 MQ-25 무인 함재기 개발에 대한 전액 지원

전투 차량

• 바퀴형 및 궤도형 전투 차량의 조달 및 개조를 위해 40억 달러 이상을 승인한다.
- 86대의 장갑 다목적 차량
- M109 팔라딘 10대
- M1A2 에이브람스 전차 30대
- 해병대 수륙양용 전투 차량 91대
- 해병대 합동 경전술 차량 138대
- 기동형 단거리 대공 차량 44대

Munition

• 미국의 무기고를 복원하기 위해 250억 달러 이상을 승인하며, 여기에는 다음 품목의 조달이 포함된다.
- 정밀 타격 미사일(PrSM)
- 합동 공대지 미사일(JAGM)
- 해상 타격 미사일
- 재블린
- 스팅어
- 합동 공대지 스탠드오프 미사일
- 토마호크
- 유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GMLRS)
- 고급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AMRAAM)
- 사이드와인더
- 스탠다드 미사일
- 장거리 대함 미사일(LRASM)
- 고급 대 레이더 유도 미사일
- 합동 직접 공격 탄약(JDA)
- MK-48 어뢰
- 포탄

신흥 기술

• 미래 전장에서 우리 군인들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혁신적인 신기술을 실전에 투입하기 위한 연구, 개발, 시험 및 평가 노력에 1,457억 달러를 승인한다. 해당 기술에는 극초음속 무기,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자율 항공기, 선박과 차량, 지향성 에너지 시스템 및 새로운 우주 기반 역량이 포함된다.

전략적 억제력, 미사일 방어와 국가 방위 우주 역량 강화

FY26 NDAA는 극초음속, 탄도 및 순항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 돔 포 아메리카 구상'(Golden Dome for America initiative)을 지원한다. 이 법은 미국의 핵 억지력을 강화하고, 급속히 확장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및 우주 역량을 억제하기 위한 우주 역량 확보를 가속화한다.

골든 돔 건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 돔 구상 목표를 반영하여 미국의 국가 미사일 방어 정책을 업데이트한다.
- 골든 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전쟁부가 행정명령 14186호에 명시된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 공중과 미사일 방어 개발 및 시험을 위한 추가 자금 지원을 승인하며, 여기에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SM3-IIA 및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 조달을 위한 전액 자금 지원이 포함된다.
- 미사일 방어국이 교통부와 협력하여 노후화된 미사일 계측 장비와 사격장 안전 함정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

우주 역량 강화

- 우주군 수호자들의 성장과 발전을 장려하여 우주군과 합동군이 우주에서 전투하고 승리하는 데 필요한 고도의 기술력과 복잡성을 갖춘 우주 플랫폼의 획득을 지원한다.
- 전투사령부에 상업 공급업체의 우주 관련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전술 감시, 정찰 및 추적 프로그램(TacSRT)의 지속적인 개발을 지원한다.
- 이를 통해 전쟁부는 상용 위성 통신 서비스에 상용 방식의 결제 모델을 적용할 수 있어 군사 사용자에게 유연성을 제공하고 부족한 자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핵 억지력 강화

- 핵 억지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역량 및 핵 지휘통제 통신(NC3) 체계와 핵전력 현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필요한 자금을 전액 지원하도록 승인한다.
- 차세대 센티넬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및 핵 해상 발사 순항미사일(SLCM-N) 개발을 포함한 주요 현대화 활동을 가속화하기 위한 추가 자금 지원을 승인한다.
- 콜럼비아급 탄도미사일 잠수함 3척을 도입하고 최대 5척까지 일괄 구매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핵 억지력 3축 체계의 해상 기반 전력을 현대화한다.
- 전쟁부가 국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량을 400기 미만으로 줄이거나, ICBM의 대응 능력 또는 경계 태세를 약화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 공군 글로벌 타격사령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문화함으로써 공군의 핵 작전 집중도를 강화한다.
- 국방부의 핵 활동 관리 효율성을 더욱 향상하기 위해 관료주의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하고 통합한다.

에너지 원자력 안보 체계부 개선

-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핵 위협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핵 관련기관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핵안보국(NNSA) 내에 새로운 신속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설립한다.
- 미국의 플루토늄 핵연료 생산 능력 복원을 위한 두 곳의 생산시설 전략을 법제화한다.
- 진행 중인 NNSA 건설 프로젝트의 지속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재배정한다.
- 에너지부가 무인 항공 시스템으로부터 원자력 연구소와 시설을 보호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혁신과 기술 육성

새롭게 부상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인들에게 최첨단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 FY26 NDAA는 미래 전장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혁신적인 신기술을 신속하게 배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투원에게 혁신을 신속하게 제공

- 전쟁부의 운영 기관(ATO) 프로세스를 가속화하여 소프트웨어 및 정보 기술의 신속한 도입을 가능하게 한다.
- 전략 자본관리국이 신청서 검토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
- 특수작전사령부가 새롭게 대두되는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작전 능력을 향상하는 혁신적인 기술과 장비를 시험하고 조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 전쟁부는 프로그램 설계, 개발 및 테스트를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군 전반에 걸쳐 디지털 엔지니어링 활용에 대한 표준, 지침 및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 디지털 테스트 및 평가 환경을 구축하여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을 가속화한다.
- 전쟁부에 최신 소프트웨어 활용 방식을 통합하기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 혁신 기술을 테스트 및 평가에 활용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 전쟁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기술 부채를 평가, 추적 및 관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의무화한다.

생명공학 개발 우선순위 지정

- 전쟁부는 신흥 생명공학 기술의 국가 안보적 영향을 규제하기 위한 생명공학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 전쟁부 산하 생명공학 관리 사무소를 설립하여 생명공학 역량의 개발, 확보 및 지속 유지를 촉진한다.
- 군사적 요구사항에 맞춰 바이오 기반 제품을 통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전쟁부의 바이오 제조 역량을 확대하고 군 전반

에 걸쳐 생명공학 혁신을 지원하는 생명공학 프로그램을 법제화한다.

상업적 역량 활용

- 중소기업의 유망한 기술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혁신 기술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한다.
- 계약 관리자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기성 솔루션을 찾도록 유도하다.
- 국방 계약의 사이버 보안 요건을 통일하여 국방 산업 기반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인다.
- 무기 시스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시연함으로써 사이버 보안 및 정비유지를 향상한다.

신흥 기술 촉진

- 인공지능 실험, 교육, 친숙화 및 개발 지원을 위한 가상 환경 개발 및 배포에 대한 전쟁부 전반의 노력을 강화한다.
- 전쟁부 연구 및 엔지니어링 담당 차관에게 개발 시제품 제작을 수행하고 연구, 개발, 시험 및 평가(RDT&E)에 관한 지침을 각 군에 제공할 권한을 부여한다.
- 전쟁부 장관에게 미국 본토 내 추가적인 극초음속 시험 가능 지역을 검토하여 극초음속 시험 접근성을 확대하도록 요구한다.
- 새로운 전투 능력에 대한 대안적인 시험 및 평가 경로를 구축한다.
- 전쟁부는 자사 정보 및 네트워크 보호를 위해 양자 컴퓨팅에 내성이 있는 암호화 알고리즘 및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암호 시스템의 준비 태세에 대한 전략을 마련한다.

혁신 인력 및 연구 파트너십 강화

-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비전통적인 방위산업 계약업체의 직원을 기관에 임시로 파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인재 풀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
- 국방혁신단(DIU)의 활동 범위 확대를 위해 국내외에 지역 홍보 센터 설립을 승인한다.
- 육군 작전 부대와 국립 연구 대학 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초기 단계 문제 식별 프로세스에 군인을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을 법제화한다.
- 미국 전역의 선정된 대학에 안전한 시설과 네트워크를 위한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전략을 개발하여 학계, 산업계 및 전쟁부 간의 협력을 증진한다.

안전하고 임무 중심적인 AI 도입 가속화

- 전쟁부는 필수 교육과정에 인공지능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직원들의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한다.
- 전쟁부 전반에 걸쳐 실험, 교육 및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샌드박스 환경을 구축한다.
- 인공 일반 지능(AGI)을 포함한 고도 인공지능 시스템의 위험을 평가, 도입, 관리 및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책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 전쟁부가 인공지능 및 기계 학습에 특유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지시한다.

국가 사이버 방어력 강화

- 보호 대상 국가의 개인이 전쟁부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의 민감한 기능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
- 국가 안보에 민감한 임무를 수행하는 고위 지도자와 인력을 위한 안전한 통신망을 구축한다.
- 사이버 공간에서 국방 핵심 기반 시설을 표적으로 삼는 적대 세력에게 비용을 부과하고 공격 동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지시한다.

미국의 사이버 전쟁 능력 현대화 및 보호

- 미국 사이버사령부의 계획, 프로그램, 예산 및 실행(PPBE) 시스템 내에서 책임을 명문화한다.
-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미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의 권한 변경을 제한한다.
- 사이버 임무 부대에 예비군 구성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중국 저지하기

FY26 NDAA는 중국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우위를 구축하고 유지한다.

중국발 위협에 대응

-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태평양 억지력 구상(PDI)을 확대한다.
- 중국 공산당(CCP)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혁신적인 신기술, 즉 극초음속 무기, 인공지능, 자율 시스템, 사이버 보안, 이동식 소형 원자로, 고에너지 레이저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국방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

- 연방 정부가 중국 및 기타 적대국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으로부터 생명공학 장비 및 서비스를 획득하는 것을 금지한다.
- 중국 및 기타 적대국으로부터 몰리브덴, 갈륨, 게르마늄을 포함한 핵심 광물의 획득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가 공급망 투명성 도구를 사용하여 공급망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싱 제한을 준수하지 않는 품목의 발견을 즉시 공개하도록 장려한다.
- 전쟁부는 업계가 공급망 소싱 요건을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온라인 저장소를 구축하고 유지한다.
- 전쟁부는 중국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회사와 거래하는 단체에 대출이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 전쟁부는 중국 기업이 제조한 컴퓨터나 프린터를 직간접적으로 획득하는 것을 금지한다.
- 전쟁부는 중국 업체가 생산한 적층 제조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 전쟁부는 컴퓨터 디스플레이, 광학 유리 및 야간 투시경과 같은 광학 시스템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없애기 위한 전략을 시행한다.
- 전쟁부가 희토류 자석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노력을 지지한다.

-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여 전쟁부는 제3국에서 운영되는 중국 소유 또는 통제 기업으로부터 상품 및 서비스를 조달하지 못하도록 한다.
- 중국 및 기타 적대국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회사로부터 태양광 패널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 전쟁부에 국방부 계약업체의 특정 라이다(LIDAR) 기술 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한다.
- 전쟁부는 중국 소유 또는 통제 기업이 군사 시설 내에서 사업체나 기타 사업권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임무 성공 보장

- 27억 달러 이상의 필수 군사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수 역량을 확대하여 우리 군이 전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전쟁부는 인도-태평양 지역 배치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 지점에 더 가까운 곳에 적층 제조 시설을 개발한다.

대만의 국방력 강화

- 대만 안보 협력 구상에 10억 달러를 전액 지원한다.
- 중국의 침략과 악의적인 영향력에 저항하기 위해 미국이 대만과 다른 파트너 국가들을 계속 훈련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승인한다.
- 전쟁부는 대만과 무인 전투기 및 무인 전투기 대응 시스템을 배치하기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요구한다.

인도-태평양 동맹국 및 파트너 지원

-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실시하는 군사 훈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 요청을 전액 지원한다.
- 15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안보 지원을 승인함으로써 미국과 필리핀 간의 안보 관계를 강화한다.
- 전쟁부는 호주, 일본, 필리핀과의 기지 협정, 정보 공유, 지휘통제 협력, 다자간 군사 훈련을 확대하는 전략을 이행한다.

중국의 악의적 영향에 대응하기

- 중국의 영향력 확대 공작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동맹국에 대한 군사 정보 작전 지원을 전액 지원한다.
- 쿠바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의 정보 수집 활동과 그것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요구한다.
-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간 협력의 가장 위험한 측면을 평가하고 억제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실무 그룹을 구성한다.

이스라엘 방어하기

FY26 NDAA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 전례 없는 수준의 지원을 제공한다.

합동 군사 프로그램 강화

- Iron Dome, Arrow, and David's Sling을 포함한 미-이스라엘 공동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을 통해 이스라엘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전액 지원한다.
- 이스라엘과의 국방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임을 선언한다.
- 미-이스라엘 방위산업 기반 실무 그룹 설립을 지시하여 국방 생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이스라엘을 미국의 국가 기술 산업기반(NTIB)에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하도록 한다.
- 이스라엘을 포함한 특정 파트너와 함께 인공지능, 양자역학, 사이버 보안, 로봇공학 및 자동화를 포함한 최첨단 기술의 개발 및 테스트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신흥 기술 협력 프로그램에 3,500만 달러를 설립하고 승인한다.
- 미국과 이스라엘의 터널 방지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해 전쟁부에 8천만 달러의 추가 자금을 승인한다.
- 무인 시스템 전반에 걸친 대응, 특히 일방통행 공중 공격 드론과 지상 및 해상 공격 시스템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이스라엘과의 협력 확대에 7천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승인한다.
- 전쟁부는 이스라엘과 합동 훈련을 확대하여 지역적 위협에 대처하는 공동의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억지력을 증진할 것을 장려한다.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움

- 국제 무기 금수 조치가 이스라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이스라엘의 국방 생산 니즈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한다.
- 전쟁부는 이스라엘의 참여를 금지하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및 포럼에 참여하지 않도록 지시한다. 이는 보이콧, 투자 철회 및 제재(BDS) 운동의 일환이다.

기타 적대 세력에 맞서기

FY26 NDAA는 테러 지원국, 외국 테러 조직 및 기타 적대 세력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둔다.

러시아

- 전쟁부가 NATO 동맹국으로부터 자금을 징수하여 동유럽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 유지 비용을 상쇄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으로,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과 일맥상통한다.
- 전쟁부 장관에게 군사기지 및 훈련 관련 결정을 내릴 때 NATO 동맹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5%에 해당하는 방위비 지출 목표 달성 진척도를 고려하도록 지시한다.
- 발트 3국의 방어 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발트 안보 구상에 1억 7,500만 달러를 공식적으로 설립하고 승인한다.
- 러시아의 군사 및 전략적 목표에 대한 전쟁부의 연례 평가를 연장 및 확대한다.
- EUCOM 사령관은 미국과 NATO가 러시아에

대해 어떻게 비교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례 평가를 수행한다.

- 전쟁부는 유럽 주둔 미군 병력을 7만 6천 명 미만으로 감축하기 전에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계획에 4억 달러를 승인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동맹국의 기여에 대한 정기 보고 요건을 강화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우선 지원 목록(PURL) 계획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한다. 이 계획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주로 유럽 동맹국에 의해 자금 지원을 받도록 한다.

이란, 이란 대리 세력 및 기타 외국 테러 조직

- 전쟁부의 권한을 확대하여 이라크 및 시리아 파트너 군대의 IS 격퇴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이라크 정부가 자국의 안보 및 정치 기관에 대한 이란의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신뢰할 만하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이라크에 대한 국방 자금 지원을 제한한다.
- 이라크 쿠르디스탄 지역의 핵심 대테러 동맹국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호한다.
- 이란의 군사력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확대하고, 전쟁부가 이란의 테러 대리 세력 이용, 핵무기 기술 발전 및 편도 공격 드론과 같은 새로운 무기 운반 수단을 생산, 유지 및 운용할 수 있는 능력에 더욱 집중하도록 요구한다.
- 2024년 1월 이란의 지원을 받은 테러 공격으로 발생한 타워 22 관련 기록의 기밀 해제를 요구함으로써, 전사한 미군 장병들에 대한 중요한 책임 규명을 보장한다.
- 미국과 협력하여 중동 지역에서 테러와 싸우는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쟁부 권한을 확대한다.
- 전쟁부는 바레인 정부와 체결한 포괄적 안보 통합 및 번영 협정(CSIPA)을 통해 지역 안보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연구해야 한다.
- 전쟁부는 요르단 및 레바논 정부와의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 전쟁부는 이라크 내, 이란 테러 대리 조직인 바드르(Badr) 조직 및 그 계열 단체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다.
- 중동 지역 파트너 국가들이 헤즈볼라, 하마스, ISIS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초국가적 위협,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테러 지원을 승인한다.
- 관타나모만에 있는 흉악 테러범 수용소 폐쇄 금지 조치를 연장한다.
-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 된 테러리스트의 석방 금지 조치를 아프가니스탄 또는 테러 지원국으로 확대한다.

북한

- 주한미군과 한국 내 군사 건설 사업에 전액 자금을 지원한다.
- 미국은 한국의 방위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

- 한국군과의 군사 훈련에 필요한 자금을 전액 지원한다.
- 전쟁부는 주한미군 병력을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거나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양하기 전에 특정 조건 충족 여부를 인증하고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DSJ*

Notice

- 본 저널과 NSS, NDS, FY26 NDAA 원본 파일은 https://www.kafsp.co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창간호 주제와 관련된 분석 내용은 방위산업진흥회 발행 「DEFENSE TECHNOLOGY」 2026.5월호(vol 567) pp. 164~179 참조.

Breaking Defense article on acquisition & standardization

1. 국가 안보 전략(NSS)은 NATO 확장을 제한하는 '먼로 독트린' 부활 촉구

해당 문서는 유럽을 강하게 비판하며, 유럽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문명 소멸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라고 말한다.

By Ashley Roque on December 05, 2025

트럼프 행정부는 목요일 저녁(12.4)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하며 서반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전 세계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마찰 지점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럽이 주요 공격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해당 전략에는 유럽 대륙의 "문명 말살"을 경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동시에 NATO의 확장을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겨 있는 듯하다.

33페이지 분량의 전략 문서에는 "수년간 방치되었던 먼로 독트린을 재확립하고 시행함으로 서반구에서 미국의 패권을 회복하고, 본토와 이 지역 주요 거점에 대한 접근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우리는 서반구 밖의 경쟁국들이 우리 반구에 병력이나 기타 위협적인 역량을 배치하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소유 또는 통제하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단히 말해 먼로 독트린은 1823년 미국이 유럽 열강들에게 서반구에 개입하지 말라고 요구한 정책이었다. 최근 공개된 NSS는 이러한 변화를 "트럼프 수정안"이라고 명명하고, 이 지역의 "기존 우방국"들과 협력하여 이민 통제, 마약 유통 차단, 안정 강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이러한 파트너십을 "확대"하고자 한다.

특히, 문서의 "우선순위" 항목 첫 번째 문단에는 "대규모 이민 시대는 끝났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국경 안보가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다.

NSS와 NDS 모두에서 미주 지역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강조될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특히 미국 행정부가 이 지역에 해상 전력을 대거 투입하고 마약 운반선이라고 주장하는 선박들을 공격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과 함께, 미주 지역의 전략적 재조정이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NSS가 모든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정책 변화를 엿볼 수 있게 해주며, 이번 주말 캘리포니아주 시미 밸리에서 열리는 레이건 국가방위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고위 정부 관료, 국회의원, 방위산업 관계자들이 모일 때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이번 주말 행사 기조연설에서 NDS를 최소한 예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논쟁에는 분명히 유럽 전역에서 사용되는 언어 중 일부가 포함될 것이며, 이는 문화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NSS의 한 부분에서는 "우리는 유럽, 영미권, 그리고 전 세계, 특히 동맹국에서 엘리트 주도의 반민주적 자유 제한에 반대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올해 초 JD 밴스 부통령이 유럽의 극우 정당 탄압을 맹렬히 비난했던 사건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

해당 문서의 다른 부분에서는 유럽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문명 소멸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밴스 부통령이 올해 초에 했던 발언과도 일맥상통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늦어도 수십 년 안에 일부 NATO 회원국들이 비유럽권 국가들을 과반수로 삼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NSS에서 밝혔다. "따라서 이들이 NATO 헌장에 서명한 국가들과 같은 방식으로 세계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나 미국과의 동맹을 바라볼지는 미지수다.“

NSS는 NATO의 지속적인 확장에 대한 "인식"을 종식하고 "현실을 막아야 한다"라고 촉구한다. 동시에 워싱턴이 모스크바와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여 지역 "전략적 안정"을 위한 여건을 재확립할 것을 요구한다.

늘 모호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전략적 전환과 관련하여, 국가 안보 전략(NSS)은 미국이 제1도련선 내에서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사력을 증강하고자 하며, 동시에 역내 파트너들에게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동맹국들은 집단 방위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략 보고서는 강조한다. 또한 대만을 둘러싼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여전히 "우선순위"이며, 미국은 대만 해협의 현상 유지에 대한 일방적인 변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역내 동맹국들이 환영할 만한 내용일 것이다.

https://breakingdefense.com/2025/12/national-security-strategy-nato-civilizational-erasure-monroe-doctrine/

Breaking Defense article on acquisition & standardization

2. 국가방위전략(NDS) 계획부터 획득 시스템 개편 방안까지: 2026년 전망

향후 12개월 동안 미군 배치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골든 돔 계획에 대한 새로운 세부 사항도 공개될 예정이다.

By Ashley Roque on December 29, 2025

2025년 연말, 백악관은 서반구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하며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국내외 군사 주둔에 대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국가 방위 전략은 함께 발표되지 않았다.

2026년 국가방위전략(NDS) 발표는 미주 전역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의 증원을 의미할 수 있으며, 댄 케인 합참의장은 12월 초 NSS가 해당 지역에 더 많은 "전투력"을 배치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수년간의 방치 끝에 미국은 서반구에서 군사적 우위를 회복할 것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캘리포니아주 시미 밸리에서 열린 같은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본토를 보호하고 이 지역 전역의 주요 지형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할 것이다. 또한 적들이 서반구에 병력을 배치하거나 위협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을 차단할 것이다."

그러한 전략적 전환은 NATO와 유럽 파트너 및 동맹국에 2차, 3차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이 전략은 미국 도시 내 주 방위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트럼프 행정부가 마약 밀수라고 주장하는 카리브해와 태평양 해역의 선박에 대한 미군의 공습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불분명한 점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2026년에도 유럽 내 미군 병력의 대규모 감축과 같은 국방부 계획에 반대할지 여부이다. 의원들은 국방수권법에서 이러한 감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중간 선거기간 동안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말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28개 항의 계획을 발표해 미국 의원들과 유럽 지도자들을 놀라게 했다. 이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디어로 알려졌으며, 반대파들은 러시아의 전

략을 그대로 따라 한 것이며 NATO의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양당 의원들은 미국의 평화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는데, 특히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공화당, 켄터키주)은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바보 취급"하려 한다고 말했다.

미국, NATO,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회의를 통해 향후 조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점은 미국이 내년 어느 시점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지, 또는 키이우로 향하는 무기 공급을 차단할지 여부다.

한편, 2026년은 획득 개혁의 추진력과 압력 요인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일 수 있다. 미국 전쟁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소프트웨어 획득 경로(SWP) 도입, 육군 혁신 계획, 드론 우위 확보 계획 등과 같은 변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했지만, 이러한 변화들이 구체화 되고 성과를 나타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이번 과정은 분명히 국방부 내 모든 계층과 협력하여 올바른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직원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침,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하는 여정이 될 것이다."라고 Michael Duffey 국방부 획득 및 지속 유지 담당 차관은 12월 기자들에게 말했다.

향후 12개월 동안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골든 돔', 즉 광범위하고 다층적인 국토 방공 시스템을 설계하고 배치하려는 행정부의 계획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다.

지금까지 전쟁부의 주요 무기 프로그램 책임자인 Michael Guetlein 장군과 같은 관계자들은 해당 체계와 구현 계획에 대해 함구해 왔다. 그러나 Guetlein 장군은 지난 12월 레이건 국방 포럼에서 전쟁부가 이제 막 공개적인 논의를 시작했을 뿐이며 2026년에 더 자세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breakingdefense.com/2025/12/from-national-defense-strategy-plans-to-acquisition-overhaul-findings-2026-preview/?

Breaking Defense article on acquisition & standardization

3. 미국 전쟁부 산하 군수품 가속화 위원회, 2027년까지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 무기 14종 선정

우리는 그들이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그들이 합의한 생산량 증가율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것이다."라고 전쟁부 재정감사관 직무대행인 줄스 "제이" 허스트가 말했다.

By Ashley Roque on April 24, 2026

PrSM은 차세대 장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로, 표적을 공격, 무력화, 제압 및 파괴하는 데 필수적인 능력을 제공하여 합동 전 영역 작전을 통한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지원한다.

미국 전쟁부 산하 군수품 가속 위원회(MAC)는 야심찬 생산 증대 계획의 일환으로 14종의 기존 및 "신흥" 군수품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는 다년간에 걸친 일련의 계약 체결이 포함된다고 2027 회계연도 예산 문서에서 밝혔다.

한 예산 문서에 따르면, "이러한 투자는 전쟁부가 단기 및 장기적인 탄약 수요를 충족하고, 고갈된 비축량을 보충하고, 미군, 동맹국 및 파트너의 작전 니즈를 지원하고, 억지력을 재확립하고, 장기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는 미국이 무기 가용성과 준비 태세를 강화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진화하는 글로벌 위협에 직면하여 미군,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의 지속적인 작전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무기 생산 확대를 위해 MAC 설립 후, 예산 문서에서는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12개의 기존 무기와 "기술 및 작전 효율성의 발전을 나타내는 두 가지 신흥 역량"을 명시하고 있다.

The Legacy Weapons(12종):

- Patriot Advanced Capability-3 (PAC-3) Missile Segment Enhancement interceptors.
- Terminal High Altitude Air Defense (THAAD) interceptors.
- Standard Missile-3 IIA
- SM-6
- SM-3 Block IB
- Tomahawk Land Attack Missile
- Joint Advanced Tactical Missile
- Low-Cost Cruise Missile
- Advanced Medium-Range Air-to-Air Missile
- Maritime Strike Tomahawk
- Joint Air-to-Surface Standoff Missile-Extended Range.
- Long Range Anti-Ship Missile

Emerging Capabilities(2종):

- Low-Cost Hypersonic Strike Weapon
- Precision Strike Missile (PrSM) Increment 1

"12종의 기존 탄약에 대한 집중은 정밀 유도 미사일, 공중 및 미사일 방어, 공대공 및 공대지 탄약과 같이 현재와 미래 작전에 필수적이고 검증된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한다."라고 해당 문서에서 밝혔다. "두 가지 새로운 역량을 포함한 것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고 차세대 장거리 탄약 및 첨단 자율 탄약 시스템을 통해 작전 효율성을 향상하려는 전쟁부의 혁신 및 현대화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다."

향후 7년간 생산량을 실제로 늘리기 위해 미 행정부는 지금까지 여러 기업과 기본 계약을 체결하여 제조 시설에 투자하도록 했다. 이러한 계약에는 PAC-3 요격 미사일, PrSM, THAAD 및 PAC-3 요격 미사일용 탐색기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이러한 무기를 추가로 구매하기 위한 후속 생산 계약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달 초 미국 전쟁부는 록히드 마틴에 기본 계약과 관련된 작업을 시작하기 위한 47억 달러 규모의 미확정 계약을 체결했다.

지출 계획과 관련하여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미사일 조달 자금으로 705억 달러를 요청했는데, 이는 2026 회계연도 예산 대비 188% 증가한 금액이다. 이 요청액 중 약 400억 달러, 즉 약 55%

는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확보될 예정인데, 이는 의무(mandatory) 지출 항목으로 지정된 자금이 재량(discretionary) 지출 항목보다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군의 예산 운용에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한다.

화요일 펜타곤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한 줄스 "제이" 허스트 전쟁부 재정감사관 직무대행은 해당 예산을 여러 해에 걸쳐 분산 투입하고 다년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그들이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그들이 합의한 램프 속도를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 만약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것이다."라고 허스트는 말했다.

그는 나중에 "우리는 계약업체들이 자본 지출(CapEx)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 자본 지출 비용을 충당하려면 계약업체들은 미국에 일정량의 무기를 판매해야 한다. 만약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초기 벌금은 자본 지출 자체이며… 그 후 생산량 증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계약업체에 대한 벌금 조항도 계약에 포함될 것이다."

https://breakingdefense.com/2026/04/pentagons-munitions-acceleration-council-identifies-14-criticalweapons-for-2027/?

Breaking Defense article on acquisition & standardization

4. Hanwha, Magnet Defense와 제휴해 MUSV, 로봇 조선소 건설

두 회사는 38미터 MUSV 제작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By Diana Stancy on April 20, 2026

한화 디펜스 미국법인과 마그넷 디펜스는 중형 무인 수상함 건조를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

한화 디펜스 USA(HDUSA)과 자율 해양 전문기업 마그넷 디펜스가 중형 무인 수상함(MUSV)과 로봇 조선소를 공동으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회사 관계자들이 브레이킹 디펜스에 밝혔다.

두 회사는 오는 월요일 메릴랜드주 내셔널 하버에서 열리는 해양·항공·우주 박람회에서 38미터급 MUSV 제작을 중심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 MOU에 따라 양사는 인공지능(AI) 개발 등 다양한 프로젝트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화 미국연구소(HDUSA)의 마이클 쿨터 CEO는 성명에서 "한화는 분쟁 시 미군과 동맹국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MUSV을 배치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마그넷 디펜스와의

협력을 통해 한화는 자사의 제조 역량과 첨단 로봇 기술을 활용하고, 이를 마그넷 디펜스의 검증된 자율 주행 기술과 결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마이애미에 본사를 둔 마그넷 디펜스는 이미 주력 MUSV인 M48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MUSV는 2024년에 마이애미에서 미국령 사모아까지 왕복 32,000해리(약 5,700km)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M48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고 Sea State 9의 악천후도 견뎌냈다. 마그넷 디펜스의 3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M48은 통합 공중과 미사일 방어, 대함 및 대잠전, 수색 및 구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HDUSA의 미사일 담당 수석 부사장인 케빈 스쿠노버에 따르면, 이번 양해각서는 마그넷 디펜스가 이미 개발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H38이라는 새로운 MUSV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은 해군이 지난 3월, 다양한 작전 니즈 충족을 위해 이미 생산 준비가 완료되고 임무 수행이 가능한 MUSV 플랫폼에 집중하여 USV를 신속하게 획득하려는 새로운 MUSV 시장을 공개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이 MUSV와 무장 MUSV에 본격적으로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처럼 혁신적인 기업들과 파트너십 및 협력을 구축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신제품을 개발하고자 했다."라고 스쿠노버는 금요일 브레이킹 디펜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MOU)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자동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강 현실 기술을 통해 인력을 신속하게 훈련시켜 로봇 조작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에 인공지능 기반 조선소를 설립해야 한다. 마그넷 디펜스의 CEO인 마크 벨은 금요일 브레이킹 디펜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조선소들이 내년 말에 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벨은 "우리의 계획은 전국에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조선소를 건설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배가 움직이지 않고 로봇이 제자리에서 건조되는 점을 제외하면 자동차 조립 라인과 거의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로봇이 절단, 용접, 조립 등 모든 작업을 사람의 개입 없이 수행한다. 사람은 뒤에서 로봇을 조종하기만 하면 된다."

이번 파트너십은 드론이나 미사일과 같은 모듈화된 탑재체를 신속하게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컨테이너형 역량 개발 캠페인"을 추진하려는 대럴 코들 해군 참모총장의 계획과도 일치한다.

"저희는 컨테이너 운송에 특화되어 있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이다."라고 벨은 말했다. "우리는 해군의 수요 신호를 경청하고 있으며, 해군이 원하는 방향이 바로 이것이다."

https://breakingdefense.com/2026/04/exclusive-hanwha-defense-usa-magnet-defense-partner-to-build-musvs-robotic-shipyards/?

Breaking Defense article on acquisition & standardization

5. 미국 전쟁부, AI 8개 기술 업체의 미 기밀 네트워크에 배포 승인

전쟁부는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오픈AI, 스페이스X, 리플렉션 및 오라클과 계약을 체결했다.

By Sydney J. Freedberg Jr. on May 01, 2026

미국 전쟁부는 오늘 아침 주요 기술 기업 8곳과 기밀 네트워크에 인공지능(AI)을 배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오늘 아침 배포된 초기 보도자료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스페이스X, 엔비디아, 그리고 엔비디아의 지원을 받는 신생 스타트업인 리플렉션 등 7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이후 국방부 최고기술책임자(CTO)실은 X 플랫폼에 "오라클이 전쟁부의 기밀 네트워크에 최첨단 AI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 목록에 공식적으로 합류하기로 합의했다"고 게시했다.

전쟁부 대변인은 Breaking Defense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업체는 이미 계약을 체결했고, 다른 업체들은 아직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합의는 미군을 인공지능 우선 전투력으로 전환하는 속도를 높이고, 모든 전쟁 영역에서 우리 전투원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초기 발표문은 밝혔다.

이 여덟 개 회사의 AI는 이제 기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영향 수준 6과 가장 높은 수준의 기밀 시스템을 지칭하는 준공식 용어인 영향 수준 7로 분류된 네트워크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는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상용 AI를 전쟁부에 도입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2월 구축된 보안은 강화되었지만 기밀 등급으로 분류되지 않은 GenAI.mil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전쟁부의 영향 수준 6(IL6) 및 영향 수준 7(IL7) 네트워크 환경에 안전한 최첨단 AI 기능을 통합하면 데이터 종합이 간소화되고 상황 이해도가 향상되며 복잡한 작전 환경에서 전투원의 의사 결정 능력이 강화될 것이다."라고 발표문은 이어진다.

이 목록에서 눈에 띄게 빠진 기업은 앤트로픽(Anthropic)이다. 앤트로픽의 클로드(Claude) AI는 이미 팔란티어(Palantir)의 메이븐(Maven) 툴킷의 일부로 기밀 네트워크에서 사용되고 있었지만, 미국 행정부는 이를 정부 사업에 사용하는 것

을 금지하려 했고, 이로 인해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국(NSA)은 앤트로픽의 새롭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마이토스(Mythos)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모델은 상당한 사이버 전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전쟁부 최고기술책임자(CTO)이자 연구개발 및 엔지니어링 담당 차관인 에밀 마이클은 오늘 아침 CNBC에 출연해 발표 내용을 논의하면서 앤트로픽사를 은근히 비판했다.

마이클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부를 지칭하기 위해 새로 만든 명칭인 전쟁부를 사용하며 "우리가 전쟁부에서 이 일을 시작한 이후로 배운 것은 어느 한 파트너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것이며, 그 한 파트너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와 협력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공급업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여기에는 우리 전쟁부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오픈 소스 업체와 독점 모델 회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AWS 같은 인프라 회사들이 포함된다. 이들이 기밀 네트워크 구축에 우리와 협력하기로 동의하도록 설득하여 공급의 다양성을 확보했다.”

미국 전쟁부의 발표에는 인공지능 모델이 기밀 네트워크에서 언제 사용 가능해질지, 또는 해당 업체들이 얼마를 받는지(받는다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https://breakingdefense.com/2026/05/pentagon-clears-7-tech-firms-to-deploy-their-ai-on-its-classified-networks/?utm

The Truth of the Korean War

[안보 칼럼] 국가 안보와 보훈 1

이범희 (사)한국보훈선교단 이사장

모세는 그의 유언 설교에서 기억하고, 생각하여, 물으라며 국가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힘 있는 국가 안보가 경제발전이고 국민 인권이며 민생이며 국가 번영이며 국민 행복이다. 국가보훈은 국가의 존립을 위하여 희생한 분들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보상이며 국민에게 애국심을 고취하여 국가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국가보훈의 목적은 기억을 통한 연대와 국민통합이다.

서울 국립현충원은 국가에 대한 정체성과 애국심을 강화시켜 준다. 약 43만 평의 양지쪽에 20만여 분의 묘비가 줄지어 있으며, 이 중에 10만 3천여 분은 시신조차 찾지 못한 전몰 무명용사로 현충탑 지하 벽면에 검은색 위패로 모셔져 있다.

국가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도 민생도 국민의 인권과 행복도 다 사라진다. 한국보훈선교단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누워계신 유적지와 전적지의 가슴 뜨거운 충혼과 애절한 사연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오늘의 번영과 안정이 이분들의 값진 희생의 결과임을 지역 별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바란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한다. 오늘의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정확하고 진실한 이해와 책임 의식이 있어야 한다.

우리 민족의 최대 비극이었던 6.25 한국전쟁의 배경과 원인과 전쟁 결과와 교훈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잊지 않는 것이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하고 영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국민통합을 이루어 민족의 통일을 이루는 길이다. 역사의 진실을 가슴에 인식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책무이다.

조선말의 시대적 변화와 일제의 침략과 독립운동을 시작으로 광복군과 국군의 탄생과 기습적으로 당한 6.25 전쟁에서 충성을 다한 호국 용사들의 충정 세계로 여러분을 정중히 초청한다.

일본의 침략과 한민족의 독립운동(1)

한반도는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서구열강과 청나라, 일본 등의 압력을 받으면서 국제적인 세력의 각축장이 되었다. 이러한 외세에 대항하여 조선왕조는 한동안 쇄국정책을 고수하였지만, 국제정세의 조류를 더 이상 막아내지 못하고 1876년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이후 1882년에는 미국, 1883년에는 영국 및 독일, 1884년에는 러시아 및 이탈리아와 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강대국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문호 개방에 대해 집요하게 관심을 가졌던 나라는 청국과 일본, 러시아였다. 한반도와 인접해 있던 이 국가들은 한국 문제가 자국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한반도에서의 독점적 우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다.

세 나라의 대립은 마침내 전쟁으로 발전하며 청일전쟁(1894-1895), 러일전쟁(1904-1905)이 발발하였는데 두 차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러시아, 미국, 영국 등의 강대국들과 일종의 협약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교활하고 악랄한 일제 침략일지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1895.8.20. 참혹한 을미사변이다. 일제가 조직적으로 미우라 일본 공사의 지휘 아래 일본 군인과 경찰, 일본 낭인들과 조선인 일부가 경복궁에 무력으로 침입해서 명성왕후를 살해하고 시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기름을 붓고 불태워서 소각한 끔찍한 사건이다. 또한 강제적으로 단발령을 내리자, 전국에서 일본군을 몰아내자는 의병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다.

1905.11.17. 을사늑약이다. 이 조약으로 외교권이 일본으로 넘어가고 여기에 찬성한 학부 이완용, 군부 이근택, 내무 이지용, 외무 박제순, 농상공부 권중현은 나라를 판 이들을 을사오적이라고 한다.

1907.7.24. 한일신협약을 정미7조약이라 하며 1907. 6월. 헤이그 특사를 빌미로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통치권을 장악하고, 8.1일에는 대한민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에 분개하여 시위대 제1연대, 1대대장 박승환 참령이 자결하자 이 일을 계기로 해산된 군인들이 서울, 원주, 강화 등지에서 무장하고 각지의 의병부대에 합류하였다.

1909. 7. 12. 기유각서는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일본에 넘겨준 조약이다. 1910.8.29. 한일 강제병합. 경술국치는 대한민국이 일본에 병합된 사건으로 일본제국과 친일파가 대한제국을 멸망시킨 사건이다.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자주성을 잃고 나라를 빼앗기는 과정에서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봉기하여 일본군을 상대로 국권의 수호를 위한 각종 투쟁을 전개하였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독립군이 일

본에 대한 항쟁을 국내외적으로 펼쳐나갔다. 이러한 항쟁은 윌슨 미국 대통령이 주장한 민족 자결주의에 희망을 품고 1919.3.1. 독립 만세운동으로 발전되었다.

1919.3.1. 독립 만세운동은 평화적인 시위였지만 일제는 무자비하게 총칼로 진압하였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선언에 고무되어 있던 한국인에게 일제의 탄압적인 무단통치와 고종황제 독살설에 대한 확산으로 1919.3.1. 이후 국내와 해외 한인 지역에서 한국은 일본의 속국이 아님을 선포했다.

탑골공원에서 경신중학교 정재용 학생이 대독한 민족 대표 48인의 3.1 독립선언문의 일부이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방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자손만대에 깨우쳐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려 가지게 하는 바이다. 5천 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여 이를 선언함이며 2천만 민중의 충성을 합하여 이를 두루펴서 밝힘이며 영원히 한결같은 민족의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가 가진 양심의 발로에 뿌리박은 세계 개조의 큰 기회와 시운에 맞추어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이 문제를 내세워 일으킴이니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낡은 시대에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역사가 있은 지 몇천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의 압제에 뼈아픈 괴로움을 당한 지 10년이 지났으나, 그동안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겨 잃은 것이 그 얼마이며 민족의 존엄과 명예에 손상을 입은 것이 그 얼마이며 날카로운 기운과 독창력으로 세계 문화에 이바지하고 보탤 기회를 잃은 것이 그 얼마나 될 것이냐?" (중략)

평화적인 시위는 서울과 경기에서 397회, 평안도 260회, 경상도 259회, 충청도 201회, 함경도 179회, 황해도 177회, 전라도 80회, 강원도 79회, 국외에서도 98회나 있었다. 200만 명 이상이 시위에 참가하여, 이 중에 7,509명이 사망했고 15,850명이 부상했고 45,306명이 구금을 당했으며 715호의 민가가 불타고 47개의 교회와 2개의 학교가 불타서 사라졌다. 특히 수원의 제암리교회는 전 성도를 예배당에 가두고 불을 질러 불태워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조선총독부는 3.1운동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고문을 하며 무력으로 강제 진압을 했지만 결국은 한국인의 독립 의지를 꺾지 못하고 유화정책을 시작했다.

3.1독립만세운동으로 한국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선포하였고 민족적 연합전선을 형성하였고 중국 5.4운동에 영향을 주었고 하세가와 요시미치 총독을 사퇴시켰다. 시위가 끝난 뒤에도 그 열기가 꺼지지 않고 각종 독립위원회와 시민단체가 결성되었고 민족교육을 통한 계몽 사업과 조선 여성동우회와 근우회 등의 여성 독립단체와 의열단 등의

무장 독립군이 탄생했으며 현재 대한민국의 모체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설립해서 반일 자주독립에 만족하지 않고 군주제가 아닌 자유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민족의 대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강령의 일부이다. "우리나라의 독립선언은 우리 민족의 혁혁한 혁명을 일으킨 원인이며 신천지의 개벽이니 이른바 우리 조국의 독립국임과 우리 민족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는 우리 민족의 힘으로서 이족 전제를 전복하고 5천 년 군주정치의 허울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 체제를 건립하며 사회의 계급을 없애는 제일보의 착수이다." (중략)

이렇게 3.1운동을 계기로 활동무대가 미국, 소련, 중국 등으로 분산되어 소련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를, 미국과 상해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한성에서는 조선왕조 회복을 꿈꾸다가 상해임시정부로 합쳐지게 되었다.

1919.4.3.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의정원 회의를 열고 국호 및 관제를 의결하여 4.13일에 드디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는 동시에 조직적이고 통일성 있는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일제의 막강한 무력에도 6.10만세 운동, 광주학생운동 등 크고 작은 항일운동이 계속되었으며 김좌진의 북로군정서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은 청산리와 봉오동전투에서 큰 전과를 이루었다. 항일투쟁의 총본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1940. 8월 중국정부로부터 중국 내 활동을 공인받았고 드디어 1940.9.17. 중경에서 광복군을 창설하였다.

1937년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독일 및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은 후에 1941년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공격해서 태평양전쟁을 시작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아시아, 태평양 전역으로 확대되게 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를 국권을 회복하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여 1941.12.9. 일본에 정식으로 선전 포고하고 연합군과 합동으로 대일전을 전개하였다. 연합국의 일원인 중국과 연합작전을 전개하면서 1943. 6월에 영국군 총사령부와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인도, 미얀마에 공작대를 파견해서 일제에 대항했다. 전쟁 기간에 일제는 전쟁에 소요되는 인력과 물자를 충원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극도의 억압과 수탈 행위를 자행하였는데 한민족의 독립운동은 이런 가혹한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전개되었다. *DSJ*

Episodes from a Retired Officer's Military Life

1. 강재구 소령 순직 60주년을 추모하며…

예비역 육군 소령 **김덕수**

2025년 10월 4일 강재구 소령(#16) 순직 60주년 추모식은 그가 다녔던 인천 창영초등학교(40회 졸업)에서 가졌다. 추모예식은 강재구 소령 선양사업회(이사장 이정린 전 국방 차관 #17)가 주관했다.

이번 추모행사가 60주년이고 선양사업회도 이 행사를 통해 새롭게 출발하기 위하여 강재구와 관련된 학교와 군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 유지들을 초대, 범위를 확대한 추모식이어서 의미가 있었다.

선양사업회가 나를 초대한 이유는 강재구 소령이 기독교 신앙의 믿음을 가졌기에 추모식 순서에 있는 기독교 예식 시 추모의 말씀과 기도를 부탁한 것이었다. 추모식에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 생도 시절, 육군박물관에 고 강재구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곳에 갈 때마다 그의 유품들은 나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강재구는 1965년 10월 4일 맹호부대 중대장으로 산화)

나는 평소처럼 육군박물관에 전시된 각종 유물을 보면서 지나다가 문득 강재구 소령의 유품 앞에 발걸음이 멈추었다. 월남파병을 앞두고 수류탄 훈련 중 부하의 실수로 뒤에 대기하고 있는 병사들 쪽으로 떨어진 수류탄에 중대장이 몸을 날려 자신은 산화하고 주변의 부하들을 살린 숭고한 희생의 유품인 찢겨진 전투복과 군화가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

고 그 옆에 조그만 포켓 성경이 펴져 있었다. 순간 하나의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로 뛰어 들어가게 한 것은 주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이 부하 사랑으로 승화되어 그로 뛰어들게 하였다.“

나는 내 가슴에 손을 올려 만졌지만 내 생도 복장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강재구 소령이 전투복에 저 포켓 성경을 소지한 것을 생각하며, 곧바로 언덕에 있는 육사교회로 갔다. 군종 목사께 포켓 성경을 요구했고 목사님은 웃으시며 작은 포켓 성경을 주셨다. 그 후 나의 생도복과 전투복에는 항상 작은 성경이 함께 있어 틈나는 대로 말씀을 읽었다. 졸업 후 소대장이 되어 부하들을 훈련 시키면서 예수님 사랑이 아니면 그 순간에 뛰어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했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추모식에서 이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성경의 한 말씀을 전하였다. 요한복음 15장 13, 14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가장 가까운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간혹 있어도 친구를 위해 목숨을 주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이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셨다.

오늘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진 시대이다. 사랑의 참된 가치가 상실되고 변질된 사랑, 이기적인 사랑, 물질이 삼킨 가식적인 사랑의 시대 속에 살고 있다. 강재구 소령 60주년 추모식을 드리며 우리의 잃어버린 이웃 사랑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기도하였다. *DSJ*

Episodes from a Retired Officer's Military Life

2. 서언, 국방 업무와 마음가짐

예비역 해군 대령 **남무열**

국방 업무 종사자 대부분은 위국헌신, 필사즉생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이러한 정신이 자연스럽게 삶 속에 녹아 있기에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국방 업무는 다양한 분야 종사자들이 함께한다. 이 중에 무기체계 분야로 국한하면 크게 군, 산학연과 방산업체 종사자로 구별할 수 있다. 이러한 삼두마차가 서로 앞서거나 뒤서 가며 조화롭게 역량을 모아 나갈 때 안정적인 국방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지금은 K-방산이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분야 중 하나로 그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는 미 군원 시절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종사자가 열악한 환경하에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열정, 책임감과 죽을 각오로 헌신한 결과일 것이다.

각종 제도를 잘 정비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문성을 가진 양질의 인재를 양성하여 적재적소에서 소통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무기체계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린다. 하물며 위국헌신, 필사즉생의 마음가짐을 본분으로 여기는 무기체계 전문가 양성하기란 쉽지 않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는 성경 말씀처럼 열악한 환경하에서 국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결과물인 자주국방과 K-방산을 누리고 있다.

흔히 해군을 기술군이라 한다. 누가 언제부터 그렇게 불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해군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해군을 기술군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필자가 전투병과에서 기술행정병과로 전과(轉科) 지망을 할 당시에는 배신자 내지는 도전 정신이 부족한 낙오자 취급을 당하기도 하였다.

해군 병기 장교로서 30여 년을 기술 병과에서 복무하고 전역 후에는 방산업체에서 종사했다. 지금

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해군 무기체계 발전을 위해 헌신했고 후배들이 세계열강 선진 해군과 동등한 수준의 해군력을 보유하는데 기여한 점이다. 해군 병기 병과는 육군이나 공군과는 달리 해군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육군, 공군 무기체계도 운용 및 지원하고 심지어 화생방 장비 및 물자까지도 취급한다. 육군 병기 병과나 공군 무장병과는 지원 업무 위주로 일한다. 하지만 해군 병기 병과는 각종 병기, 탄약, 유도무기, 수중무기, 전투체계/사격통제장비, 그리고 화생방 장비 및 물자를 운용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비록 적은 인력이지만 해상에서 함정 근무 시는 전투 요원으로 장비를 운용하고, 육상 근무 시에는 지원 요원으로서 일당백의 역할을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감내한다.

대위 때, 해군본부 병기감실 기획과로 발령되어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병과장 보직을 끝으로 전역할 때까지 각종 함포, 탄약, 유도무기, 수중무기, 그리고 전투체계/사격통제장비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였다.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 획득 관리 업무, 국방 기획 관리 업무 등을 이해 및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장비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며 긍정적이고 적극적 사고로 문제 발생 시 정확한 문제 인식과 신속한 판단, 그리고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군 생활 중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중에 가장 큰 변화는 2006년 방위사업청이 창설된 것이다. 방산 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군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군의 역할은 축소되고 투명성만 강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성이 결여된 집단으로 변질되었다.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음성화만 가속화되고 전문성 결여로 의사결정은 지연되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만연함에 따라 주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러·우 전쟁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으로 K-방산의 부각으로 방위사업청 역할이 중차대해지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돌리고 있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해군이 미 군원 시절을 거치면서 열악한 환경하에서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출해 내었는지 풀어가고자 한다. *DSJ*

Episodes from a Retired Officer's Military Life

3. 나는 어떻게 참 군인이 되었는가?

예비역 공군 중령 **백현봉**

1977년 1월 4일, 공군 교육사령부 연병장(현 대전 둔산)의 겨울바람은 매서웠다. 공군 2사관학교 입학을 위한 정밀 신체검사 후 체력 검정 마지막 종목인 1.5km 달리기가 그곳에서 있었다. 멀리뛰기 점수 만회를 위해 조선일보 배달을 통해 다져진 하체를 활용하여 2등과 큰 차이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정밀 신체검사가 있는 당일, 조선일보 "새벽을 달린다" 시리즈에 필자에 관한 기사-광주기지 활주로 연장선상에 거주하였기에 어릴 때부터 전투기의 폭음을 들으면서 조종사의 꿈을 키워왔다-내용도 회자되었다.

결과적으로 최종 합격 되어, 2월 1일 정식 생도가 되기 위한 4주간의 가입교 과정에 입과 하였다. 가입교 훈련은 참 군인 자원을 최종 선발하는 과정이기에 기초훈련과 함께 정신적·체력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세 번째 주부터는 체력이 고갈된 상태이기에 강한 정신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가입교 입과 전에 배고픔과 많은 역경의 다리를 통과하였기에 모든 훈련을 즐기면서 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3월 2일 정식 입교를 통해 2년간의 생도 생활도 고되지만 즐길 수 있었고, 대대 대항 체육대회 시는 무장 구보 선수로 활약했다.

중학교 시절, 납부금 마련을 위해 학기 중에 4일간 황룡강에서 자갈 채취 작업 경험과 졸업 시까지 새벽마다 광주 제1전투비행단 곳곳을 누비며 조선일보 배달을 하였다. 현역 시절 해당 기지에서 근무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부대 전체 그림이 그려진다. 배달을 마치고 등교하면 이미 수업은 시작되었고 당시 아침은 항공 수송반 근무자 형(병사)과 이동 배식으로 해결하였다. 고등학교는 단신으로 서울에 올라와 신문과 시험지 배달을 하며 야간고등학교를 다녔다. 고1 때는 영양실조로 반장을 중간에 그만두기도 했고, 고2 때는 등교 후 신문보급소 화재로 인해 교복이 타버려 한동안 교련복만 입고 다니기도 했다. 수면이 항상 부족한 상태였기에 어느 날은 버스 종점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당시 통행금지를 피하려고 자진해서 24시 전에 신촌의 어느 파출소에 들어가 근무자들의 수고를 직접 볼 수 있었다.

어려운 학창 시절이었지만 나의 주변에는 있는 천사들로 인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었다. 중학교 때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선생님이 계셨다. 구독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가정에 초대받기도 했고 아들로 생각하시는 분도 몇 분 계셨기에 나도 어머니로 불러드리며 살아생전에 자주 찾아뵈었다. 나의 어려움을 이해하신 남산 국립중앙도서관 수위장의 도움으로 도서관도 편리하게 이용했다. 이른 새벽 남대문시장 골목과 회현동 일대를 누비고 남산 케이블카가 있는 곳에 이르면 아카시아 진한 향기가 땀을 식혀주기도 했다.

"내 생명 조국에, 내 젊음 하늘에"라는 생도 신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치고 1979년 4월 1일 공군소위로 임관했다. 초등·중등 비행 과정을 수료하고, 고등 비행 과정 중에 17전비 152 비행대대 F-4E 후방석 요원으로 배치받아 1,000여 회의 비행을 했다. 대학원에서 컴퓨터 관련 전공을 통해 전산 병과로 전환하여 공군대학 교관, 군수혁신, 분석평가 업무를 수행했다. 합동참모본부·공군본부·국군통신사령부 근무를 통해 한국군 최초의 C4I 사업 전체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영광도 누렸다. 국군통신사령부 과장으로 재직 시는 한국군 최초의 초고속 기간망 사업을 종결했다. 2008년 전역 후, 국방SW산학연협회 재직 시는 국방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교육을 주관했다. 세종대 국방연구소에서 '국방표준화'를 만나 미국 전쟁부(DoW)와 한국군 격차를 줄이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며 현재도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본 Episode 제목에서 감히 "참"이라는 부사를 본인이 붙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30년의 군 생활을 오직 국가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책임을 다했다고 자부하기 때문이다. "For God, For Country" 기독군인회(MCF: Milirary Christian Fellowship) 표어처럼. 향후 다양한 군 생활 Episode를 통해 여러 경험을 풀어가겠다. *DSJ*

Episodes from a Retired Officer's Military Life

4.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비역 해병대 대령 **윤종욱**

고등학교를 졸업 후 집에서 부모님의 생업을 돕고 지내던 '71년 가을(9월)에 해군사관학교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어려운 가정형편 관계로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일반대학을 포기하고 사관학교를 선택했다. 3남 3녀 중 장남인 내가 일반대학을 간다면 다섯 명의 동생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필기시험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으나 신체검사에는 자신이 없었다. 그중에서도 몸무게가 문제였다. 당시 사관학교 신체검사 시 최소 체중이 54 Kg 이었는데 나의 평소 몸무게가 51 Kg 밖에 안 되었다. 어머님께서 걱정이 되셨는지 어느 장날 깡통 분유 한 통을 사 오셨다. 끼니때마다 한 숟가락을 따뜻한 물에 타서 먹었다. 동생들도 곁에 있을 때는 야박하게 혼자 먹을 수 없어 같이 나눠 먹기도 했다.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몸무게를 확인하니 효과가 없었다.

해사 시험은 신체검사, 필기시험, 체력검정 및 면접 순으로 2일간 진행되었다. 시험 전날 대구로 내려가 신체 검사장인 육군 병원 정문 인근에 있는 여인숙에 투숙했다. 시험 당일 체중이 걱정되어 아침에 밥, 국, 그리고 반찬을 한 가지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그릇을 비운 후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물을 최대한 마셔 배를 채웠다. 그러나 대기하면서 소변 한번 보고 나서 체중계에 올라가니 51.5 Kg 이었다. 최소 체중이 54킬로그램인데 절망감을 느꼈다. 담당 군의관의 펜 끝에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담당 군의관이 팬티만 입은 나를 아래위로 두어 번 훑어보더니 '54.0'이라고 체중 칸에 써주었다. 목례로 감사의 뜻을 표했다. 다음은 혈압이 문제가 되었다. 평소에 정상이었던 혈압이 긴장한 탓인지 정상치보다 높게 나왔다. 군의관에게 다시 측정해보겠다고 했더니 그러라고 했다. 서늘한 바닥에 등을 대고 잠시 누워 있다가 재측정하니 정상치로 나와 신체검사에 합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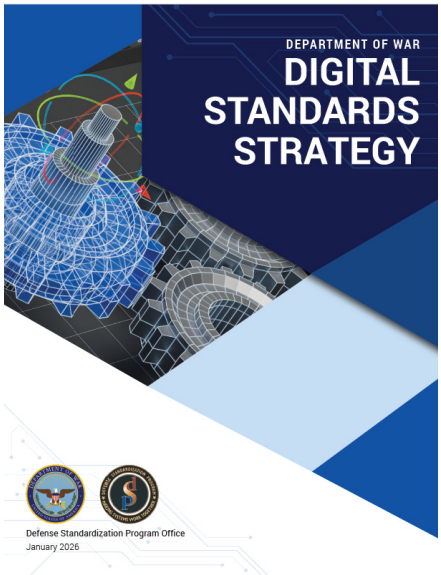
1차 시험인 신체검사에 합격한 후 2차 시험인 필답고사는 시험장인 대구공고에서 보게 되었다. 당시 한 교실에 60명 정도 수업받을 수 있는 책상과 걸상이 있었는데 일부 책상과 걸상을 뒤쪽으로 밀

쳐놓고 수험생 간에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30여 개의 책상과 걸상을 배치했었다. 응시자들은 교복 입은 학생과 사복 입은 학생이 거의 반반이었다. 응시자들을 둘러보고 이 중에서 1~2명이 합격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긴장이 되었다.

1972년 1월 10일에 최종 합격통지서를 받고 24일 입교하여 4주간의 가입교(假入校) 훈련을 마친 후 3월에 사관생도가 되어 4년간의 생도 생활을 마치고 1976년 3월에 해병대 소위(포병)로 임관하여 31년간 근무 후 2007년 3월 31일 전역하였다.

군 생활을 마치고 나서 나의 지금까지 삶의 궤적을 반추하면서 가끔 신체검사 시 몸무게를 정상치로 써준 담당 군의관을 생각하곤 한다. 지금쯤 나이가 90세는 되었을 텐데 아직 살아계실까? 관계기관에 확인하면 알 수 있을까? 넉넉한 마음을 가진 그분이 존경스럽고 마음속으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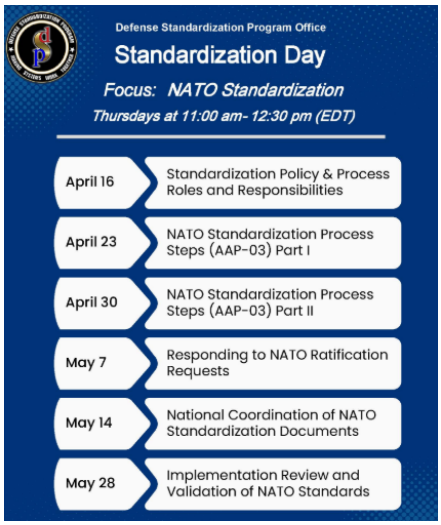
■ 표준화의 미래: DoW Digital Standards Strategy 제정



2026년 1월 12일, 국방표준화 프로그램사무국(DSPO)은 전쟁부 디지털 표준 전략을 발표했다. 해당 전략은 전쟁부 전반에 걸쳐 통합적인 디지털 및 모델 기반 접근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 개발 및 관리 관행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략적 지침 역할을 한다. 디지털 표준 전략은 전쟁부가 권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표준을 확보하기 위한 올바른 프로세스, 제품과 도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본 원칙과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해당 전략은 현재와 미래의 표준 사용자 니즈를 충족하는 형식으로 디지털 표준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ource: DSP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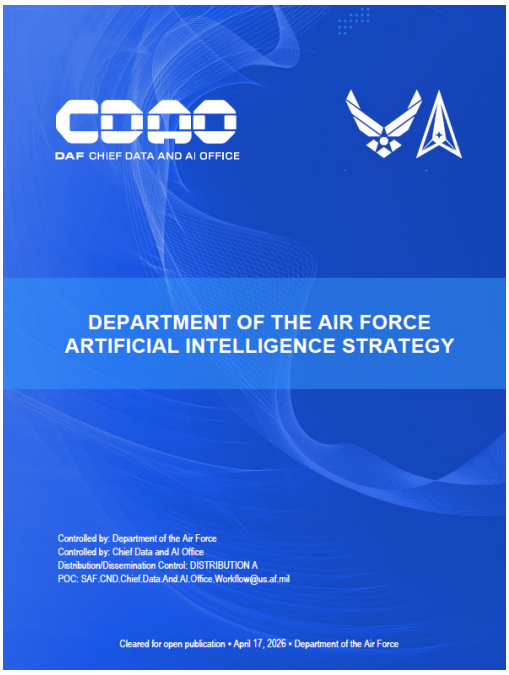
■ DSPO "표준화의 날" 행사를 통해 전문성 향상



DSPO는 전쟁부 구성원들의 표준화 관련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인 "표준화의 날"을 소개한다. 우리의 첫 번째 이벤트 시리즈는 NATO 표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해당 세션은 NATO 표준화와 관련된 정책, 절차 및 책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모든 세션은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30분(미국 동부시간)까지 MS Teams를 통해 진행된다.

〈source: DSP 홈페이지〉

■ DAF, 군사적 우위 확보 가속화를 위한 데이터 및 AI 전략 발표



미 공군 최고 데이터 및 인공지능 책임자실에서는 2026년 4월 20일, 공군 데이터 및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했다. 해당 전략들은 전쟁부가 인공지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정적인 전력 증강 요소이자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여 회의실에서 전장까지 제공권과 우주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로드맵을 제공한다. 해당 전략은 전쟁부의 2026년 국가방위전략 및 2026년 인공지능 전략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특히 전쟁부 장관이 우선시하는 전사 정신의 부활과 기술적 우위를 통한 억지력 재확립을 지원한다. 해당 지침 문서는 훈련 및 준비 태세부터 다영역 작전에 이르기까지 여러 임무 영역에 걸쳐 AI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데이터가 현대 전쟁의 핵심 무기라는 점을 인식하여, 해당 전략들은 데이터를 전략적 자산으로 취급하는 것을 강조하며, 분산형 데이터 아키텍처를 채택함으로써 DAF는 전투원들에게 임무 수행 속도에 맞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한다.

해당 전략의 실행을 통해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핵심 임무 구성 요소로 제도화하려는 CDAO의 2026 회계연도 목표를 직접적으로 진전시킨다. 이는 전쟁부 장관의 "속도가 승리한다."는 우선순위에 기반하여, 미래의 전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오늘날 작전 요원들에게 인공지능 기반 역량을 끊임없이 제공하는 데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https://www.af.mil/News/Article-Display/Article/4467267/daf-releases-data-ai-strategies-to-accelerate-military-dominance/

■ SD-22「제조원 감소 및 자재 부족(DMSMS) 가이드북」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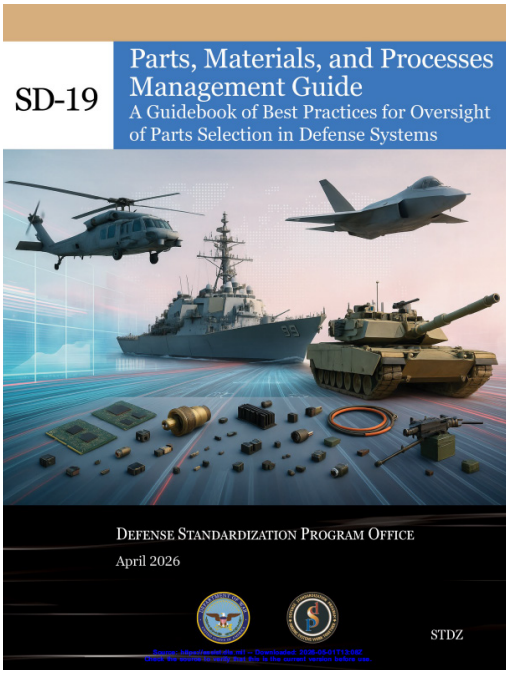
SD-22 개정판이 2026년 1월 6일 발간되었다. 이번 업데이트는 의도적으로 범위가 제한적이며, 실행력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전반의 일관성 개선을 위한 두 가지 핵심 개선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DMSMS 관리 계획(DMP)에 대한 설명이 개정되었다. 기존에 별도로 제공되던 DMP 템플릿이 업데이트되어 새로운 부록에 통합되었으며, 관련 지침이 하나의 권위 있는 자료로 정리되었다. 또한, 계획 수립, 검토 및 감독을 지원하기 위해 상세한 DMP 체크리스트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을 통해 획득 전 과정에 걸쳐 DMP의 명확성, 표준화 및 활용성이 향상되었다.

둘째, 새로운 지침은 해외 군수 판매(FMS) 장비의 효과적인 DMSMS 관리 저해 요인을 다룬다. 해당 문서는 DMSMS 관리 프로세스의 각 단계를 자세히 설명하며, 일반적인 FMS 관련 문제점과 이를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고려 사항을 강조한다. 해당 지침은 획득 혁신전략과 일맥상통하며, 프로그램 구조나 고객 유형과 관계없이 DMSMS 고려 사항을 조기에 그리고 일관되게 통합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source: Link copied to clipboard.View post.

■ SD-19「부품, 자재 및 프로세스 관리 가이드」 개정



SD-19 개정판이 2026년 4월 27일 발간되었다. 군사 시스템의 설계, 개발 또는 수정 과정에서 PM&P 관리 감독에 관여하고 있다면, 새롭게 업데이트된 SD-19 부품, 자재 및 프로세스 관리 가이드를 읽어 보시기를 강력히 권장한다. 2023년 12월 버전은 프로그램사무국이 업계 부품 선정 과정을 감독하는 방식에 있어 중요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이번 새 버전에서는 기존의 성공적인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업무를 더욱 수월하게 만들어 줄 실질적인 개선 사항들을 도입했다.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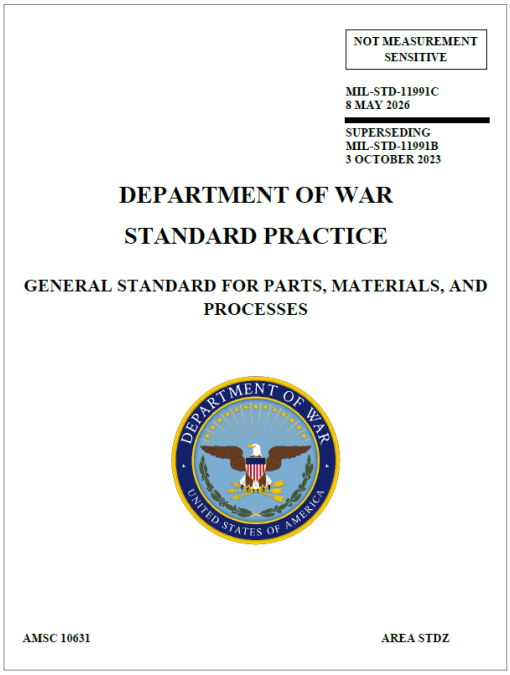
• 효율성 향상: 새로운 감독 패러다임을 훨씬 더 빠르고 직관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 계약업체 기대치 명확화: 계약업체가 전쟁부 승인을 위해 PM&P 관리 계획을 제출할 때 전쟁부 요구사항을 어떻게 맞춤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여 검토 프로세스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 구성 및 일관성 개선: 읽기 쉽게 내용을 재구성했으며, 용어를 전반적으로 "PM&P 관리"로 표준화했다. 해당 문서는 우리의 국방 시스템이 신뢰할 수 있고 잘 관리되는 부품과 자재를 기반으로 구축되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이다.

source: Link copied to clipboard.View post

■ MIL-STD-11991「부품, 자재, 프로세스에 대한 일반 표준」 개정


NOT MEASUREMENT SENSITIVE

MIL-STD-11991C
8 MAY 2026

SUPERSEDING
MIL-STD-11991B
3 OCTOBER 2023

DEPARTMENT OF WAR
STANDARD PRACTICE

GENERAL STANDARD FOR PARTS, MATERIALS, AND PROCESSES

AMSC 10631 AREA STDZ

미 전쟁부(DoW) Practice 표준인 MIL-STD-11991C(부품, 자재, 프로세스에 대한 일반 표준) 표준이 최근 합동 검토팀에 의해 개정되었다. 해당 팀에서는 200건이 넘는 의견과 제안을 검토했다. 해당 표준은 2023년 10월 3일 자 개정판 B를 대체하여 5월 15일 ASSIST를 통해 공개되었다. 해당 표준은 군사 시스템의 개발, 생산 및 지속 유지 과정에서 사용되는 PM&P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또한 해당 표준은 상용 기성품(COTS)을 군사 시스템에 통합하는 데 적합한지 평가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이번 업데이트의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최신 정의 및 추가 자료(550개 이상의 문서 및 출판물 포함), 그리고 설명적인 표현을 추가하여 명확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해당된 경우, 현 정책, 표준 및 지침(MDA PMAP 및 NASA 문서 포함)과 일치하도록 했다.

• 상용 기성품(COTS) 고려 사항 및 부하 경감(derating) 업데이트 포함에 특히 중점을 두었다.

• 용접, 자재, 전자 장치 및 도금 등 주요 기술 분야에 수정이 이루어졌다.

• 각 하드웨어 범주에 대해 IPC 신뢰성 등급이 지정되었다.

MIL-STD-11991C 표준은 임무 준비 태세를 보장하고 전쟁부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이다.

* Link to MIL-STD-11991C on ASSIST: https://lnkd.in/gebFYdyu

source: Link copied to clipboard. View post

■ 민·군이 협업하여 국방 데이터 활용 AI 생태계 조성

국방부는 3월 6일(금) 14시 이두희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국방 데이터·인공지능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방 데이터 활용 및 AI 민 · 군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먼저, 국방부는 민 · 군이 공동으로 국방 데이터를 활용하여 군이 필요로 하는 AI 기술 과제를 함께 개발하기 위한 「군·산·학 협력 센터」을 5개 지역에 설치하고,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목록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주요 데이터에 대한 「국방 데이터 카탈로그」를 작성하여 시범 제공할 계획이다.

「군·산·학 협력 센터」는 민간과 군이 최신 AI 기술을 공유하고 활용하는 공간으로서 군별 특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울 용산(합참), 양재(공군), 판교·대전(육군), 부산(해군·해병대) 등 5개소에 설치된다. 5개 센터별로 거점별 특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대학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이 공동 연구개발 기관으로 참여하여 각 군과 대학, 지자체, 기업 등이 소규모 연구그룹을 구성 · 운영하는 등 AI 개발 협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군이 필요로 하는 기술 분야에 대해 민간의 AI 전문 인력과 군 인력이 함께 연구과제를 공동 기획하고, 실험적 AI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실무형 군 AI 인재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이 보유한 데이터 중 민간의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방 데이터의 목록 · 종류 · 속성 등을 포함한 「국방 데이터 카탈로그」를 작성하여 민간에 시범 제공할 계획이다.

〈source: 국방부 보도자료〉

■ 국방표준화 추진 체계 개선을 위한 민·군규격표준화사업 발전 전략 도출 선진화 연구

국방기술품질원 표준화 연구실은 2026. 4월 위 용역에 대한 제안요청서를 공개했다. 위 용역의 배경과 목적은 현재 국방표준화 체계가 기술 분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기반 정

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방 표준 개발은 소요 기관과 기술 분야별로 개별 추진되고 있어 표준간 연계가 부족하고 통합적 관리가 제한됨에 따라 기술 발전 속도에 대응 가능한 체계적인 국방 표준 개발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

효율적인 국방표준화 업무 추진을 위해 해외 및 민간 표준화 체계와의 비교·연계를 통한 발전 방향 정립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의 체계적 추진이 필요하다.

주요 과업 내용은 ① 국방표준화 추진 체계 재정립 ② 국방표준화 우선순위 기반 개발 체계 구축 ③ 선진 사례분석 및 정책/제도(법령) 개선 방안 도출 ④ 민·군규격표준화사업 성과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이다.

〈source: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 입찰공고 233번〉

■ 모듈식 개방형 무인체계 정책(K-MOSA) 적용을 위한 공통 설계 표준·인증 체계 확립 방안 연구

국방기술품질원 첨단기술팀은 2026. 4월 위 용역에 대한 제안요청서를 공개하였다. 위 용역의 배경과 목적은 전 세계적으로 무인체계의 중요성이 부각한 현재, 기존 획득되는 무인체계는 MOSA 기술 미적용으로 실시간 표적 데이터 전송 및 공유 불가 등 상호운용이 제한된다. 또한 美·NATO 등 우방국과의 협력과 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통 아키텍처 기반 획득 및 K-MOSA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각 군의 다양한 유무인복합체계 소요 증가에 따른 무인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가 요구된다. AI 및 빅데이터 기반 기술 발전에 따라 계열화·모듈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K-MOSA 정책 추진에 따른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과제 목표는「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개정 및 제정 예정인「K-MOSA 지침서」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임무 구체화를 위한 목적으로, 국방 무인체계 모듈화·공통화·개방화 적용을 위한 평가도구를 고도화하고,

공통 아키텍처 표준화 방안 및 인증 업무의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다. 제안 요구사항은 사례 기반의 MOSA 공통 설계(안) 표준화 연구, 한국형 MOSA 적용을 위한 인증 업무 절차 마련, 현행 표준 및 인증 정책 대비 K-MOSA 표준·인증 체계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정책 방향 제언이다.

〈source: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 입찰공고 256번〉

■ 모듈식 개방형 무인체계 정책(K-MOSA) 적용을 위한 공통 설계 표준·인증 체계 확립 방안 연구

국방기술품질원 첨단기술팀은 2026. 4월 위 용역에 대한 제안요청서를 공개하였다. 위 용역의 배경과 목적은 전 세계적으로 무인체계의 중요성이 부각한 현재, 기존 획득되는 무인체계는 MOSA 기술 미적용으로 실시간 표적 데이터 전송 및 공유 불가 등 상호운용이 제한된다. 또한 美·NATO 등 우방국과의 협력과 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통 아키텍처 기반 획득 및 K-MOSA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각 군의 다양한 유무인복합체계 소요 증가에 따른 무인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가 요구된다. AI 및 빅데이터 기반 기술 발전에 따라 계열화·모듈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K-MOSA 정책 추진에 따른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과제 목표는「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개정 및 제정 예정인「K-MOSA 지침서」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임무 구체화를 위한 목적으로, 국방 무인체계 모듈화·공통화·개방화 적용을 위한 평가도구를 고도화하고, 공통 아키텍처 표준화 방안 및 인증 업무의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다. 제안 요구사항은 사례 기반의 MOSA 공통 설계(안) 표준화 연구, 한국형 MOSA 적용을 위한 인증 업무 절차 마련, 현행 표준 및 인증 정책 대비 K-MOSA 표준·인증 체계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정책 방향 제언이다.

〈source: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 입찰공고 229번〉

KAFSP

Center for Korea-America Freedom & Security Policy

(사)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